

RIO

RUSSIA IN&OUT No. 13 (2025.5)

특집 기획 우주 시대의 도래: 인류는 정말 화성으로 갈까?

RIO 초대석 리하초바 학장, 고등경제대 국제 전문 인력 양성의 기수

크렘린 전망대 승리 80주년! 문화적 풍경과 정치적 의미

경제 내비게이션 러시아의 AI 개발 전략과 향후 전망

역사 프리즘 알렉세이 호먀코프, 슬라브주의의 창시자

예술 현장 자유를 향한 '잘못된' 길: 구바이둘리나의 삶과 창작



Photo Essay

해마다 오월이 되면 러시아는 온통 붉게 물든다. 5월 9일 대조국전쟁(2차 세계대전) '승리의 날'을 앞두고 소련 국기와 소련군 '승리 깃발', 별 등 각종 붉은색 상징물이 러시아 각지의 광장과 공원, 거리와 골목, 도로, 주택을 울긋불긋 수놓기 때문이다. 특히, 올해는 소련군이 나치 독일군을 물리치고 승리한 지 8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여서 러시아 방방곡곡이 어느 때보다도 더 붉디붉게 물들었다. 모스크바 쿠투조프 거리의 개선문 앞에도 전승 80주년을 기념하는 붉은색 깃발들이 마치 늠름한 병사들처럼 두 줄로 도열해 서서 근처의 '승리 공원'으로 향하는 사람들을 반갑게 맞이하는 듯했다. [사진·글: 라승도]

발간사

최근 미국 등 전 세계에 1957년 스푸트니크 쇼크 못지않게 큰 충격을 준 것은 딥시크(Deep-Seek)의 등장이다. 혁신에 실패해야 할 국가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 2024년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의 저자들의 입장이 애매해졌다. 민주주의 등 포용적 제도를 시행한 나라는 성공하고 독재와 권위주의 등 착취적 제도를 실행한 나라는 실패한다는 점을 계량적으로 입증했다는 것이 수상 이유였다. 수상 직후 외신 기자가 “권위주의 국가인 중국도 경제발전을 이룩하지 않았느냐”라고 묻자, 수상자들은 “장기적으로 혁신과 경제발전을 이뤄내기가 어렵다”라고 답했다. 그로부터 불과 3개월 후에 딥시크 쇼크가 터졌다. 이근 서울대 교수는 “민주주의가 후발국의 경제성장을 보장하지 않고 처음부터 서구적 자유민주주의를 쫓 유지해 선진국이 된 나라는 없다”라고 반박한다. 동아시아 개발 독재가 성공한 원인은 국민에게 좋은 교육과 일자리를 제공하고 나아가 세계 시장에서 선진국 기업과 경쟁하는 초우량 대기업을 육성한 데 있다. 에드워드 글레이저 하버드대 교수도 빌 게이츠도 노벨상 저자들의 책을 읽고 나름의 이유로 실망을 토로했다. 정답은 아직 모른다. 다만 권위주의 대 민주주의, 국가 주도 대 민간 주도 등의 단순한 이분법이 선부르고 위험하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공교롭게도 이 책을 최근 탄핵당해 실패한 대통령이 인생의 책으로 추천했다. “분배가 공정하지 않은 사회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라는 점이 마음에 들어서 추천했다고 한다. 지금 미국은 분배가 과연 공정한가? 현재 미국도 중국도 이 이분법으로는 모두 실패한 국가일 수도 그 반대일 수도 있다. 이분법은 항상 이데올로기 편향적이다. 이번 호 「예술의 현장」에서는 이분법을 구성하는 대립항 간의 균형 혹은 진동을 얻어야만 갈등을 넘어 통합의 윤리로 나아갈 수 있음을 실천적으로 보여준 현대 음악의 거장 소피야 구바이둘리나의 삶과 창작을 되돌아봤다. 「특집 기획」은 20세기에는 국가 주도의 경쟁이 민간 기업의 도약을 이끈 데 반해, 21세기에는 민간 주도의 경쟁이 국가 정책을 촉발하는 글로벌 우주 산업의 변화를, 「경제 내비게이션」에서는 러시아 국가 주도의 AI 발전 정책과 민간 기업의 대응을 다뤘다. 「RIO 초대석」에서는 소련 붕괴 후 국가 주도로 서방의 사회과학적 방법론을 수용하며 개교한 고등경제대학교의 학제 간 융복합 노력을 소개했다. 「크렘린 전망대」와 「미디어 트렌드」는 노동절과 전송절 등 5월 러시아의 주요 명절 현장에서 저자들이 직접 체험한 역사의 기억을 둘러싼 국가와 시민 간의 길항을 전했다. 「역사 프리즘」에서는 슬라브주의의 창시자 호마코프가 서구의 단순한 부정과 러시아에 대한 일방적 애국주의가 아니라 처절한 자기 성찰을 통해 서방과 동방 간의 균형을 지향했다는 점을 조명했다. RIO는 이분법의 포퓰리즘이 주는 확증편향의 달콤한 미망과 싸우는 모든 지적 투사의 영웅적 투쟁에 힘찬 박수를 보낸다.

2025년 5월 31일

편집위원회

RUSSIA IN&OUT

RIO 2025년 5월호 No. 13

편집주간 김현택

편집위원 라승도, 박종호, 이대식, 김현진

디자인 김지연

서울시 종로구 새문안로 92 광화문 오피시아 1813호

info@rioins.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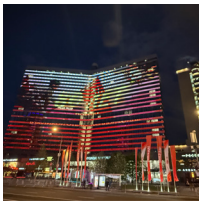
04 | 특집 기획
우주 시대의 도래: 인류는 정말 화성으로 갈까? 이대식

2000년대 들어 미국의 SpaceX 등 민간 주도의 화성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고속 성장을 이어가고 있는 글로벌 우주 산업의 현황과 함께 이면에서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기 위한 우주 강국 간 경쟁을 살펴본다.



16 | RIO 초대석
리하초바 학장, 고등경제대 국제 전문 인력 양성의 기수 김현택

짧은 기간에 러시아를 대표하는 명문 대학으로 성장한 고등경제대학교의 세계 경제·정치 학부 아나스타시아 리하초바 학장을 만나 이 대학이 추구하는 차별성과 최근의 기술변화를 반영한 교육 및 연구 분야의 혁신 노력 등에 대해 의견을 들어본다.



30 | 크렘린 전망대
승리 80주년! 문화적 풍경과 정치적 의미 라승도

5월 9일 대조국전쟁(2차 세계대전) ‘승리의 날’ 80주년을 맞아 모스크바 붉은광장에서 열린 기념식과 군사 행진 등 다채로운 기념행사와 사진, 현상 등을 둘러싼 문화적 풍경과 이에 담긴 정치적 의미를 짚어본다.



39 | 경제 내비게이션
러시아의 AI 개발 전략과 향후 전망 박지원

우크라이나 전쟁 전후로 러시아 AI 산업의 환경 변화와 함께 러시아 정부의 AI 육성 정책, 주요 국영·민간 기업의 AI 개발 방향과 응용 현황을 살펴보고 향후 러시아 AI 산업의 발전 가능성과 한계를 전망한다.



47 | 역사 프리즘
알렉세이 호마코프, 슬라브주의의 창시자 마리나 야르다예바

19세기 러시아 사상가이자 신학자이기도 한 알렉세이 호마코프의 생애와 사상을 통해 슬라브주의의 기원과 더불어 신앙과 민족을 둘러싼 러시아적 사유가 어떻게 형성되고 실천되었는지를 조명한다.



58 | 예술 현장
자유를 향한 ‘잘못된’ 길: 구바이둘리나의 삶과 창작 박선영

지난 3월 타계한 현대 음악의 거장 작곡가 소피아 구바이둘리나의 삶과 창작 세계를 돌아보면서, 그녀가 음악을 통해 추구한 자유와 진리, 갈등과 분열을 넘어선 화해와 통합, 신성과 존재에 대한 근원적 탐구, 영적 진리의 의미를 다각도로 조명한다.



65 | 미디어 트렌드
기억의 계절: 러시아의 5월 풍경 김현진

2025년 러시아의 5월 노동절과 전승절, 그 사이 펼쳐진 ‘5월 명절’, 그리고 모스크바 지하철 90주년 기념일이 맞물리며, 국가의 기억과 도시 문화, 시민의 일상이 중첩되는 풍경 속에서 오늘날 러시아 사회의 단면을 살펴본다.

21세기 글로벌 우주 경쟁과 러시아

20세기 냉전 시기 우주 진출을 둘러싼 미·소 양강 구도는 21세기 들어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민간 기업 SpaceX의 스타링크와 화성 프로젝트 등장으로 미국의 독주 체제로 전환되고 있다. 그러나 미국과 기술 패권 경쟁을 벌이고 있는 중국이 빠른 속도로 따라잡는 가운데 후발 주자인 유럽, 인도 등도 괄목할 만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한편, 과거 우주 강국이자 한국의 우주 산업 발전의 동반자였던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서방으로부터 고립되면서 발전 현황이 베일에 가려져 있다. 최근 글로벌 우주 산업의 현황을 개괄하고 러시아 우주 산업의 현주소와 미·중·러 강대국 간 우주 진출을 둘러싼 경쟁 상황을 살핀 후 향후 한국과 러시아 간 협력 가능성을 모색한다.

연재 순서

1. 우주 시대의 도래: 인류는 정말 화성으로 갈까?
2. 러시아, 여전히 우주 강국인가?
3. 미국·중국·러시아, 누가 승자인가?
4. 한국·러시아 우주 협력의 현재와 미래

우주 시대의 도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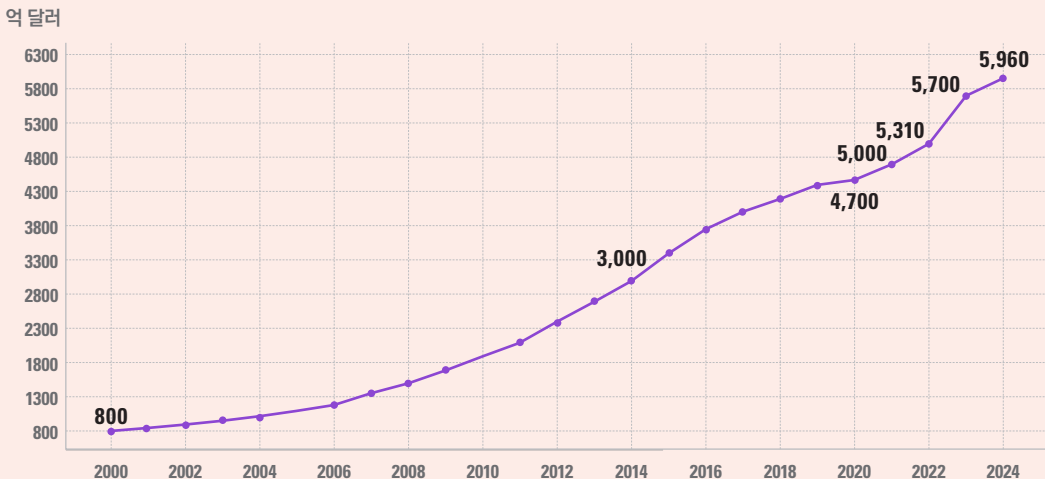
인류는 정말 화성으로 갈까?

이대식 RIO Institute 대표

2000년대 이후 비약적으로 성장하는 우주 산업: 민간화의 결과

글로벌 우주 산업 규모는 2024년 5,960억 달러에 이르며 연평균 성장률은 최근 5년간 6.1%, 2000년 이후로는 8.7%로 같은 기간 세계 경제성장률 3.1%와 3.0%의 두 배에 해당하는 높은 성장률을 시현하고 있다. 이는 10년 전인 2014년보다 거의 2배, 2000년보다 약 7.5배 늘어난 수치다. Novaspaces는 2033년이 되면 이 규모가 9,440억 달러까지 증가하리라고 전망한다.¹

2000~24년 전 세계 우주 산업 시장 규모 추이 (연평균 성장률: 8.73%)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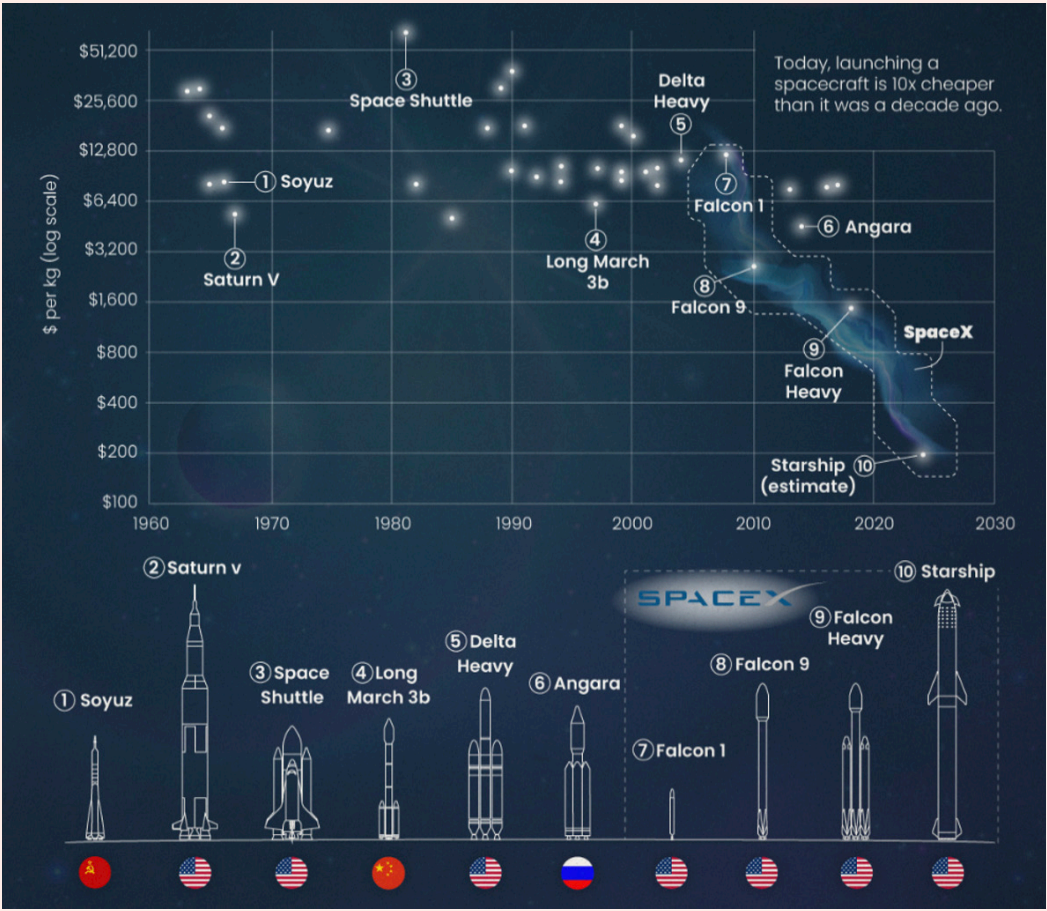


2000년대 이후 이런 고속 성장은 2000년 이전과는 매우 대조적이다. 1957년 소련의 스푸트니크 발사, 1969년 미국의 아폴로 11호 달 착륙 등으로 우주 시대가 열렸지만 1970년대까지는 미국과 소련 간의 기술과 군사력을 통한 패권 경쟁의 일환으로 국가가 주도한 우주 산업은 기술 파급력은 컸지만, 시장 규모는 작고 제한적이었다. 1980년대에 인텔샷(INTELSAT), 이리듐(Iridium), 위성 TV 등 민간 위성통신이 등장하고 미국 국방부의 GPS가 민간에 개방되면서 초기 수준의 상업화가 이뤄졌다. 그러나 미국의 우주왕복선이나 러시아의 프로톤(Proton) 등 우주 발사체는 여전히 국가가 독점하고 고비용 구조가 지속되어 우주 산업 연평균 성장률은 약 2~3% 수준에 머물렀다. 이후 1990년대에는 위성 TV, 이동통신, 항법 등의 발전으로 상업 위성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국제우주정거장(ISS)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국제 우주 협력 기반이 확대되어 유럽의 ESA, 일본의 JAXA 인도의 ISRO 등 새로운 국가들도 본격적으로 참여하여 우주 산업이 성장했으나 발사체 시장은 여전히 정부가 주도하여 연평균 성장률은 4% 내외에 그쳤다.

그러나 2002년 일론 머스크의 SpaceX 등장으로 글로벌 우주 산업은 획기적인 전환기를 맞이하게 된다. 민간 기업 SpaceX가 미국항공우주국(NASA)의 상업용 궤도 운송 서비스(COTS: Commercial Orbital Transportation Services)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정부 예산과 벤처 투자로 Falcon 9과 Dragon 캡슐을 개발하여 서비스를 제공했다. NASA는 이제 우주선을 직접 개발하지 않았고 민간 기업에 “목표 성능만 요구하고 그 결과물인 로켓의 서비스”를 구매했다. 이렇게 정부 주도에서 민간 주도로 바뀌면서 우주 산업은 초고 신뢰도를 지향하는 고성능과 고비용, 소수의 대형 시스템 중심 구도에서 적정 신뢰도를 지향하는 적정 성능과 저비용, 다수 소형 시스템의 네트워크 중심 구도로 전환했다.³ 초고 신뢰도를 달성하기 위한 맞춤형 특정 부품이 아니라 적정 신뢰도 정도만 만족시킬 수 있는 상용 기성품(COTS: Commercial Off-the-Shelf)도 사용할 수 있게 되어 대량 생산에 따른 비용 절감이 가능했다. 예를 들어 NVIDIA Jetson, Raspberry Pi CM 등 기성품 하드웨어를 사용해 비용을 수천만 원에서 수백만 원 수준으로 낮출 수 있었다. TinySat, CubeSat에 사용된 저가형 온보드 영상처리 장치도 마찬가지다. 지구 관측 위성엔 GoPro, Sony IMX 시리즈 CMOS 센서 등 기존 상용 부품을 활용하거나 Starlink 지상국(유저 단말기, gateway) 부품에도 소비자 가전 공급망에서 확보할 수 있는 기성 Wi-Fi 라우터, 무선 송수신 칩셋 등을 적용하고 NASA JPL의 자율 로버 실험에 중국 DJI 드론 부품, 시중 RC 서보 모터, 사출 3D 프린팅 프레임 등을 활용했다. 이를 통해 개발 기간도 수년에서 수개월로 단축하여 종합적인 비용 절감 효과는 더욱 커졌다. 우선 위성을 탑재하는 발사체의 비용이 비약적으로 감소했다. 이런 식으로 kg당 발사 비용이 1980년대 54,000달러 대에서 2000년대 SpaceX 등장 이후 Falcon1에서는 12,000달러 대로, Falcon9에서는 2,000달러 대로, Falcon Heavy에서는 1,000달러 대로 급격히 떨어졌다. Starship이 만들어지면 그 비용은 200달러로 더 낮아질 것으로 추정된다.⁴

“ 정부 주도에서 민간 주도로 바뀌면서
우주 산업은 적정 성능과 저비용, 다수 소형 시스템의
네트워크 중심 구도로 전환 ”

우주선 발사 비용 변화 추이(kg당 달러)⁵



또한, 소형의 Falcon1이나 중형의 Falcon9처럼 저비용 소형 발사체에 저비용 소형 위성을 다수 탑재하여 다중 발사하는 전략이 채택되어 한 회 발사 시 탑재되는 위성 수가 비약적으로 늘어났다. Falcon9은 50~60기의 위성을 한 번에 발사했다. 평균적으로 발사 1회당 위성 숫자가 2013년 2.5기에서 2020년 12.5기로 5배 늘어났다. 이로써 CubeSat(10cm³ 크기의 모듈 단위(NU)로 제작되는 소형 위성), SmallSat(500kg 이하 소형 위성) 등으로 이뤄지는 Starlink(SpaceX), Kuiper(Amazon), OneWeb(Eutelsat) 같은 이른바 저가의 저궤도 소형 군집 위성 시대가 열렸다. 수천 개의 저궤도 위성 네트워크로 전 지구적인 인터넷, 항법, 관측 인프라가 구축되어 서비스 수요가 확대되자 다시 투자와 공급 확대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면서 우주 산업이 2000년대에 비약적으로 발전하게 됐다. 여기에 20세기 냉전기 미·소 우주 경쟁을 넘어서는 21세기 미·중 우주 경쟁이 더해져 우주 산업 발전을 더욱 가속화하고 있다. 미국은 달 유인 재탐사 계획인 Artemis Program, 달 궤도 위의 국제우주정거장(화성 전초기지)을 건설하는 Lunar Gateway, 화성 유인 탐사 및 대규모 우주 물류 수송을

“저궤도 위성 네트워크로 전 지구적인 인터넷, 항법, 관측 인프라가 구축되어 수요-투자-공급 확대의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져”

위한 SpaceX의 초대형 재사용 우주선 Starship 등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도 상시 유인 궤도 플랫폼인 우주정거장 천궁(Tiangong, 天宫), 달 탐사 우주선인 창어(嫦娥) 시리즈, 화성을 포함한 행성 탐사를 위한 텐원(天问) 시리즈, 그리고 달 남극 기지 계획을 진행하고 있다.

우주 진출의 영역 확대: 달에서 화성으로

미국과 중국의 경쟁에서 보이듯이 2000년대 들어 글로벌 우주 산업의 주요 방점이 달에서 화성으로 이동했다. 1969년 아폴로 11호의 달 탐사 성공 이후 1972년까지 약 6회에 걸쳐 유인 달 착륙에 성공하면서 달은 이미 확보된 영역, 과거 냉전의 전장으로 여겨져 그 이후 2000년까지 주로 무인 궤도 탐사나 기초 과학 분석만 진행됐다. 그런데 2002년 일론 머스크가 SpaceX 설립과 함께 달이 아니라 화성을 인류의 이주 대상 지역으로 선언하면서 이른바

달과 화성의 환경과 자원 비교

비교 항목	달	화성	우위
거리 및 접근성	약 38만 km (3일 내외) 접근이 쉬움	약 5천5백만~4억 km (편도 6~9개월), 접근성 매우 낮음	달 우위
물 자원	극지 영구음영지에 얼음 채굴 기술 제한적	극지/중위도 지하에 대량의 얼음 접근 깊이 얕음	화성 우위
대기 존재 유무	사실 없음 기압 매우 낮고, 우주복 필수	이산화탄소 중심 대기 존재 공기 희박하나 활용 여지 있음	화성 우위
금속 자원	철, 알루미늄, 티타늄, 희토류 풍화층에서 추출 가능	철, 니켈, 마그네슘 등 광범위한 매장 가능성	비슷
에너지 자원 (³ He)	헬륨-3 풍부 (태양풍 노출 지역) 핵융합 연료로 사용 가능	헬륨-3 희박, CO ₂ 에서 메탄 추출 (ISRU 기술)	달 우위 (단기)
지형 다양성 자원 종류	단순한 지질 구조 제한된 광물 자원	다양한 지형, 고대 물 흐름 흔적 점토/황/소금/얼음 등 복한 자원	화성 우위
자급자족 가능성	대기 없음, 자원 추출·활용이 매우 제한적	얼음·대기에서 산소·연료 생성 (ISRU 기술)	화성 우위 (장기)
기반 시설 건설 난이도	중력 약 1/6kg 건설 용이하나 구조 안정성 문제	중력 약 1/3kg 실제 구조물 설계 용이	화성 우위
운영·통신 지연	통신 지연 없음(1.3초 내외) 실시간 원격 조작 가능	통신 지연 4~24분 자율 시스템 필요	달 우위
기술적 준비 수준	수차례 유인 탐사 완료 착륙·자원 분석 기술 축적	유인 탐사 전무, 무인 탐사만 진행	달 우위 (현 시점)
경제성 / ROI	접근 비용 낮고 단기 프로젝트에 적합	자원 다양/풍부하나 투자 대비 회수 기간이 매우 김	달 우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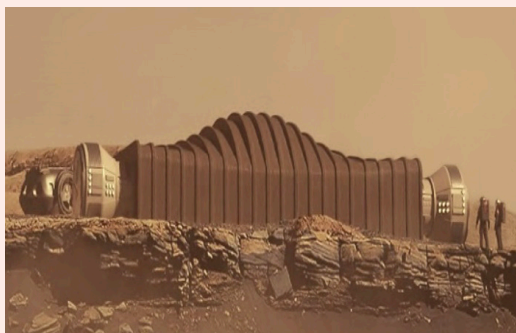
“ 달은 단기 프로젝트로

향후 우주 진출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는 실험실,
화성은 인류가 장기 정착하여 자립 자족할 신대륙 ”

화성 시대를 본격적으로 열어젖혔다. 자원 개발과 탐사 등 단기 프로젝트를 수행하기에는 가까운 달이 화성보다 더 적합하지만, 실제로 인간이 장기 거주하고 경제 활동을 전개하기에는 중력, 물, 대기 등의 생존 조건이 지구 환경에 더 가깝고 자원도 훨씬 더 풍부한 화성이 달보다 더 낫다.

따라서 달은 단기 프로젝트를 통해 향후 우주 진출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는 일종의 실험실로서 화성은 인류가 장기적으로 정착하여 자립 자족할 수 있는 신대륙 같은 곳으로 여겨지면서 SpaceX 등 민간 기업만 아니라 미국항공우주국(NASA), 중국국가항천국(CNSA), 유럽우주국(ESA), 러시아연방우주공사(ROSCOSMOS), 인도우주연구기구(ISRO) 등 우주 강국 대다수의 주무청도 ‘달을 거쳐 화성으로’라는 로드맵을 바탕으로 우주 전략을 짜고 있다. 예를 들어 NASA의 우주 전략은 ‘Moon-to-Mars Gateway’로 불린다. 앞서가고 있는 미국과 중국은 2020년대 후반부터 2030년대 사이에 화성으로 유인 우주선을 보내는 것을 목표로 우주선 개발과 모의 훈련 등을 시행하고 있다. SpaceX는 Starship을 기반으로 2026년에 무인, 2029년에 유인 탐사를 계획하고 있고 NASA는 2030년대에 유인 우주선의 착륙과 표면 체류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NASA는 2013~18년 동안 하와이 마우나로아 화산 고지대에 설치된 돔형 기지에서 8개월에서 1년간 화성과 유사한 격리 환경에서 스트레스, 리더십, 식단, 임무 수행 등을 분석했다. 이를 바탕으로 2023년부터 텍사스주 휴스턴의 존슨우주센터에 3D 프린팅으로 160m² 규모의 화성 기지 ‘Mars Dune Alpha’를 건설하여 장기 거주 시 인간의 생리, 심리, 사회적 적응 과정을 실험하는 이른바 CHAPEA(CHALLENGE for Planetary Exploration Analog)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중국 CNSA는 2028년 텐원-3을 무인 발사하여 화성 샘플을 채취하고 2033~37년에 유인 탐사를 계획하고 있다. 이를 위해 2019년 4월 중국우주과학협회와 함께 간쑤성 장예시의 사막지대에 1,100m²가 넘는 화성기지(Mars Base 1 / 火星营地)를 건설하여 거주 캡슐, 생명 유지 장치, 식물 재배실, 수처리 모듈 등을 통해 화성 환경 적응 실험을 시행하고 있다. 2021~23년에는 4~6인의 지원자를 통해 48~180일간

Mars Dune Alpha (휴스턴)⁶



Mars Base 1 (간쑤성)⁷



대기가 차단되고 외부 지원도 없는 상태에서 재활용 기반 식수 및 산소 순환, 통신 지연 및 자율 운영 시스템을 시험하며 심리 변화와 스트레스, 사회성 등을 분석했다.

미국과 중국에 상대적으로 뒤지고 있는 유럽 ESA와 러시아 ROSCOSMOS는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기 전까지는 화성 표면과 지하에서 생명체의 흔적을 찾는 ExoMars/Rosalind Franklin 프로젝트를 공동 추진했다. 러시아 측은 발사체인 소유즈(Soyuz) 로켓과 착륙선인 카자촉(Kazachok)을 개발하고 유럽 측은 탐사 로버인 Rosalind Franklin을 개발하여 2016년 궤도선 TGO(Trace Gas Orbiter)를 성공적으로 발사하고 2020년 로버를 실은 로켓을 발사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등의 이유로 2028년으로 연기했다. 또한, 양측은 화성 유인선 발사를 위해 2007~2011년 동안 3단계에 걸쳐 모의 우주선 격리 실험인 Mars-500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특히 2010년 6월에서 2011년 11월까지 러시아인 3명, 유럽인 2명, 중국인 1명 등 총 6명이 참여한 실험은 현재까지도 최장기간인 520일 기록을 세웠다. 그러나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양측의 협력은 종결됐고 유럽은 미국과의 협력을 통해, 러시아는 단독으로 2030년대 전반부에 화성과 그 위성인 포보스에서 시료를 채취해 오는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화성 이주 프로젝트의 현실성, 성공해도 그들만의 리그

일론 머스크는 2050년까지 화성에 100만 명을 이주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24년 9월 SpaceX의 우주캡슐 ‘Dragon’이 멕시코만 해역에 안착하며 민간인 우주여행 프로젝트 ‘Polaris Dawn’이 성공적으로 완료됐다. SpaceX는 이를 화성 탐사의 시작점으로 자체 평가했으며 이미 2029년까지 유인 우주선을 화성으로 보내겠다고 장담한 바 있는 일론 머스크는 이날 2년 안에 Starship 무인 우주선 5대를 화성으로 발사하겠다고 발표했다.⁸ 실제로 Starship 우주 비행 시험하는 IFT(Integrated Flight Test)가 2023년 4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5차례 시행됐고 완벽하지는 않아도 거의 성공 단계에 이르고 있다. 2023년 1차 IFT에서 발사 단계까지 성공했고, 동년 2차 시험에서는 우주 비행에 거의 도달하여 발사체와 부스터 분리 직전까지 성공했고, 2024년 상반기에 시행한 2차례 시험에서는 우주 비행에 성공한 다음 지구 재진입 단계에서 실패했으나 동년 10월 시험에서 재진입까지 완료했다. 이 실험에서 착수 직전 엔진 연소 실패로 정확한 회수는 실패하여 완전 재사용 단계까지 가지는 못했다. 일론 머스크는 2025년에만 최소 25회 발사 시험을 진행할 계획이어서 이 추세라면 2년 안에 무인 우주선 5대를 화성으로 보낼 가능성이 그리 비현실적으로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우주 비행 시험에 성공하는 것과 화성까지 실제로 날아가서 착륙에 성공하고 다시 돌아오는 것, 그리고 유인 우주선을 보내는 것과 실제로 화성에 거주할 사람을, 그것도 100만 명까지 보내는 것은 여전히 쉽지 않은 과제로 보인다. 달 여행은 3일 동안 가고 하루 머물고 3일 동안 돌아오는 일주일 여행이다. 아폴로 11호의 우주인들은 기저귀를 차고 좁은 의자에 앉아 일주일만

“ 화성에 한 달만 머물고 돌아오는 데

최소 500일이 걸리고 생존 실험에서 장기 고립으로 인한 문제를

극복했다는 결과는 아직 없어 ”

수니 윌리엄스의 귀환 전후 외모 비교⁹



버티면 됐다. 그러나 화성까지는 초속 20~30km의 속도로도 가는 데만 6~7개월이 걸리며 지구와 화성의 태양 공전 주기 차이로 2년 2개월에 한 번씩만 두 행성이 가장 가까워지는 대 접근이 일어날 때 출발해서 두 행성이 너무 멀어지기 전에 한 달만 머물고 돌아오는 데 최소 500일이 걸린다. 지금까지 생존 실험에서 이런 장기간 고립과 불편함으로 인한 육체적, 정신적, 심리적 문제를 완전히 극복했다는 결과는 아직 없다. 일론 머스크는 Starship의 성능, 연료 효율, 핵융합 추진 등의 미래 기술로 비행시간을 절반 이하로 줄일 수 있다고 호언장담한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250일, 즉 8~9개월이다. 2025년 3월 ISS에서 9개월 간 발이 묶였다가 돌아온 우주 비행사 수니 윌리엄스의 급격한 노화는 유인 우주비행이 인간의 육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잘 보여주는 대목이다.

일론 머스크의 계획대로 비행시간을 반으로 줄이고 화성에서 돌아오지 않는다면 이 위험성은 크게 줄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화성의 극단적 환경에서 장기 거주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다. 화성의 대기압은 지구의 0.6% 수준으로 실질적으로는 진공 상태에 가깝고 대기의 대부분인 95.7%가 이산화탄소이며 지표면의 방사선이 지구의 최대 200배에 이른다. 기온은 낮에는 -20도, 밤에는 -100도 이하까지 내려가며 먼지 폭풍이 길게는 수 주 동안 행성 전체를 뒤덮는다. 한마디로 우주복 없이 돌아다닐 수도 없으며 맨몸으로는 특수 장치로 가득 찬 실내를 벗어날 수 없다. 즉 화성에 무사히 도착한다고 하더라도 우주선 안에 있을 때처럼 고립과 육체적 불편함의 문제는 크게 나아지지 않고 영구 거주한다면 그런 상태로 남은 삶을 버텨야만 한다. 더 심각한 문제는 실내에 있으면 모든 것이 완벽하게 보장되는지도 아직은 미지수라는 것이다. 현재 개발되거나 실험되고 있는 현지 자원을 활용하여 산소, 물, 연료를 추출하는 현지 자원 활용 기술(ISRU: In-situ Resource Utilization)은 여전히 실험 단계에 불과하며 2050년에 완벽해진다는 보장도 없다. NASA의 CHAPEA 프로젝트에서

“ 일론 머스크의 계획이 100% 성공하더라도
80억 인구 중에 100만 명, 극소수 부유층, 행운아들에게 허용된
그들만의 리그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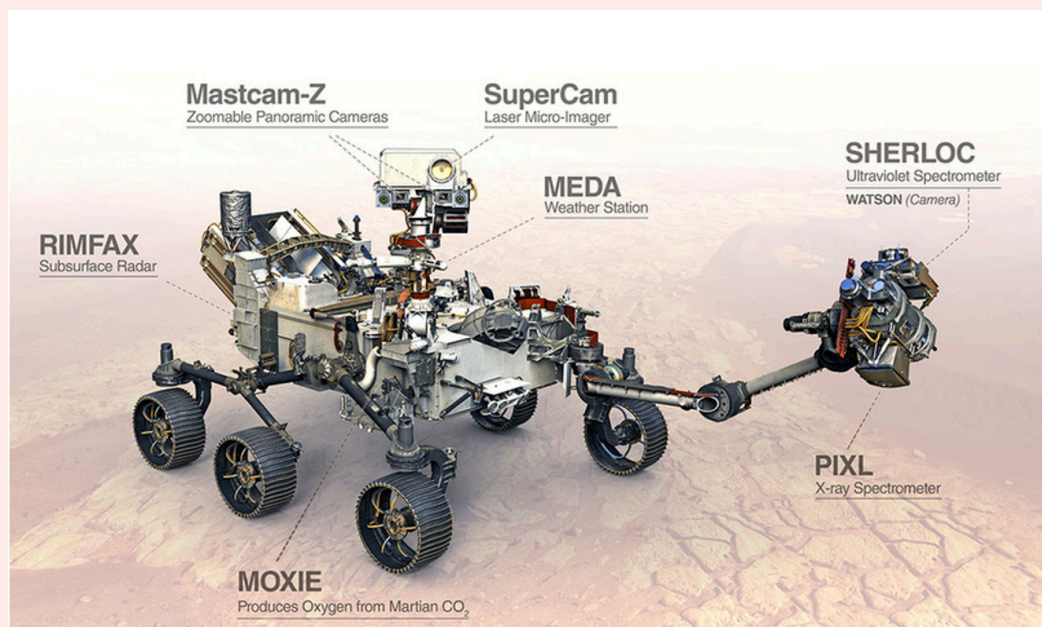
“ 화성을 통해서 지구를 혁신하는 건화견지(見火見指)의 시대. 화성 프로젝트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의 종합 실험장 ”

소규모의 식량 자급이 가능했지만, 대규모 정착에 필요한 에너지와 수분의 공급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숙제다. 가장 심각한 것은 Mars-500, CHAPEA 프로젝트를 통해 장기 격리와 고립에 따른 우울감, 팀 충돌 등의 문제가 반복적으로 확인됐는데 대규모 인원이 같은 상황에 장기 노출될 경우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수 있다. 그리고 설사 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한다고 해도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인원은 일론 머스크의 계획이 25년 후에 100% 성공하더라도 80억 인구 중에 100만 명에 불과하다. 즉 극소수 부유층 혹은 행운아들에게만 허용된 그들만의 리그다. 이 극소수 사람의 행복, 그것도 불확실한 행복을 위해서 국가의 엄청난 혈세를, 혹은 글로벌 기업과 투자자들의 자본을 쏟아붓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그런데도 이처럼 말도 안 되는 투자가 일어나고 있는 것은 실제 투자의 목적이 화성 탐사 그 자체가 아닐 수도 있다는 합리적인 가설을 가능하게 한다.

화성 프로젝트의 진짜 목적은 지구: 건화견지(見火見指)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키면 본질인 달을 보고 수단인 손가락은 잊으라는 뜻에서 건월망지(見月忘指)를 이야기한다. 그러나 우주 산업과 관련해서는 이야기는 좀 달라진다. 1969년 아폴로 11호가 달을 정복한 후 4년간 여섯 번의 달 유인 탐사가 이뤄진 뒤 사실상 달에 대한 관심은 대중, 기업, 정부로부터 거의 명맥만 유지할 수 있을 정도로 차갑게 식었다. 대신 달을 가리키던 손가락이라는 수단에 대한 관심은 미국을 기점으로 전 세계로 뜨겁게 확산했고 이른바 정보화에 기반한 3차 산업혁명으로 이어졌다. 사실상 망월견지(忘月見指)에 해당하는 현상이 일어난 것이다. 아폴로 프로그램을 이끈 기술들이 실리콘밸리로 스핀오프됐다. 예를 들어 아폴로 유도 컴퓨터(AGC: Apollo Guidance Computer)는 실리콘 칩을 최초로 대량 생산해 사용한 사례였다. 1962년 NASA는 항공기 제어 시스템의 크기와 무게를 줄이기 위해 Fairchild Semiconductor와 협력하여 집적회로 기반 컴퓨터 개발을 촉진했고, 이 덕분에 미국은 소형 컴퓨터와 소비자용 마이크로칩 생산에서 세계를 선도하게 된다.¹⁰ NASA는 실제로 실리콘밸리의 핵심 기업에 막대한 연구 자금을 제공하면서 기술과 상품 개발을 이끌었다. 덕분에 HP, 인텔, AMD 같은 기업들이 태동하는 생태계가 형성됐다. 당시 HP는 NASA의 우주 프로젝트를 위한 신호 처리 장비를 납품하며 산업용 계측기 부문 선도 기업으로 성장했다.¹¹ 아폴로 프로젝트의 영향은 기술에만 그치지 않는다. 1963년 NASA의 유인 우주 프로그램을 이끌었던 조지 물러(George Mueller)가 처음으로 수평적 조직(Flat Organization) 문화를 NASA에 뿌리내리게 했고 이것이 이후 실리콘밸리의 스타트업을 거쳐 페이스북과 구글의 조직 문화로 전수됐다.¹² 현재 화성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 일론 머스크도 제프 베조스도 모두 아폴로 프로젝트의 후예들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들이 현재 화성을 가리키며 진행하고 있는 우주 프로젝트도 사실상 화성 그 자체 못지않게 지구에서의 산업적 파급력과 경제적 성과와 직결되어 있다. 지금은 화성이 달을 대신하고 있을 뿐이다. 일론 머스크와 제프 베조스의 화성을

사진 분석기와 MOXIE를 장착한 퍼서비어런스¹³



향한 진심을 인정하는 차원에서 견화견지(見火見指)의 시대다. 화성을 통해서 지구를 혁신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의 화성 프로젝트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인 인공지능(AI), 자율 운영 시스템, 재생에너지, 생명 유지 기술, 데이터 처리 등의 종합 실험장이 되고 있다. NASA, SpaceX, CNSA 등이 이 실험장을 주도하며 국가 간 기술 패권 경쟁을 이끌고 있다. 예를 들어 NASA의 퍼서비어런스(Perseverance) 로버는 딥러닝 알고리즘을 활용해 사진 데이터를 분석하고, 자율 주행 경로를 탐색하며 이동한다. 이 AI 기반 시스템은 인간 개입 없이 운용되며, 이는 자율주행차, 군용 드론, 물류 로봇 등에 활용되는 알고리즘과 구조적으로 유사하다. 또한, 같은 로버에 탑재된 MOXIE(Mars Oxygen In-Situ Resource Utilization Experiment)는 화성 대기 중 이산화탄소에서 산소를 추출하는 실험 장치다. 이 기술은 지구상의 탄소 포집과 정화 기술, 스마트팜의 이산화탄소 조절 시스템 등으로도 전이 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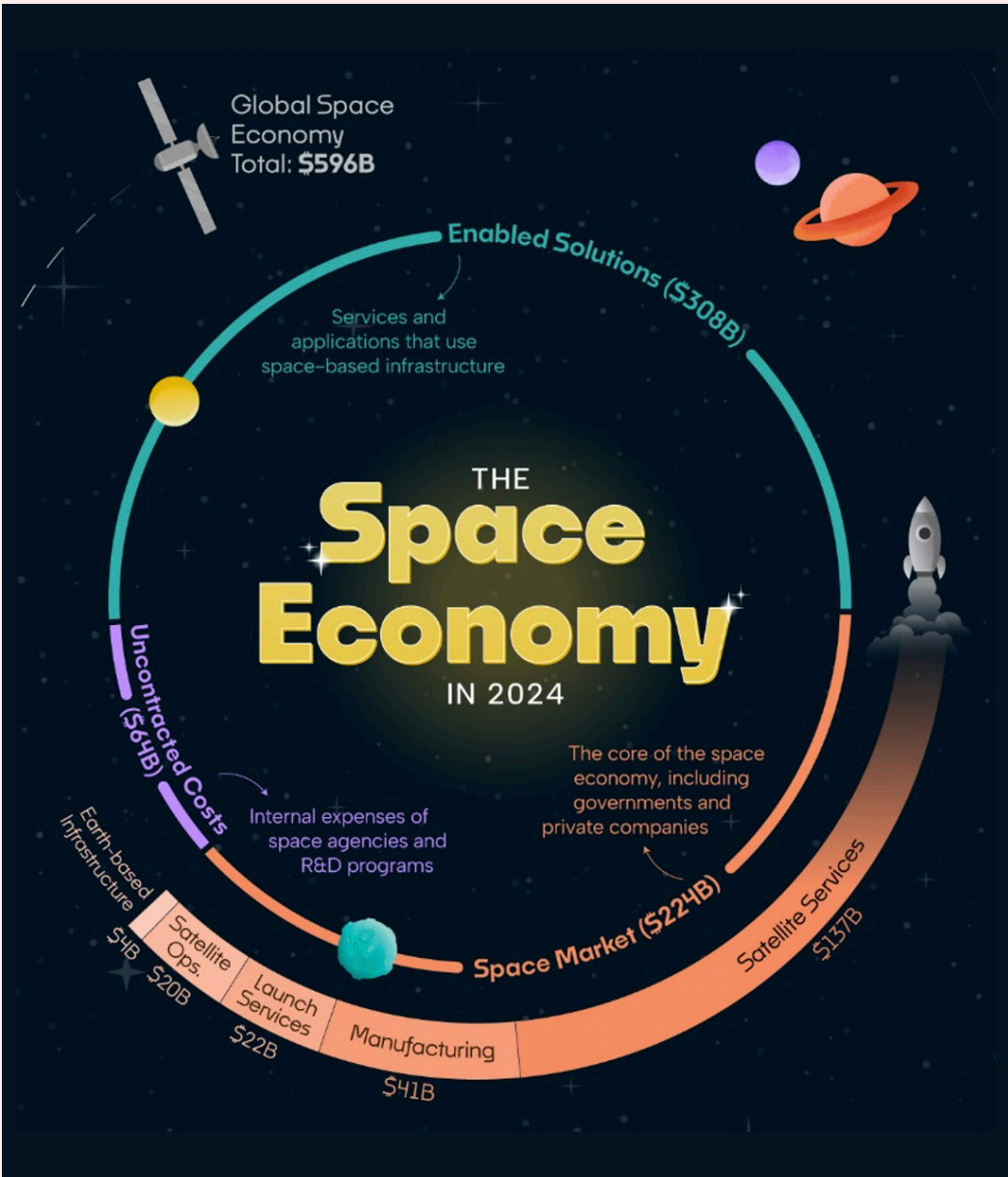
게다가, NASA는 고성능 에너지 시스템의 일환으로 10kW급 소형 핵분열 발전 시스템 ‘Kilopower’를 개발하여 화성 기지의 기본 전력을 충당할 계획이며 NASA의 화성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는 Caltech은 2023년 궤도상에서 태양광으로 생산된 전력을 마이크로파 형태로 지구에 송신하는 데 성공했다. 이는 우주발전소 개념(SBSP)의 실증으로, 데이터센터·AI 운용 전력 공급의 미래 대안이다. 이와 함께, 화성의 방사선 환경에서 작동할 수 있는 방사선 내성 반도체, 자율시스템용 비휘발성 메모리(NRAM) 등은 향후 지상 국방 및 인프라 제어 시스템에 적용될 수 있다. 중국이 만들고 있는 화성에서 사용할 리튬 냉각형 1.5MW 소형 원자로는 우주에서 20층 높이로 확장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이런 기술은 고성능 ESS, 고밀도 에너지 저장, 우주 기반 발전소, 고온 열전소자 등의 실용화로 이어지고 있으며, 이는 지구상의 AI·로봇 시스템 전력 문제 해결에도 직접적으로 연계된다.¹⁴ 그러나 우주 프로젝트를 통해 지구를 가장 뜨겁게 달구고 있는 것은 무엇보다 지구를 둘러싼 위성 시스템과 이를 활용한 항법 시스템 서비스, 글로벌 인터넷 네트워크 경쟁이다. 실제로 2024년 현재 우주 시장 총액(5,960억 달러) 중에서 가장 많은 부분(3,080억 달러)을 차지하는 것이 화성을 포함한 우주

자체가 아니라 우주에 의해 가능해진 서비스(Enabled Solutions), 즉 기상 예보, 원격 센싱, 위성 내비게이션 시스템, 위성 TV 등이다. 이 부문을 제외한 나머지 우주 인프라 시장에서도 위성 서비스(1,370억 달러)와 운용(200억 달러)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한마디로 지구를 위한 위성 시스템과 서비스가 우주 산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심지어 화성으로 가는 SpaceX의 Starship도 지상에 있는 미국의 군사 장비를 전 세계 어디든지 1시간 이내로 운반하는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¹⁵


나가며

화성 진출을 위한 강대국 경쟁이 본격화하고 있다. 아마도 이 경쟁의 극소수 수혜자가 실제로 화성에 갈 수 있을 날이 사반세기 후에 올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경쟁의 본질적인 운동

우주 산업의 부문별 규모 분포¹⁶



“ 화성 탐사는 국위를 드높이기 위한 과시 경쟁인 동시에 기술 생태계의 중심을 설계하고 자원과 에너지, 통신, 방위, 생활양식을 통제하는 새로운 글로벌 플랫폼의 구축 과정 ”

장은 화성이 아니라 인류 대다수가 앞으로도 오랫동안 살아갈 지구다. 달 탐사 프로젝트는 지구상에서 실리콘밸리를 낳았고 3차 산업혁명의 촉매가 되었다. 화성 진출 프로젝트는 지구상에서 또 어딘가에 4차 산업혁명의 요람을 탄생시킬 것이다. 화성 탐사는 미·소 냉전 때처럼 국위를 드높이기 위한 과시 경쟁인 동시에 기술 생태계의 중심을 설계하고 자원과 에너지, 통신, 방위, 생활양식을 통제하는 새로운 글로벌 플랫폼의 구축 과정이다. 과거 아폴로 프로젝트가 미국의 반도체, 인터넷, 항공 산업을 개화시켰다면, 화성 프로젝트는 지구를 중심으로 디지털-에너지-우주 융합 체계를 선점하기 위한 대전략이다. 그리고 이 전략은 기술과 안보, 경제가 결합한 새로운 시대의 글로벌 패권 전략으로 확장되고 있다. 대한민국이 우주 강국이 되기는 역부족이겠지만, 우주 경쟁의 본질을 제대로 읽고 이 과정에서 어디에서 4차 산업혁명의 요람이 탄생하고 또 이 새로운 글로벌 플랫폼의 어느 부분에서 린치핀 역할을 할 수 있을지를 제대로 읽어 내고 또 어느 국가와 어떻게 협력할지도 미리 가늠해야 한다. 우주를 지배하는 자가 아니라, 우주를 가장 잘 활용해 지구를 설계하는 자가 미래를 결정한다. 그리고 그 설계도를 미리 보는 자가 최후의 승자가 될 것이다. 지금 대한민국에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설계도를 읽는 눈이다. 

- 1 “The Space Economy Report, 11th Edition (2024)”, Novaspace.
- 2 Space Foundation(The Space Report 2023 Q2), Novaspace(The Space Economy Report, 11th Edition (2024) 등 종합
- 3 안재명 KAIST 항공우주공학과 교수의 2025년 4월 28일 유라시아21 초청 강연 자료 참조
- 4 VISUAL CAPITALIST
(https://www.visualcapitalist.com/the-cost-of-space-flight/?utm_source=datahackers)
- 5 VISUAL CAPITALIST
- 6 Dezeen
(<https://www.dezeen.com/2021/08/10/big-icon-3d-print-mars-dune-alpha-nasa/>)
- 7 The Atlantic
(<https://www.theatlantic.com/photo/2019/04/photos-mars-gobi-desert/587353/>)
- 8 “구체화되는 머스크의 꿈...2029년 화성 정복” YTN사이언스, 2024년 10월 2일.
<https://science.ytn.co.kr/program/view.php?mcd=0082&key=202410021117352029>
- 9 NASA
- 10 Paul Ceruzzi (2015), Apollo Guidance Computer and the First Silicon Chips.
- 11 Sabri Ben-Achour (2019), How the moon landing helped launch Silicon Valley, Marketplace.
- 12 “How NASA’s Apollo program kicked off Silicon Valley’s tech revolution,” The Mercury News, August 5, 2019
- 13 MIT News
(<https://news.mit.edu/2021/aboard-nasa-perseverance-mars-rover-moxie-creates-oxygen-0421>)
- 14 The Sun UK (2023), China building 20-storey nuclear space engine to power mission to Mars
- 15 “머스크의 화성우주선 스타십, 군사장비 수송도 추진,” 중앙일보, 2025.05.27.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39091>
- 16 https://www.visualcapitalist.com/how-big-is-the-space-economy/?utm_source=chatgpt.com

리하초바 학장

고등경제대 국제 전문 인력 양성의 기수

김현택 한국외국어대학교 노어과 명예교수

모스크바에 있는 고등경제대학교는 역사가 30여 년에 불과한 젊은 대학이다. 체제 변환기에 러시아 경제·사회 문제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인재 양성을 목표로 설립된 이 국립대학은 1992년 개교 이후 빠른 속도로 성장을 거듭했고, 현재는 러시아에서 가장 우수한 학생들이 입학하는 명문대로 확고한 위상을 누리고 있다.

처음에는 경제학과 사회과학 분야 전문 교육 기관으로 출발한 이 대학은 법학, 인문학 전반은 물론 이제는 순수 자연과학과 공학 분야까지 포괄하는 대규모 종합대로 변모했다. 가장 우수한 교수진을 확보하고 혁신적 교과 과정을 운영하면서, 외국 대학과의 활발한 협력을 통해 배출한 이 대학 졸업생들은 러시아 사회 각 분야에서 활약 중이다. 야로슬라프 쿠즈미노프 초대 총장의 후임으로 수학자 출신의 니키타 아 니시모프 총장이 2021년 부임하면서 고등경제대학교는 창의적 혁신을 가장 활발히 수행하는 대학으로 주목받고 있다.

지난 5월 17일 한·러비즈니스협의회(Korea-Russia Business Council, KRBC)가 주관하는 한·러 청년 토크 콘서트가 이 대학 강당에서 열렸다. 고등경제대학교 교수진 및 학생들과 직접 만나, 이 대학 교육 프로그램의 특징, 학술 연구를 교육에 통합하려는 지속적 노력, 교육에서 인공지능의 활용 실태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40대 후반인 젊은 총장의 리더십 영향인지 자신감과 활기가 넘치는 학교 분위기가 느껴졌고, ‘세계 경제·정치 학부’ 학장직을 맡고 있는 아나스타시야 리하초바 교수와 인터뷰를 진행하면서는 이 대학이 러시아의 미래를 이끌어갈 인재 양성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 가고 있다는 선명한 인상을 받았다. 한·러 관계의 새로운 활로 개척을 위해서는 고등 교육 분야에서 제도적 협력을 지속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도 다시금 했다.

‘세계 경제·정치 학부’를 설립한 세르게이 카라가노프 교수의 뒤를 이은 아나스타시야 리하초바 학장은 학부에서는 경제학을, 대학원에서는 국제정치학을 전공한 소장 학자다. 왕성한 연구 활동과 함께 대학 행정과 정책 자문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젊은 학장을 학교 근처 레스토랑에서 만나 긴 시간 얘기를 나눴다. 인터뷰 중 사진은 RIO 표지 사진작가인 콘스탄틴 코코시킨이 동행해서 촬영했다.



학장실 앞에 선 아나스타시야 리하초바 © RIO

고등경제대학교(Higher School of Economics, HSE)는 1990년대 초에 설립됐다. 러시아에서 역사가 가장 짧은 국립대학인 셈이다. 설립 목적은 무엇이었고, 또 기존의 고등 교육 기관들과 어떤 차별성이 있는지 궁금하다.

1990년 전후로 러시아는 중앙 집권적 계획경제에서 시장경제로 전환하는 엄청난 변화의 시기를 경험했다. 소련 시대부터 내려온 전통적 방식의 경제학이나 사회과학으로는 이런 변화의 흐름을 분석하고 또 미래를 설계하는 일을 감당하기가 버거웠다. 그래서 기존 대학과 다른 경제학과 사회과학 분야에 특화된 전문 교육 기관의 설립 필요성이 대두됐고, 그 결과 러시아 정부가 1992년 고등경제대학교 설립을 결정했다. 창학의 목적은, 현대 국제 경제 분석과 전망에 관련된 과제들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경제 분야 인재 양성이었다. 로마 시대 철학자이자 정치가인 세네카의 서한에 나오는 ‘Non scholae, sed vitae discimus(우리는 학교가 아니라, 인생을 위하여 배운다)’라는 대학 모토가 말해주듯, ‘학교가 아닌 우리가 연구하는 삶을 위한’ 현장감 있는 교육에 역점을 두는 것이 우리 대학의 특징이다. ‘대학’이라는 명칭 대신, 설립 당시 사용했던 ‘학교(school)’라는 개념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데서 우리 대학의 학풍을 짐작할 수 있다. 33년의 짧은 역사를 가진 고등경제대학교는 현재 러시아에서 가장 우수한 명문대 중 하나로 발돋움했으며, 총 6만 명 이상의 학생이 컴퓨터 과학, 수학에서부터 국제 관계, 법학, 창조 산업 등에 이르는 다양한 분야를 연구하는 대규모 고등 교육 기관으로 변모했다.

“ 창학의 목적은,
현대 국제 경제 분석과 전망에 관련된 과제들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경제 분야 인재 양성 ”

현재 러시아 고등 교육 기관 중 ‘국립연구대학’이라는 칭호를 받은 대학은 자연·이공계 중심으로 특화된 저명 대학 다수를 포함해서 20여 개에 달하는 걸로 알고 있다. 과거 소련 시절에 대학은 주로 교육을 담당했고, 연구는 학술원 산하 연구소들이 주도했었다. 고등경제대학교가 역사가 오래된 여타 국립대학들과의 비교에서 갖는 차별성은 어떤 것인가?

‘국립연구대학’이라는 호칭은 러시아 대학의 계층 구조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위상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이 범주에 속하는 대학들의 차별화된 사명을 명확히 보여준다. 우리 고등경제대학교에서 연구 분야에 대한 투자는 학교 전체 예산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며, 또 이런 특징은 학부 차원의 연구 활동 진작 노력에도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 전체 예산의 25%를 연구에 투자하고 있는데, 그중 10%를 학생들의 연구 활동에 배정하고 있다. 예산상 지표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은 교육과정 속에 최첨단 수준의 학술 연구를 통합하기 위해 우리가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대학 소속 선도 연구자는 강의 진행 과정에서 학생들이 최첨단 수준의 학술 연구를 접하고 또 새로운 목표에 도전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있다. 이것이 ‘국립연구대학’인 우리가 갖는 차별성이다.

처음에는 사회과학과 인문과학, 법학 등으로 시작해서 전공 분야를 순수자연과학과 공학, 창의적 융합 분야 등으로 계속 확장해 왔다. 일부 해외 명문대학이 특정 분야에 역량을 집중하는 전략을 추구하는 것과 달리 현재 고등경제대학교는 의과대학과 음악대학을 제외한 전 학문 분야를 망라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학교 발전 전략이 러시아 고등교육과 연구 분야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보나?

우리 대학이 지향하는 방향성을 나는 전적으로 지지한다. 우리는 지금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새로운 기술적 구조로 전환되는 시대를 살고 있고, 그런 만큼 인문학과 사회과학의 가치도 점차 더 중요해지고 있다. 고등경제대학교 안에서 진행 중인 진화적 융합은 기존의 사회·경제 분야의 학문을 더욱 풍요롭게 해주며, 전문적인 기술 분야에도 새로운 아이디어를 수혈하는 효과를 발휘한다. 언어학자가 컴퓨터 과학 전문가와 협력하고 있고, 국제 관계 전문가는 수학적 방법론을 통합적으로 도입하고 있으며, 디자이너가 디지털 제품을 창안해 내는 것과



고등경제대학교 캠퍼스는 모스크바 시내 여러 곳에 자리한 클러스터로 이뤄져 있다.
사진은 마스니츠카야 거리의 대학 건물 © kasheloff.ru



고등경제대학교 로고 © hse.ru



세계 경제·정치 학부 명패 © RIO

같은 다양한 방식의 결합과 융합이 대학 내에서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사실 학제 간 협력은 매우 복잡한 과정으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서로 다른 전문 용어로 사고하는 사람들과 협력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는 잘 알고 있다. 하지만 그 길만이 미래로 가는 활로이며, 따라서 제한된 전문 분야만 다루는 대학보다 다양한 학문 분야를 두루 포괄하는 대학이 당연히 유리한 위치에 있다.

디지털 데이터, AI 등 기술 혁신이 놀라운 속도로 진행 중이다. 이런 변화 속에서 고등경제대학교가 선도적으로 추진하는 교육·연구 혁신 전략은 무엇인가?

고등경제대학교는 러시아에서 디지털 기술을 교육에 가장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선도 대학이다. 재학생은 모두 전공과 상관없이 ‘데이터 문화(Data Culture)’ 관련 필수 과목을 수강해야 한다. 2017년부터 운영 중인 ‘데이터 문화’ 프로젝트는 학생들이 충분한 수준의 디지털 역량을 갖추 수 있도록, 디지털 문해력, 알고리즘 사고와 프로그래밍, 데이터 분석과 인공지능 방법론 등의 강좌를 개설하고 있다. 프로그래밍과 데이터 분석 능력을 갖추야 취업 시장에서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고, 또 연구 분야에서도 이런 능력이 핵심적이다. 향후 학술 연구에서 새로운 돌파구는 정보기술(IT)과 다른 학문 분야가 만나는 접점에서 탄생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 대학은 데이터를 다루고 활용할 수 있는 재학생들의 능력 향상에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교수들을 대상으로 인공지능 분야의 자격 향상 프로그램을 대대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우리 학부의 경우 AI를 강의에 충분히 활용할 준비가 된 젊은 교수진을 중심으로 실무 그룹도 운영하고 있다.

단과 대학 차원에서 운영 중인 학술 정보 플랫폼의 사례를 소개한다면……

2021년 우리 대학 내 ‘동방학 스쿨’ 연구자들이 주도해서 만든 디지털 플랫폼 Orientalia Rossica를 들 수 있다. 러시아 전역의 동방학 연구자들이 하나로 통합된 디지털 공간에 모여 상시 소통하는 플랫폼이다. 다양한 학술 행사와 교육 분야 프로젝트 결과들에 대한 정보를

“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서로 다른 전문 용어로 사고하는 사람들과 협력하는 학제 간 협력은 매우 복잡한 과정이지만, 그 길만이 미래로 가는 활로 ”



학교 인근 레스토랑에서 진행 중인 인터뷰 © RIO

교환하는 건 물론이고, 동방 여러 나라의 최근 정치, 경제, 문화 관련 이슈들에 대한 전문가들의 견해도 수시로 갱신하고 있다. 러시아 내 동방학 연구자들이 언제든지 접속해서 자료를 올리는 데이터베이스 역할을 하면서, 교육·연구 분야에서 거둔 이들의 성과를 국외로 발신하는 통로 역할도 하고 있다. 동방학 분야의 후발 주자인 우리 대학에서 진취적인 연구자들이 러시아 동방학의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있어서 뿌듯하다.

고등경제대학교는 특히 외국 대학과의 교류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온 걸로 안다. 대(對)러시아 제재 이후 미국을 비롯한 유럽 지역 대학 연구자들과의 협력 현황은 어떤가? 성공적인 사례가 있다면……

우리가 먼저 누구와의 관계를 단절한 적은 없다. 최근 몇 해 동안 우리 대학에서 강의한 미국 또는 유럽 출신 교수들이 이를 확인해 줄 수 있다. 그러나 일부 파트너들은 자국의 정치적 상황 때문에 학문적 교류와 대화의 가치를 희생시키는 결정을 하기도 했다. 이와 대조적으로 더욱 활성화되고 있는 교류 프로그램도 있다. 한국의 경희대학교와 우리가 공동으로 운영 중인 ‘현대 아시아의 경제와 정치’ 전공 이중학위 과정이 대표적인 예이다. 재학 기간 중 3년을 우리 대학에서 수학하고, 3학년 과정 1년을 경희대학교 국제대학에서 수강하는 이중학위 프로그램이다. 영어로 진행되는 이 학위과정에 참여하는 학생 숫자는 꾸준히 증가 중이고 결과 또한 만족스럽다.

BRICS 국가들과의 교육·연구 분야 협력 현황은 어떤가?

우리 대학은 BRICS 국가들과 공동으로 수십 건의 교육 프로젝트와 학술 교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여러 나라가 참여하는 컨소시엄 방식의 협력도 있고, 양자 간에 추진되는 협력 사업도 아주 다양하다. 우리 학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표적인 양자 간 협력 사례로, 브라질 캄피나스 국립대학과 공동으로 두 학교에 동일한 형태의 연구실을 개설한 사업을 들 수 있다. ‘대체 금융 시스템과 문제 해결 방안’을 집중적으로 연구하는 일종의 연구센터인데 매우 유망한 협력 분야다.

“ 제재 상황 속에서 자체 역량의 강화,
대학 지원 프로그램의 확대,
기술 주권 유지에 필요한 대학 내 연구의 활성화,
대학과 기업 양자 간의 협력 촉진과 같은
긍정적인 측면이 나타나기도 ”

제재 상황은 러시아의 교육·연구 역량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다른 영역과 마찬가지로 교육을 포함한 인도주의 분야도 제재로 인해 여러 방향에서 영향을 받고 있다. 이전에 유지되던 관계가 무너지거나 장기 연구 프로젝트가 멈춰 선 경우도 있다. 다른 한편, 제재 상황 속에서 자체 역량의 강화, 대학 지원 프로그램의 확대, 기술 주권 유지에 필요한 대학 내 연구의 활성화, 대학과 기업 양자 간의 협력 촉진과 같은 긍정적인 결과로 이어지기도 했다. 참가국 숫자가 늘고 있는 BRICS 국가들 사이의 학술 협력이 크게 활성화되고 있는 것도 의미 있는 변화 중 하나다.

야로슬라프 쿠즈미노프 총장이 오랜 기간 대학을 이끌었고, 2021년 수학자인 니키타 아니시모프 총장이 취임했다. 현 총장이 주도하는 새로운 대학 발전 전략은 무엇인가?

우리 대학 지도부의 연속성은 아주 견고하다. 내가 보기에, 대학의 변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국가 전체의 상황과 경제 구조의 변화다. 아니시모프 총장은 무엇보다 이런 방향성에 주목하고 있으며, 그런 점에서 러시아에서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는 총장이다. 기술 분야의 강조와 새로운 산업의 발전은 우리 대학 교육 프로그램의 내용과 학생 구성에도 유기적



“ 현재 활약 중인 간판급 동문으로는
경제개발부 장관을 역임하고 현재 대통령 행정실 부실장으로
일하고 있는 막심 오레시킨과
극동·북극개발공사 사장직을 맡고 있는
니콜라이 자프랴가예프 등이 있어 ”

으로 반영되고 있다. 기술 주권 확보와 이를 위한 지원 정책은 국정 목표 중 하나이며, 러시아 정부 산하 대학인 고등경제대학교는 교육과 연구에서 이런 추세를 아주 선명하게 반영하고 있다. 또한, 기업과의 긴밀한 협력도 어느 때보다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상트페테르부르크, 니즈니노브고로드, 페름 등에 분교를 개설했다. 이렇게 캠퍼스를 확장하는 목적은 무엇이며, 여러 거점 도시 중 왜 니즈니노브고로드와 페름인가?

국내 여러 지역으로 진출은 고등경제대학교의 문화적 코드다. 러시아는 매우 넓은 공간을 포괄하는 나라이며 우리 대학의 활동이 수도 모스크바에만 한정된다면 본연의 임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을 것이다. 분교를 설립하는 도시는 여러 요소를 고려해서 정해진다. 상트페테르부르크는 제2의 수도에 해당하는 곳으로 독특한 고등 교육 학풍을 갖고 있다. 니즈니노브고로드는 자연과학과 원천 기술 분야에서 탄탄한 전통을 유지하고 있고, 우랄 지역으로 가는 관문에 해당하는 페름은 산업 발전의 잠재력이 아주 큰 거점 도시다.

졸업생의 평판도는 어떤가? 그리고 고등경제대학교 출신의 대표적 명사들은 누구인가?

우리 대학의 역사는 짧지만, 이미 훌륭한 졸업생을 많이 배출했다. 주요 기업에서는 우리 대학 졸업생을 선호하며, 현장의 평판도 조사 결과에서도 우리 대학은 늘 최상위권에 있다. 현재 활약 중인 간판급 동문으로는 경제개발부 장관을 역임하고 현재 대통령 행정실 부실장으로 일하고 있는 막심 오레시킨과 극동·북극개발공사 사장직을 맡고 있는 니콜라이 자프랴가예프 등을 꼽고 싶다.

세계 경제·정치 학부 학장직을 맡고 있다. 다른 대학 유사 학부와 비교하여 고등경제대학이 갖는 차별성은 무엇인가? 또 추구하는 미래 인재상은 어떤 것인가?

우리 학부가 견지하는 주요 원칙은 학부 개설 당시 세르게이 카라가노프 교수가 도입했던 ‘교육의 연속성’이다. 이 개념은 자신의



2014년 학술 발표회에서 세르게이 카라가노프 교수와 함께 © Nikita Benzoruk

관심 분야에서 출발해서, 학문적 경계와 시간적·공간적 제약을 넘어 지적으로 계속 성장해 가며, 자기 주변과 세상을 변화시키는 인재가 되는 과정을 일컫는다. 따라서 국제 관계 전공자들은 경제학도들과 함께 공부하고, 동방학 전공 학생은 언어를 배우면서 동시에 아시아 지역의 비즈니스 프로젝트 관리 방법도 연구하고 있다. 여타 대학에서 이뤄지는 전문화된 방식, 때로는 고립된 방식의 인재 양성 방법과는 완전히 다르다. 우리가 추구하는 종합적이고 복합적인 교육으로만 학생들에게 현실 세계와 실제 업무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줄 수 있다고 믿는다. 이는 결코 녹록한 일이 아니며, 그만큼 우리 학부에서 공부하기가 무척 힘들다.

학부 내에 ‘동방학 스쿨’을 두고 있다. 동방학 전공은 언제 개설했으며, 현재 어느 지역과 국가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가? 어떤 전문 인력 양성이 목표인가?

우리 학부는 앞서 2000년대 후반에 러시아의 동방 선회 가능성을 학술적·전문적으로 분석하는 작업에서 선구적 역할을 담당했다. 그리고 동방으로의 전환을 이론적으로는 물론 행동으로 실천하고 있는 게 현재의 우리 대학이다. 그래서 학부 안에 ‘동방학 스쿨’이 등장했다. 설립 이후 ‘동방학 스쿨’은 중국어, 한국어, 일본어, 아랍어 외에 터키어, 힌디어 등의 언어 교육 프로그램을 추가하면서 규모를 확장했고, 학생 규모와 해외 협력 파트너 기관의 숫자도 몇 배로 증가했다. 처음부터 학생들을 ‘광범위한 전문성을 갖춘 동방학자’로 양성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였다. 언어, 문화, 역사 등을 기반으로 학생들을 동방의 현대적 과정, 예컨대 경제, 사회 현상, 정치 분야에 깊이 몰입시키는 방법을 도입했다. 이렇게 훈련을 받은 전문가들에 대한 노동 시장의 수요는 아주 높다.

매년 ‘동방학 스쿨’에서 개최하는 ‘Oriental Crazy Day’도 독창적인 행사다. 학생과 교수들이 함께 준비한 각종 마스터 클래스, 퀴즈쇼와 경연대회 등을 통해 참가자들에게 다양하고 신비로운 동양 문화를 체험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즐거운 축제인데, 동방학부 입학を 희망하는 예비 학생들이 이 학부의 교육 프로그램과 졸업 후 전망 등에 대해 질문하고 재학생들이 답하는 순서도 포함되어 있다. 올해 행사 때 한국학 전공 학생들은 장신구인 전통 노리개와 방향



“ 한국학 연구의 방법론과 연구 대상의 측면에서 볼 때,
인터넷 공간에 반영된 한국 사회의 다양한 디지털 흔적과 무늬들을
연구해 보면 아주 흥미롭고 놀라운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 ”

주머니를 제작하는 코너를 마련해서 인기를 끌었다. 폐막 콘서트에서는 동방 여러 나라의 시와 음악, 무용 등을 선보이는데, 화려한 K-pop 댄스 공연의 인기가 단연코 최고였다.

한국학과 인기 높다고 들었는데 졸업 후 사회 진출 등의 측면에서 학생들이 겪는 어려움은 없는가?

우리 대학 한국학과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한국학 전공생을 교육하고 있는데, 이로써 한국어와 한국 관련 연구의 높은 인기를 확인할 수 있다. 취업 관련해서 구체적인 숫자는 잘 모르지만, 우리 대학 한국학 전공 학생들은 한국뿐만 아니라 넓은 의미의 동방학도 함께 공부하기 때문에 여러 경쟁에서 우위에 있다고 생각한다. 매년 시행하는 포브스 고용주 평가에서 우리 대학은 높은 순위에 올라 있으며, 우리가 배출한 한국학 전공자들에 대한 수요는 경제, 문화, 교육 등 여러 분야에서 높은 것으로 안다.

한국학 전공 학생들을 위해서는 한국 대학들과 어떤 형태의 협력이 필요한가?

모든 형태의 학술 교류와 연수 기회, 그리고 한국 생활에 직접 몰입할 수 있는 경험은 우리의 젊은 한국학 전공자들에게 소중한 경험이 될 것이다. 그런데 내가 특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제 막 탄생하고 있는 디지털 동방학이라는 새로운 영역이 갖는 중요성이다. 예를 들어, 한국학 연구의 방법론과 연구 대상의 측면에서 볼 때, 인터넷 공간에 반영된 한국 사회의 다양한 디지



한국학과 동아리 '한량'에서 '한국의 호랑이 신화'를 주제로 발표하는 학생 © hse.ru

“경제와 정치 두 영역 간의 상호 영향, 타협,
그리고 이와 관련된 전략적 연구 등이 세계의 정치·경제 탐구에서
내가 가장 매력을 느끼는 영역”

털 흔적과 무늬들을 연구해 보면 아주 흥미롭고 놀라운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학부 시절에 경제학을 전공했고 대학원에서는 국제정치를 공부했다. 아주 다양한 주제들에 관한 연구 논문을 발표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많은 관심을 기울이는 주제는 무엇인가?

경제학과 국제 관계 이 두 학문 분야의 조합이 나한테는 정말 흥미롭다. 경제만으로 국제정치 무대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을 설명할 수는 없으며, 마찬가지로 경제적 기반 없는 정치 분야 연구 또한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 이 두 영역 간의 상호 영향, 타협, 그리고 이와 관련된 전략적 연구 등이 세계의 정치·경제 탐구에서 내가 가장 매력을 느끼는 영역이다. 구체적으로는 2016년부터 내가 탐구해 온 제재 이슈가 있다. 그런데 이 주제는 훨씬 더 확장되고 있고, 또 역동적으로 발전하는 과정에 있다. 국제 관계에서 우리가 힘과 지위를 어떻게 측정할 수 있으며, 또 군사적 자산을 어떻게 경제적 자산으로 전환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이념의 힘은 군사적, 경제적 자산에 과연 어떻게 작용하는 것일까? 이런 질문 등을 계속 던질 수 있다. 연구자로서 정말 흥미진진한 주제인데, 이에 대한 답변은 대륙과 국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학제 간 연구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대를 살고 있다. 진정한 의미의 학제 간 연구는 어떤 조건에서 탄생할 수 있다고 보는가?

성공을 위해서는 몇 가지 요소가 필요한데, 그중 가장 중요한 건 깊이가 있는, 그리고 다방면을 아우르는 학교 교육이다. 어렸을 때부터 비판적으로 사고하면서 학습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줘야 한다. 10~11년 동안의 초중등 교육, 그 후 4~5년간의 대학 교육을 통해 단일 분야의 지식 연마에만 노력을 쏟아 온 사람에게 갑자기 학제 간 접근 방식을 심어줄 수는 없지 않겠나.

‘물’이라는 주제와 관련된 국제정치 분야 논문을 여러 편 발표했다. 특별히 이 주제에 관심을 기울인 배경은 무엇인가? 또 ‘가상의 물’이라는 개념도 연구에서 도입하고 있는데, 이 주제는 국제 관계 연구에서 어떤 시사점을 갖는가?

‘가상의 물(virtual water)’, 즉 특정 상품의 생산에 필요한 담수량은 국제 무역, 수자원을 둘러싼 분쟁, 식량 안보 등의 문제를 새로운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는 유용한 개념이다. 전 세계 인구 가운데 12억 명이 심각한 물 스트레스에 직면하고 있고, 또 25억 명 정도가 영양 결핍과 굶주림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담수 문제는 점점 더 첨예한 국제적 문제가 되고 있다. 40년 이상 논의를 이어오고 있지만 이에 관한 어떤 형태의 글로벌 해결책도 아직 마련되지 않고 있다. 나는 ‘가상의 물’ 거래가 우리 경제 의식을 전환하는 강력한 도구라고 본다. 이런저런 상품을 판매할 때마다 우리는 ‘물의 안보’를 공급하고 있는 셈이다. ‘물의 안보’는 세계 곳곳에서 점차 더 중요한 상품이 되어가고 있다.

“ 지금은 북극이 자체적으로 갈등을 유발하는 상황은 아니나,
다른 지역에서 발생하는 여러 갈등이 점차 북극으로 확산하는
부정적 파급효과(negative spillovers)가 감지돼 ”

지금은 국제질서와 또 특정 국가 간의 관계를 예측하기가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대다. 세계 경제·국제정치 연구자들이 이런 시대에 부합하는 연구를 제대로 수행하려면 어떤 자세가 요구되는가?

훌륭한 질문이다. 우리 시대에 이 분야 연구자들이 지녀야 하는 가장 중요한 자질은 지적 용기다. 오래된 도그마와 공식을 거부하는 용감함, 세계 각지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변화의 규모 전체를 파악하려는 자세, 그리고 새로운 해결책을 제시하겠다는 자신감 등으로 무장해야 하지 않을까.

최근 한국에서도 북방 향로 관련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RIO에서는 특집 기획으로 이 주제를 심층적으로 다룬 적도 있다. 북방 향로의 실질적 활용이 머지않은 장래에 가능해질 것으로 보는 견해가 많다. 미국도 구체적인 행보를 시작했다. 북극을 둘러싼 이런 변화가 향후의 국제질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나?

세계 질서의 변화는 북극 상황에도 점점 더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은 북극이 자체적으로 갈등을 유발하는 상황은 아니나, 다른 지역에서 발생하는 여러 갈등이 점차 북극으로 확산하는 부정적 파급효과(negative spillovers)가 감지되고 있다. 그런 와중에 북극 지역의 국제 협력은 빠른 기후 변화와 과학이 북극의 변화 속도를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는 등의 객관적인 이유로 인해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북극 빙하의 해빙, 북방 향로의 이용 가능 시기와 항해 경로, 이미 빠른 속도로 녹고 있는 영구동토층에 적합한



건설 자재 등은 매우 전문적인 응용 과학 분야의 과제들이다. 정치적 상황은 이런 문제들의 해답을 찾는 일을 방해하고 있으며, 북극의 군사화 방정식은 한층 더 복잡해지는 양상이다.

5월 17일 한·러 청년 토크 콘서트를 고등경제대학교 강당에서 개최했다. 한국 문화·예술에 대한 러시아 학생들의 관심이 높은 것은 물론 한국 관련 공부에 도전하려는 학생들의 진지한 태도에 놀랐다. 한·러 관계의 미래를 위해 청년 세대들이 소통하며 공통의 과제를 연구하는 협력 플랫폼 같은 게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했다. 어떤 형태의 플랫폼이 바람직할까?

우리 대학교 한국학과와 한국의 국어대학교 러시아어과 학생들이 두 나라 문화를 비교 연구하는 공동 프로젝트를 이미 몇 차례 진행한 바 있고, 지금도 다음 순서를 준비 중이라고 들었다. 이 협력 사례가 널리 소개된 건 아니지만 나는 그 잠재력을 아주 높이 평가한다. 두 나라 학생들이 온라인으로 직접 참여하는 이런 형태의 협력 프로젝트는 ‘동방학 스쿨’의 여타 학과로도 확산할



5월 17일 고등경제대학교에서 열린 KRBC 주관 한·러 청년 토크 콘서트 포스터 © RI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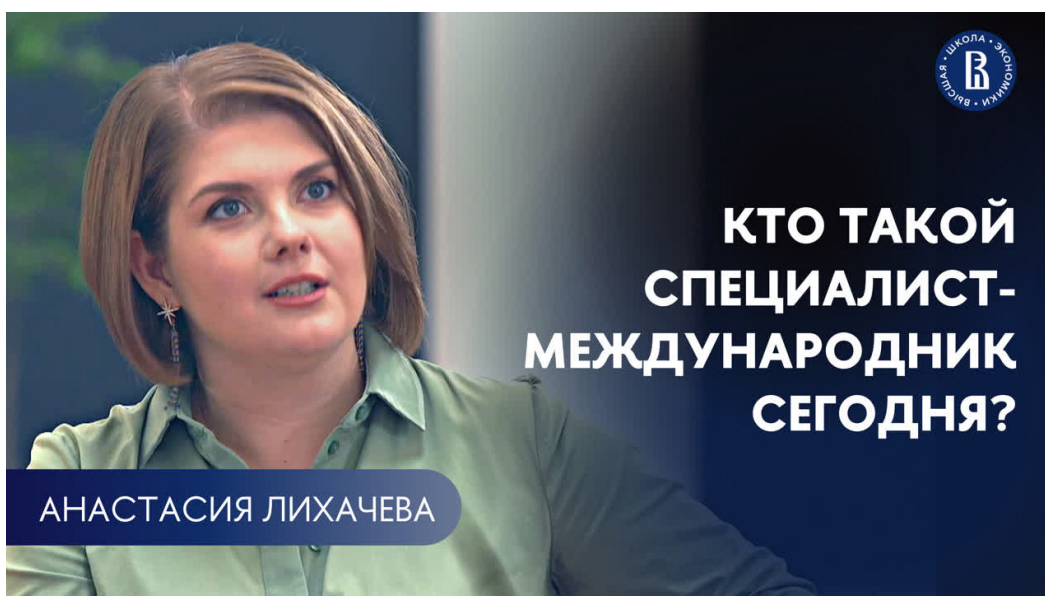
한·러 청년 토크 콘서트에 출연한 Chick O'Rico 대표 세르게이 레베제프 © RIO

“당장은 생산적이지 않아 보여도 대화는 이어져야 한다.
설령 정치적 상황이 변화한다고 해도
진정한 의미의 인적 교류 네트워크가
하루아침에 형성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

계획이다. 프로젝트 성공의 핵심 요소는 러시아와 한국 양측 교수들의 열의와 적극적 참여였다. 온라인 소통을 매개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서 양교 학생들이 공통 주제를 탐구하고, 작업 결과를 발표했다. 양교 학생들이 별도의 그룹 또는 러·한 혼합팀에 참여해서 협력해 본 경험은 소중한 자산으로 남을 것이다.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이런 방식의 공동 프로젝트 추진을 적극적으로 장려할 필요가 있으며, 학생들이 수행한 연구의 결실은 디지털 자료로 역사에 남을 것이다.

한·러 양국 정부 차원의 관계는 현재 정체 상태에 있다. 러시아 내 한류가 그나마 한국에 대한 러시아인들의 긍정적인 시선을 유지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고 본다. 두 나라 관계의 정상화를 위해 양측의 체계적 노력이 요구되는 시점인데, 젊은 연구자들을 중심으로 솔직한 대화 창구 같은 걸 만들어 보면 어떨까?

국제정치 연구자로 내가 경험한 바에 따르면, 어떤 방식의 대화 플랫폼이든 지속성이 담보되어야 가치가 있다. 당장은 생산적이지 않아 보여도 대화는 이어져야 한다. 설령 정치적 상황이 변화한다고 해도 진정한 의미의 인적 교류 네트워크가 하루아침에 형성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이다. 뭔가를 모방하는 차원이 아닌, 제대로 된 관계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그 틀을 짜는 일에는 항상 시간이 요구된다. 따라서 외부적 제약 요인이 있을 때조차도 교류를 유지할 수 있어야 미래의 협력 기반 구축이 가능하다. 물론 그 과정은 상호주의적 원칙에 따라야 한다.





인터뷰를 마치고 © RIO


한국의 어떤 측면들이 연구자로서 관심의 대상인가?

러시아의 ‘동방 선회’에 관한 정책 연구를 오랫동안 진행해 왔기 때문에, 우리 두 나라의 무역·경제 관계 문제는 늘 나의 학술적 관심사였다. 러시아 극동 지역으로 학술 출장을 다니면서 국제 프로젝트의 가능성을 탐색해 본 경험도 있으며, 최근 몇 년 사이에 나타난 여러 가지 장애물은 연구를 통해 극복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한다. 1990년대에 시작해서 지난 25년간 놀라운 규모로 성장한 한국의 창조적 콘텐츠 산업 지원 시스템, 그리고 콘텐츠의 수출 및 서비스 관련 경험은 내가 한국에 대해 갖고 있는 별도의 흥미로운 관심 영역이다. 한류 현상이 외국 학생들의 한국어와 한국 관련 공부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정말 인상적인데, 경제적 관점에서 한류의 급속한 도약은 정말 흥미로운 현상이다.

교육과 연구, 대학 행정 등으로 무척 바쁜 삶을 살고 있다. 자신의 충전을 위해 어떤 취미 활동을 하고 있는가?

세상에 대한 탐구라는 내 전문 분야와 연관된 몇 가지 취미가 있다. 연구할 때와는 달리 좀 더 편안하게 다른 세상과 만나는 일들이다. 여행을 즐기는 편이며, 요리법을 연구하며 직접 음식을 만들어 보는 것도 좋아하고, 오래전부터 재미를 붙인 그림 그리는 작업도 틈틈이 하고 있다. 캔버스를 앞에 두고 앉으면 모든 걸 잊고 거기에만 빠져들 수 있어 좋다. 이런 활동에서 많은 영감을 얻고, 또 새로운 힘과 아이디어를 충전하는 효과도 있다.

러시아 국내 여행이 상당히 활성화됐다. RIO 독자들에게 가장 인상적인 러시아 여행지를 추천한다면?

러시아는 정말 넓고 아름다운 나라다. 딱 한 군데만 고르기는 어렵고, 한겨울의 바이칼호수, 캅카스 산악지대의 가을 풍경, 알타이 등은 내가 가본 데 중에서 자연이 정말 경이롭고 아름다웠다. 도시를 추천하라면, 내 취향으로는 상트페테르부르크가 단연 1순위이고, 생활하면서 일하기 좋은 도시이자 예쁜 보석 상자 같은 수도 모스크바도 꼭 방문해 보라고 권하고 싶다. 

승리 80주년!

문화적 풍경과 정치적 의미

라승도 한국외국어대학교 러시아연구소 HK연구교수

조국 수호자들에게 바치다

지난 1월 16일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2025년을 '조국 수호자의 해'로 선포했다. 이는 올해가 러시아에 매우 특별한 한 해임을 뜻한다. 2025년은 무엇보다도 먼저 '대조국전쟁'(2차 세계대전 중 1941~45년 '독소전쟁') '승리의 날' 80주년을 기념하는 뜻깊은 해이다. 또한, 2025년은 러시아가 2022년 2월 24일 우크라이나에서 탈나치화 등의 명분을 내걸고 '특수군 사작전'(또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개시한 지 벌써 4년째에 접어드는 해이기도 하다. 2025년이 '대조국전쟁' 참전용사들과 '특수군사작전' 참가자들에게 특별한 감사를 표하기 위해 '조국 수호자의 해'로 선포된 이유가 여기에 있다.¹ 이에 따라 지난 5월 9일 모스크바 붉은광장에서 열린 '승리의 날' 80주년 기념식 연단에서는 2차 세계대전과 우크라이나 전쟁 참전용사들이 푸틴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등 내외 귀빈 주변에 앉아 군사 행진을 지켜보는 광경이 눈길을 끌었다. 특히, 우크라이나군이 한때 점령했던 쿠르스크주에서 싸우다 사망한 러시아군 소령의 미망인과 아들이 푸틴 대통령 옆에 앉아 있는 모습이 목격됐고 이날 기념식과 군사 행진에 참여한 러시아군 11,500명 중에서 1,500여 명이 우크라이나 전쟁 참가자인 것으로 나타났다.² 군사 행진에서 맨 앞에 선 부대도 '특수군사작전'에 참가하고 있는 현역 군인들로 구성됐다. 그러나 이들은 야전복을 입고 메달을 달고 있었어도 개인화기 등 무기를 휴대하지는



2025년 5월 9일 '승리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푸틴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 © 러시아 대통령실

않았다. 이들의 가슴에 달린 메달은 “특수군사작전” 참가자 메달과 ‘군사 용맹 메달’로, 러시아 국방부가 전선에 나가 싸우는 병사들에게 수여하는 것이다.

한편, 푸틴 대통령이 ‘승리의 날’ 80주년 기념식 단상에서 시진핑 주석과 나란히 앉아 군사 행진을 지켜보는 장면은 현재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는 전쟁에서만 아니라 과거 2차 대전에서 이룩한 위대한 승리에 대한 기억에서도 러시아가 국제사회로부터 완전히 고립된 것은 아님을 시사했다. 이는 시진핑 주석 외에도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벨라루스 대통령, 룰라 다 시우바 브라질 대통령,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니콜 파시니안 아르메니아 대통령, 알렉산다르 부치치 세르비아 대통령, 압둘팟타흐 시시 이집트 대통령 등 외국 정상과 대표들이 2015년 이후 10년 만에 가장 많이 참석하여 ‘조국 수호자의 해’에 열린 전승 80주년 기념식 규모와 면모, 의의를 돋보이게 해준 데서도 잘 뒷받침된다. 이와 함께, 벨라루스, 베트남, 이집트, 카자흐스탄, 중국, 키르기스스탄, 라오스, 몽골, 미얀마,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등에서 파견된 부대가 군사 행진에 참여하여 이날 기념식을 더욱 빛내 주었다. 외국 군인 중에는 신원이 노출되지 않게 전술용 스카프로 얼굴을 가린 아제르바이잔 특수부대 병사들도 눈에 띄었다. 또한, 쿠르스크 전선 등에 군대를 파견한 것으로 알려진 북한군은 이날 군사 행진에 직접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일부 장성과 외교 사설이 관중석에 앉아 행진을 관람했다. 특히, 공식 행사 이후 푸틴 대통령이 이들을 직접 만나 환영과 감사를 표시하며 연출한 화기애애한 장면은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을 배경으로 한층 더 긴밀해지는

“ 푸틴 대통령이 ‘승리의 날’ 80주년 기념식 단상에서 시진핑 주석과 나란히 앉아 군사 행진을 지켜보는 장면은 러시아가 국제사회로부터 완전히 고립된 것은 아님을 시사해 ”

러시아·북한의 신밀월 관계를 극명하게 보여준 사례 가운데 하나로 손꼽을 만했다.

이처럼 지난 5월 9일 ‘승리의 날’ 80주년 기념식과 군사 행진은 중국 등 우호국들과의 외교적, 군사적 밀착 관계를 과시함으로써 러시아가 서방의 강력한 제재 속에서도 여전히 견재함을 전 세계에 보여줬다고 평가할 수 있다. 어쩌면 바로 이런 이유에서인지 이날 러시아 주요 TV 방송들을 통해 생중계된 기념식은 역대 가장 많은 사람이 시청했다고 한다.³ 이런 가운데 이날 군사 행진에 동원된 각종 무기와 장비는 미국과 함께 세계 최대 군사 강국 중 하나로 꼽히는 러시아의 현재 군사 기술과 위용을 뽐내고자 동원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BMP-1을 기반으로 제작되어 소련 시대부터 사용되어 온 궤도식 장갑 정찰 차량인 BRM-1K는 전장에서 정찰 임무 수행을 위해 특별히 신모델로 개조되어 이번 군사 행진에서 첫선을 보였다. 또한, 건물과 병커, 요새화 시설 공격용 중형 화염방사 시스템인 ‘토소치카’도 대중에게 공개됐다. 이 시스템은 열압력탄과 발화탄을 탑재한 비유도 로켓 탄약을 발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도 올해 군사 행진에서는 무인 시스템이 처음으로 공개됐는데, 그중에는 이란의 샤헤드 드론을 모델로 삼아 만든 러시아산 드론 ‘게란’도 포함됐다. 이 무인기는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일회용 공격 드론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끝으로, ‘쿠르가네츠’와 ‘부메랑’ 같은 보병 전투 차량도 공개되어 러시아군의 군사 장비 기술을 뽐냈지만, 이들 무기는 현재 전장에 투입되지 않았다.

승리의 전유

5월 9일 ‘승리의 날’은 러시아 국민에게 무엇보다도 ‘파시즘으로부터 해방과 평화의 가치’를 상기하고 민족 통합과 자긍심을 일깨우는 기념일로 인식된다.⁴ 실제로 이날 러시아에서는 시민들이 예나 지금이나 시대와 세대, 지역과 인종, 종교 등의 경계를 초월하여 파시즘에 맞서 위대한 승리를 거둔 위대한 민족에 대해 커다란 자긍심을 느끼며 공통의 소속감과 일체감 속에 하나가 되곤 한다. 이런 민족적 자부심과 통합성은 조국 수호자들의 숭고한 헌신과 희생 속에 거둔 위대한 민족이라는 자긍심을 공유하며 강한 소속감과 일체감 속에 하나가 되곤 한다. 예컨대, 모스크바 붉은광장에서 열리는 ‘승리의 날’ 기념식과 군사 행진은 말할 것도 없고 러시아 각지의 ‘승리 공원’이나 ‘승리 광장’에서 열리는 크고 작은 기념행사들도 하나같이 러시아인의 자긍심과 단결심을 자아내는 데 이바지한다. 특히, 올해는 ‘승리의 날’ 80주년을 맞이하여 제작된 ‘승리 80주년’ 로고와 함께 ‘자랑스러운 승리! 1945~2025’라는 문구가 들어간 붉은색 바탕의 각종 깃발과 포스터가 도시 거리 곳곳을 울긋불긋 수놓으며 러시아인들에게 민족적 자긍심을 일깨우는 동시에 오직 5월 9일 러시아에서만 볼 수 있는 전쟁 승리와 기억의 문화적 풍경을 화려하게 연출했다.

이런 점에서, 지난 5월 9일 전후로 며칠간 러시아에서 전쟁 승리와 기억의 풍경을 가장

“ 모스크바 붉은광장에서 열리는

‘승리의 날’ 기념식과 군사 행진은 말할 것도 없고

러시아 각지의 ‘승리 공원’이나 ‘승리 광장’에서 열리는

크고 작은 기념행사들도 하나같이

러시아인의 자긍심과 단결심을 자아내는 데 이바지해 ”



모스크바 노비 아르바트 거리 아파트 건물 유리 벽면에 펼쳐진 소련군 병사와 '승리 깃발' © RIO

눈부시게 연출한 장면으로는 모스크바 시내 중심부의 노비 아르바트 거리에 책을 펼친 형태로 나란히 서 있는 24층짜리 아파트 건물 네 곳에서 유리 외벽 위로 대조국전쟁 당시 포스터나 최근 새로 생긴 전쟁 기념비 등을 천연색 이미지 안에 담아서 밤마다 재현해 보여준 일을 들 수 있다. 예를 들면, 2차 대전 당시 '어머니 조국이 부른다' 포스터와 볼고그라드(옛 스탈린 그라드) 마마예프 언덕의 '어머니 조국' 기념비가 거대한 유리 벽면 스크린 위에 펼쳐지며 노비 아르바트 거리를 지나가는 사람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이와 함께 1945년 5월 1일 소련군이 베를린을 점령했을 때 붉은군대 병사가 독일 제국의회 건물 꼭대기에 그 유명한 '승리 깃발'을 꽂는 장면이 아파트 유리 벽면에 펼쳐졌다. 또한, 2018년 푸틴 대통령이 친히 참석한 가운데 제막된 트베리주 르제프 공원의 소련군 병사 기념비도 볼 수 있었다.

더욱 흥미로운 점은 '특수군사작전' 등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한 러시아군 병사 이미지도 이 건물들 벽면 스크린에 펼쳐지는 전쟁 승리와 기억의 풍경에서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로 등장했다는 사실이다. 이는 80여 년 전 대조국전쟁과 최근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고 있는 '특수군사작전'이 조국 수호자들의 위대한 승리라는 하나의 단일한 의미 구조 속에 수렴되고 있음을 굳게 뒷받침한다. 이런 면에서, '승리의 날' 80주년이 되는 2025년을 '조국 수호자의 해'로 지정하고 붉은광장 기념식에 '대조국전쟁' 참전용사들과 '특수군사작전' 참가자들을 나란히 초청한 행보는 푸틴 대통령이 자신의 우크라이나 전쟁을 정당화하기 위해 2차 세계대전 승리(의 기억과 역사)를 사적으로 전유·이용해 왔다는 비판을 뒷받침해 주는 증거 가운데 하나로 볼 수 있다. 게다가, 노비 아르바트 거리의 아파트 건물들은, 공공롭게도 양쪽으로 펼친 책 모양을 하고 있어, 앞서 언급한 전쟁 승리 이미지들이 유리 외벽 화면에 차례로 등장할 때마다 한 장 한 장 넘기며 보는 정부 공인 전쟁사 그림책 같다는 인상을 심어줬다.

모스크바 거리와 광장, 공원 등도 5월 9일 전후로 위대한 '승리의 날'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소련 시대 각종 상징물로 온통 붉게 장식돼 있었다. 예를 들면, 주요 거리와 대로에 있는 건물 구석마다 붉은색 바탕의 소련 국기와 대조국전쟁 '승리 깃발'이 한 쌍을 이루며 꽂혀 있었고



모스크바 '승리 공원' 진입로에 펼쳐진 승리 80주년 깃발들 © RIO

주요 장소 입구 등에는 거대한 크기로 만들어진 붉은 별 조형물이 설치됐다. 특히 밤에는 이런 별들이 붉게 빛나면서 주변 장소에 멋진 풍경을 연출했다. 실제로, 고리키 공원 정문 앞에 설치된 거대한 붉은 별 조형물과 ‘모스크바 - 영웅 도시’라는 문구는 조명을 켜지 않는 낮에도 거대한 크기뿐만 아니라 햇빛을 받아 붉게 반짝이는 자태로도 주변 풍경을 압도했다. 이와 비슷하게, 노비 아르바트에서 이어지는 쿠투조프 거리의 도로고밀롭스카야 자스타바 광장에도 ‘모스크바 - 영웅 도시’ 오벨리스크 쪽으로 올라가는 진입로에 커다란 붉은 별 조형물이 세워져 있었고 그 크기와 색깔로 멀리서도 사람들의 눈길을 끌었다. 게다가, ‘승리의 날’을 장식하는 이 붉은 별 조형물들은 크렘린궁 스파스카야 탑 꼭대기에 걸린 오각형 붉은 별들을 연상시키기도 했다.

군사적 애국주의

2014년 러시아의 크림 합병 이후 최근 10여 년간 러시아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사회·문화적 현상 가운데 한 가지는 일상생활에서 시작하여 국가 대외정책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분야에 걸쳐 뚜렷하게 관측되는 군사화 경향이다. 이런 군사화 경향에서 특히 주목할 부분은 러시아 사회 현실과 국민 의식 속에 자연스럽게 흘러 들어가는 군사적 애국주의 물결이다. 무엇보다도 먼저, 푸틴 체제하에서 해마다 5월 9일 ‘승리의 날’에 러시아 전국에서 성대하게 열리는 군사 행진과 무력 과시는 수많은 러시아 국민이 ‘자랑스러운 승리’를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군사적 애국주의 분위기에 흠뻑 빠져들게 한다. 이날 러시아 국민 중에는 2차 세계대전 당시 소련군 복장을 직접 차려입고 가슴에는 애국과 충성의 상징인 ‘게오르기 리본’을 달고 손에는 ‘승리 깃발’을 들고 군사 행진이 열리는 현장이나 그 주변에 나가서 ‘승리의 날’ 분위기를 십분 만끽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예를 들면, ‘승리의 날’ 80주년을 맞이한 올해 5월 9일 모스크바 노비 아르바트 거리에는 붉은광장에서 군사 행진을 마치고 퇴장하는 각종 군사 장비의 위용을 직접 보기 위해 사람들이 일찌감치 모여들었다. 이들 사이에서는 유모차에

어린이를 태우고 한쪽 옆에 커다란 ‘승리 깃발’을 꽂고 나온 젊은 아버지가 특히 눈길을 끌었다. 노비 아르바트 거리 외에도 모스크바 주요 거리와 광장, 공원에서는 가족이나 친구, 연인과 함께 나온 사람들이 이날 축제 분위기를 한껏 즐기는 모습이었다.

한편, 푸틴 시대 러시아의 군사적 애국주의와 관련하여 가장 흥미로운 장소 가운데 한 곳은 2014년 건설되기 시작하여 2016년 공식 개원한 ‘애국자’ 군사 테마 공원이다. 모스크바 시내에서 서쪽으로 60km 이상 떨어진 쿠빈카에 세계 최대 규모로 조성된 이 군사 공원의 핵심 주제와 주요 시설은 소련군의 2차 세계대전 승리와 러시아군의 현대 장비들을 중심으로 설계돼 꾸며져 있다. 특히, ‘애국자’ 공원의 거대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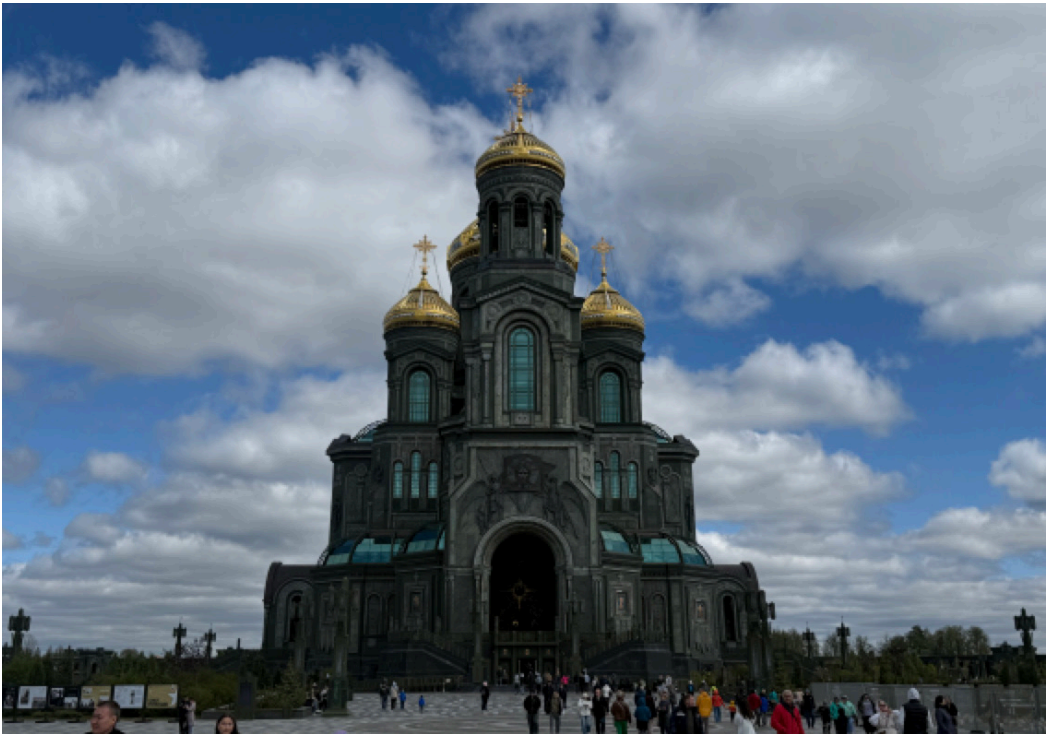
‘승리 깃발’을 꽂은 유모차에 어린이를 태우고 나온 모습 © RIO

노천 박물관에는 러시아군의 전차와 장갑차 등이 전시되고 있어 방문객들이 언제든지 자유롭게 전차 위로 올라갈 수도 있고 전차 안에 들어가서 운전대를 잡아볼 수도 있다. 이와 함께 근처 숲속에 조성된 2차 세계대전 당시 ‘빨치산 마을’도 애국주의 분위기를 물씬 풍기면서 방문객들의 발길을 끌어당긴다. 그러나 ‘빨치산 마을’에서 방문객들은 전쟁의 기억이 자아내는 숙연한 기분이나 감정보다는 오히려 생경함에서 나오는 신기한 느낌을 더 많이 받는 것 같았다.

‘애국자’ 군사 공원에서 전쟁 기억의 분위기는 전차 박물관과 ‘빨치산 마을’로부터 한참 떨어진 러시아군 본당 교회인 ‘예수 부활 대성당’에서 더 짙게 느낄 수 있다. 잘 알려졌듯이, 이곳은 2018년 당시 세르게이 쇼이구 국방부 장관의 제안과 주도 아래 속전속결로 건설되기 시작하여 2020년 5월 9일 ‘승리의 날’ 75주년에 맞춰 완공하여 성대하게 개원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당시 코로나19 팬데믹이 러시아를 강타하면서 성당 개원이 6월 22일로 연기됐고 러시아군과 정교회가 합동으로 야심 차게 준비했던 성당 개원의 역사적 효과도 그로 말미암아 반감됐다. ‘예수 부활 대성당’은 이런 우여곡절 끝에 2020년 6월 22일 나치 독일의 소련 침공 일자에 맞춰 푸틴 대통령과 키릴 정교회 총대주교, 쇼이구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마침내 개원했다. 웅장한 규모의 대성당 내부는 러시아군 본당답게 13세기 러시아 민족 영웅 알렉산

“ 푸틴 시대 러시아의 군사적 애국주의와 관련하여
가장 흥미로운 장소 가운데 한 곳은 2014년 건설되기 시작하여
2016년 공식 완공·개장한 ‘애국자’ 군사 테마 공원 ”

드르 넵스키부터 시작하여 조국전쟁과 대조국전쟁, 아프가니스탄 전쟁, 체첸 전쟁, 조지아 전쟁, 더 나아가 시리아 참전까지 이르는 러시아군의 군사 행동과 영웅 전기가 모자이크화에 화려하게 그려져 있다. 따라서 군사와 종교, 예술이 압도적 규모 속에 합작으로 빚어내는 신성한 전쟁 기억의 진정한 애국주의 분위기는 러시아를 통틀어서 오직 여기서만 느낄 수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애국자’ 공원의 러시아군 본당 ‘예수 부활 대성당’ © RIO



‘예수 부활 대성당’ 내부의 알렉산드르 넵스키 모자이크화 © RIO

“러시아 정부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우크라이나 드론 공격을 우려한 나머지
모스크바에서 ‘불멸의 연대’ 행진을 허용하지 않아”

불멸의 연대


지난 5월 9일 모스크바에서 열린 ‘승리의 날’ 기념식은 앞서 소개했듯이 80주년을 맞이하여 외국 귀빈 면모 등에서 최근 들어 가장 큰 규모를 자랑했다. 하지만 몇 년 전부터 중요한 부대 행사 가운데 하나로 자리 잡았던 ‘불멸의 연대’ 행진은 현장에서 직접 볼 수 있으리라고 기대했던 것과 다르게 정부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열리지 않았다. 러시아 정부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우크라이나 드론 공격을 우려한 나머지 모스크바에서 ‘불멸의 연대’ 행진을 허용하지 않았다. 그 대신 5월 9일 ‘승리의 날’ 기념식이 끝나고 나서 오후 2시쯤부터 모스크바 시내의 모든 전광판에서 대조국전쟁 당시 전후방에서 참전했던 사람들의 가족·친지 사진과 함께 성명 등 간단한 인적 사항이 계속해서 등장하기 시작했다. 이처럼 올해도 모스크바에서 ‘불멸의 연대’ 행진은 안전 문제로 온라인에서만 진행됐다. 그날 모스크바 시내 여기저기서 참전용사 가족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자신의 (조)부모나 친지 사진을 나무 표지판에 붙이고 나와 들고 돌아다니는 모습이 드물게 눈에 띄긴 했지만, 비공식·소규모로나마 단체로 모여서 거리를 따라 행진하는 장면은 찾아볼 수 없었다. 하지만 드론 공격 우려가 없는 극동의 블라디보스토크 같은 러시아 지방 도시 57곳에서는 ‘불멸의 연대’ 행진이 수많은 시민 참여 속에 대규모로 열렸다. 예를 들면, 부랴티야와 사하, 투바 공화국 같은 일부 지역에서 열린 ‘불멸의 연대’ 행진은 참가자들이 들고 있는 사진에서 대조국전쟁 참전용사들과 함께 ‘특수군사작전’ 참전용사의 얼굴도



모스크바 노비 아르바트 거리의 한 건물 전면 전광판의 온라인 ‘불멸의 연대’ © RIO

“ ‘불멸의 연대’ 운동은 전쟁 기억의 영역에서
정부가 민간의 자발적 시민운동을 전유해 정치적으로
잘 활용하고 있는 세계적으로 보기 드문 사례에 해당 ”

눈에 띄었다.⁵ 앞서 지적했듯이, 이는 대조국전쟁과 ‘특수군사작전’이 푸틴 정권 아래서 전쟁 승리 기억과 군사적 애국주의 물결 속에 하나의 단일한 의미로 수렴되고 있음을 뒷받침해 주는 또 다른 증거라고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주목할 만한 현상은 ‘불멸의 연대’ 국제 운동이 사상 최대인 전 세계 120개국에서 동시다발로 열렸다는 점이다.⁶ 흥미롭게도 이 운동은 한국에서도 열린 가운데 서울에서만 아니라 부산에서도 진행됐다.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전 세계로 퍼지고 있는 ‘불멸의 연대’ 운동이 사람들의 자발적 의지와 참여 속에 열리기보다는 ‘러시아 하우스’ 등 현지 러시아 정부 기관이나 단체의 조직적 계획과 동원에 따라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다.⁷ 이렇게 동원된 ‘불멸의 연대’ 운동은 2012년 시베리아 톰스크의 민간단체에서 처음 시작하면서 주문한 비정치성보다는 오히려 정치색을 더 많이 띠다고 의심받고 있다. 특히,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을 배경으로 러시아가 서방 세계와 극심한 갈등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그것도 2차 대전 참전 용사들을 기린다면 동시에도 러시아에 대한 조국애와 충성심을 시사하는 듯이 보이는 ‘불멸의 연대’ 운동은 어느 면으로 보더라도 러시아에 유리하면 유리했지 절대 불리하지 않을 것이다. 게다가, 이 운동은 전 세계에 걸쳐 러시아의 존재감과 영향력 확대를 도모한다는 점에서 러시아 대외정책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루스키 미르(러시아 세계)’ 확장에도 이바지한다.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반러시아 노선을 확실히 천명한 에스토니아와 라트비아, 리투아니아의 발트 3국이 ‘불멸의 연대’를 전면 금지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결론적으로, 처음에 시베리아 지역 운동으로 탄생했다가 나중에 러시아 국가 운동으로 커졌고 이제는 국제 운동으로 크게 도약한 데서 알 수 있듯이, ‘불멸의 연대’ 운동은 전쟁 기억의 영역에서 정부가 민간의 자발적 시민운동을 전유해 정치적으로 잘 활용하고 있는 세계적으로 보기 드문 사례에 해당한다. 

1 “Указ Президент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от 16.01.2025 г. № 28.”
<http://www.kremlin.ru/acts/bank/51589>

2 “Что (не) показали на параде 9 мая в Москве.”
<https://novayagazeta.eu/articles/2025/05/09/vmesto-novykh-tankov-tekhnik-kotoroi-na-fronte-net>

3 “Парад в честь 80-летия Победы собрал рекордную за пять лет телеаудиторию.”
<https://www.vedomosti.ru/media/articles/2025/05/13/1109637-parad-v-chest-80-letiya-pobedi-sobral-rekordnuyu-teleauditoriyu>

4 프리움(러시아여론조사센터)의 최근 조사 결과에 따르면, 러시아인 58%는 대조국전쟁 승리가 무엇보다도 “민족적 자긍심의 상징”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Великой Победе — 80 лет!”
<https://wciom.ru/analytical-reviews/analiticheskii-obzor/velikoi-pobede-80-let>

5 “Ukraine War Creeps Into Victory Day Commemorations in Russia's Regions and Ethnic Republics.”
<https://www.themoscowtimes.com/2025/05/09/ukraine-war-creeps-into-victory-day-commemorations-in-russias-regions-and-ethnic-republics-a89029>

6 “Международное шествие “Бессмертного полка” в 2025 г. прошло в 120 странах.”
<https://www.interfax.ru/russia/1025120>

7 “Letting the Dead March Again: How the Immortal Regiment Occupies the Present.”
<https://www.themoscowtimes.com/2025/05/09/letting-the-dead-march-again-how-the-immortal-regiment-occupies-the-present-a89009>

러시아의 AI 개발 전략과 향후 전망

박지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전문위원

2024년 9월 발표된 ‘글로벌 인공지능 인덱스(The Global AI Index)’에서 러시아는 조사 대상 83개국 중 31위를 차지했다.¹ 이 순위는 영국 토터스 미디어(Tortoise Media)에서 2019년부터 매년 인공지능(AI) 역량과 관련된 122개 주요 지표를 국가별로 평가하여 발표한 결과이다. 이 결과는 미국(1위), 중국(2위) 등 주요 AI 선진국에는 물론, 사우디아라비아(14위), 아랍에미리트(20위) 등의 국가들과 비교해도 러시아의 AI 역량이 현저히 뒤처져 있음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이 글에서는 러시아의 AI 관련 기술 수준 현황과 정부 정책, AI를 주로 개발하고 활용하는 러시아 기업들의 사례를 기반으로 러시아의 AI 생태계 전반에 대해 분석해 본다.

러시아의 AI 기술 발전 환경

앞서 언급한 것처럼 현재 러시아의 AI 기술 수준은 세계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 러시아는 AI 연구에 중요한 기반이 되는 수학, 물리학 등 기초과학 분야에서 전통적으로 강력한 교육 시스템과 풍부한 인재 풀을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강점에도 불구하고 러시아는 일부 기업을 제외하고 AI 기술 전반의 발전에서 선도적인 위치에 서지 못하고 있으며 더구나 최근 여건은 불리하다고 볼 수 있다.

불리한 원인 가운데 하나는 AI 관련 인력의 대외 유출이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러시아 IT 인력 상당수가 전쟁이 발발한 해인 2022년에 국외로 이주했으며² 이런 인력 유출은

“ 관련 인재 유출로
‘글로벌 AI 인덱스’에서 러시아의 평가 지표는
세계 31위에 머물러 ”

러시아 AI 산업 발전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최근 국외 유출 인력 일부가 다시 돌아오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나³ 인력 유출은 여전히 산업 발전에 악영향을 끼치는 요인이다. 미국, 중국, 유럽 등이 글로벌 AI 인재를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는 상황에서 러시아는 인재 유치·유지에 상대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인용한 ‘글로벌 AI 인덱스’에서 러시아의 평가 지표가 낮은 부문이 관련 인재의 부족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AI 기술 개발과 활용에 필요한 시스템을 운영하는 인적자본의 유출은 러시아에 큰 약점이 된다.

또 다른 원인은 전쟁 이후 서방의 경제 제재로 인한 기술·협력 단절이다. 전쟁 이전까지 러시아는 주요 반도체를 미국 등 서방으로부터의 수입에 의존하고 있었고 이들과 활발하게 협력하면서 해당 분야를 발전시켜 왔다. 하지만 서방 국가들이 경제 제재를 통해 관련 제품 수출과 협력을 중단했고, 이는 러시아의 AI 분야 발전에 치명적인 결과를 낳고 있다. 러시아는 전쟁 발발 이전까지 연간 약 500억 달러 규모의 반도체를 수입해 왔는데,⁴ 제재로 인해 사실상 중국산 저가 반도체를 제외하고 서방의 고성능 반도체 수입이 대부분 중단되었다. 고성능 반도체는 AI 모델 학습과 개발에 필수적인 요소로 하드웨어 측면에서 사실상 큰 타격을 받고 있다. 소프트웨어 부문에서도 서방의 AI 소프트웨어·클라우드 플랫폼 접근이 제한되거나 중단되면서 서방과의 협력을 통한 기술 개발이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다.

러시아의 AI 정책

러시아 최초의 AI 정책은 2015년 러시아 정부가 채택한 ‘국가 기술 이니셔티브 전략(National Technology Initiative, NTI)’으로 볼 수 있다. 이 전략은 러시아 기업들이 향후 15~20년간 세계 경제 구조를 좌우할 새로운 첨단기술 시장의 선두 주자로 발돋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장기 복합 프로젝트다. 이 프로젝트는 뉴로넷(Neuronet)이라는 명칭으로 AI 관련 기술과 시스템 개발을 위해 총 9개 전략 분야 중 하나로 포함됐으며 이 전략을 통해 러시아의 AI

		Overall	Talent			Infrastructure		Operating Environment		Research		Development		Government Strategy		Commercial		Scale	Intensity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United States	1	1	1	2	1	1	1	1	1	1	1	1	1	1	1	1	1	3
	China	2	9	2	21	2	2	2	2	2	2	2	2	2	2	2	2	2	21
	Singapore	3	6	3	48	3	3	3	3	3	3	3	3	3	3	3	3	11	1
	United Kingdom	4	4	17	4	4	4	4	4	4	4	4	4	4	4	4	4	3	9
	France	5	10	14	19	5	5	5	5	5	5	5	5	5	5	5	5	6	10
	South Korea	6	13	6	35	6	6	6	6	6	6	6	6	6	6	6	6	7	11
	Germany	7	3	13	8	7	7	7	7	7	7	7	7	7	7	7	7	5	15
	Canada	8	8	18	16	8	8	8	8	8	8	8	8	8	8	8	8	8	8
	Israel	9	7	26	65	9	9	9	9	9	9	9	9	9	9	9	9	14	2
	India	10	2	68	3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4	36
	Russia	31	58	44	30	31	31	31	31	31	31	31	31	31	31	31	31	22	46

글로벌 AI 인덱스 순위 © 토터스 미디어

“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2019년 10월 대통령령 제490호를 통해 ‘2030년까지 AI 개발을 위한 국가전략’ 승인 ”

관련 초기 과제들이 여러 건 수행됐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2019년 10월 대통령령 제490호를 통해 ‘2030년까지 AI 개발을 위한 국가전략’⁵을 승인했으며 해당 법안은 2024년 2월 일부 내용이 수정됐다. 이에 따르면 러시아의 AI 정책 수립 목표와 비전은 다음과 같이 몇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AI 분야에서 글로벌 리더십을 확보한다. 러시아는 AI 기술 개발과 활용에서 국제적인 선두 주자가 될 수 있는 상당한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 이는 높은 수준의 물리학과 수학,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등으로 뒷받침되고 있다. 둘째, AI는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데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AI는 노동생산성을 향상하는 데 도움을 주어, 연간 1~2%의 경제성장률 증가에 이바지할 수 있으며 상품, 작업, 서비스 등의 산출 품질도 개선될 수 있다. 따라서 노동 인력 감소가 진행되는 러시아 경제의 고도화에 AI 개발은 필수적이다. 셋째, AI를 다양한 생활 부문에 활용하여 국민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다. 특히, 의료, 교육, 사회 서비스 등의 분야에서 AI를 활용한다면 공공 서비스 품질을 높이고 국민 편익을 증진할 수 있다. 넷째, 국가 안보와 법 집행 분야에서 AI는 효율성을 확대할 것이다. 국방, 안보, 치안 유지 등의 활동에 AI를 활용하여 대외 대응 능력을 강화할 것이다.

이러한 목표를 뒷받침하기 위한 전략 방향으로 러시아 정부는 다음과 같이 여덟 가지 핵심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과학 연구 지원 강화이다. AI 분야의 기초·응용 연구 지원을 확대하고 세계적 수준의 AI 연구센터와 실험실을 구축한다. 또한, 머신러닝, 컴퓨터 비전, 자연어 처리, 로보틱스 등의 주요 기술 분야 연구·개발(R&D)에 집중한다. 이런 방향에 따라, 2019년에는 AI 기술 개발과 각종 관련 연구를 주도하는 ‘AI 선도 연구센터’가 설립됐다.⁶ 둘째, AI 관련 분야 인재 양성과 확보이다. 초중고, 대학, 대학원, 직업 훈련 등 모든 교육 단계에서 AI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확대하며 AI 전문가 재교육과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또한, 국내외 우수 인재를 유치하고 지원한다. 셋째, 소프트웨어, 알고리즘 및 하드웨어 개발 지원이다. 러시아 자체 AI 솔루션, 알고리즘, 애플리케이션 개발을 장려하고 국산 AI 특허 반대체 및 컴퓨팅 장비 개발을 지원한다. 넷째, 데이터 접근성 및 품질을 향상한다. AI 학습을 위한 정부와 기업 데이터 등 고품질 데이터셋을 구축하고 개방을 확대한다. 다섯째, AI 도입과 활용을 촉진한다. 제조, 농업, 에너지, 교통, 건설 등 주요 산업 분야와 의료, 교육, 문화, 공공 행정 등 사회 분야에 AI 솔루션 도입을 확대한다. 여섯째, 법적 규제와 윤리적 기반을 마련한다. 이는 AI 기술 발전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위험을 관리할 수 있는 유연한 규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일곱 번째, 관련 자금 조달과 투자 환경을 개선하고자 한다. 연방 예산, 국영 기업, 민간 투자 등 다양한 재원을 통한 AI 프로젝트 자금 지원을 확대하고 AI 분야 스타트업과 벤처 투자를 활성화한다. 마지막으로 국제 협력 분야는 AI 분야의 국제 공동 연구, 표준화 활동 참여, 국외 시장 진출 등을 포함한다.

현재 러시아의 AI 개발 정책은 2019년 발표된 장기 개발 정책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며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로 변화한 대외환경 속에서 일부 외부 협력 분야에서 조정을 통해 대응

하고 있다. 이러한 AI 정책 구현을 통해 러시아 정부는 AI 관련 투자가 연간 1,200억 루블 수준에서 향후 약 8,500억 루블로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최대 95%의 산업 영역에서 AI가 적극적으로 구현될 것으로 기대한다.

AI 관련 주요 기업과 기관

러시아의 AI 개발은 정부의 강력한 지원 정책과 함께 주로 대형 기술 기업들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 이들 기업은 각 서비스와 플랫폼에 AI를 적극적으로 통합하며 기술 발전을 이끌고 있다. 러시아의 주요 AI 개발 기업들과 그 성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러시아 최대 검색 엔진 제공 기업이자 IT 분야 선도 기업인 얀덱스(Yandex)를 들 수 있다. 이 회사는 검색, 광고, 모빌리티, 전자상거래, 클라우드 등 다양한 분야에서 AI 기술을 선도적으로 개발하여 적용하고 있다. 검색에서 자연어 처리, 컴퓨터 비전, 음성 인식 등 AI 기반 기술을 알고리즘에 적극적으로 통합하고 있는데, 매트릭스넷(MatrixNet)이라는 독자적인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활용하여 수천 개의 우선순위 요인을 학습하고 각 검색어의 의도에 따라 가중치를 다르게 적용하는 등 앞선 기술을 주도하고 있다.⁷ 러시아 기업으로서 얀덱스는 러시아어 처리 능력, 지역 맞춤형 검색 결과 제공, 사용자 행동 분석 등에서 강점을 보유하고 있으며 러시아 시장에서 높은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다. 검색 기능을 목적으로 개발된 얀덱스 GPT(Yandex GPT)는 15조 개의 토큰을 기반으로 학습된 대규모 언어 모델(LLM)로, 얀덱스의 AI 음성 도우미인 알리사(Alisa)에 통합되어 음성 기반으로 사용하거나 얀덱스의 클라우드 플랫폼을 통해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API) 형태로 제공되어 활용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현재 제5판까지 개발됐다. 얀덱스의 AI 기술이 가장 잘 구현되는 분야는 자율주행 부문이다.⁸ 얀덱스의 자율주행 기술 수준은 이미 2019년 운전자의 개입 없이 완전 자율 주행이 가능한 ‘레벨4’ 단계에 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인 2021년 글로벌 투자기업인 모건스탠리(Morgan Stanley)는 얀덱스의 해당 부문 경쟁력이 세계적인 수준에서 경쟁력을 갖췄으며 기업 가치가 약 70억 달러에 달한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얀덱스는 자국 내 무인 차량 테스트와 기술 개발을 지속해서 진행하고 있으며 2024년 9월에는 중국산 차량(Shacman Kh6000)을 기반으로 자사의 AI 기술과 하드웨어를 사용한 무인 트럭을 선보이기도 했다. 비록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러시아의 사업 부문이 분리되면서 국외 시장 진출과 협력 등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러시아 내에서는 여전히 강력한 시장 지배력을 발휘하고 있다.

AI 분야에서 또 다른 강자는 러시아 최대 국영은행에서 출발하여 AI를 중심으로 하는 거대 기술 생태계 기업으로 변모하고 있는 스베르(Sber)이다. 스베르는 자체 개발한 대규모 언어 모델(LLM) ‘기가챗(GigaChat)’과 이미지 생성 모델 ‘칸딘스키(Kandinsky)’를 운영하고 있다. 국영기업으로서 스베르는 이미 2017년 정부가 승인한 국가 프로그램 ‘러시아연방 디지털 경제 No. 1632-p’의 주요 시행자로서 디지털 생태계 구축과 기술 분야에서 디지털 주권을 마련하는 데 앞장서 왔다. 이에 따라 이미 금융 분야뿐만 아니라, 건강관리, 교육, 전자상거래 등

“러시아 IT 분야 선도 기업인 얀덱스(Yandex)는
검색, 광고, 모빌리티, 전자상거래, 클라우드 등 다양한 분야에서
AI 기술을 선도적으로 개발하고 적용”

“러시아 기업의 강점은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 분야를 거느리고 있어
디지털 생태계를 통해서 AI 기술을 발전시키고
활용할 수 있다는 것”

다양한 분야에서도 디지털 생태계를 구축하고 여기에 AI 기술을 활용하고 있다. 기업의 모태가 은행인 만큼 금융 분야에서 AI 활용에 강점을 보이고 있는데, AI를 활용한 신용평가, 사기 탐지 시스템(FDS), 개인 맞춤형 금융 상품 추천, 맞춤형 고객 서비스 제공 등 핀테크 분야에서 AI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스베르의 디지털 생태계에서 의미 있는 역할을 담당하는 플랫폼은 스베르헬스(Sber Health)인데, 스베르는 이 플랫폼을 기반으로 AI를 활용한 X-레이, CT, MRI 등 의료 영상 분석으로 질병 진단을 보조하고 AI 기반의 증상 분석과 환자 모니터링 관리 시스템 구축, 신약 후보 물질 탐색과 임상시험 효율화 등을 시행하고 있다. 소매업과 전자상거래 분야에서는 메가마켓(MegaMarket)이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판매 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한 수요 예측과 효율적 재고 관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구매 고객 이력 및 패턴 분석을 통한 상품 추천, 배송 경로 최적화, 물류 센터 자동화, 무인 배송 로봇 운영 등에도 AI를 활용하고 있다. 스베르는 엔비디아(Nvidia)의 하드웨어를 기반으로 하는 러시아 최초의 슈퍼컴퓨터인 크리스토파리(Christofari)를 2019년 선보인 이래 신규 모델을 개발하면서 AI 알고리즘, 신경망 학습, 다양한 모델 추론을 위해 활용해 왔으나 엔비디아 반도체의 활용이 불가능해지면서 머신러닝 경쟁에서 직접적인 타격을 입고 있다.⁹ 이 컴퓨터의 최신 모델인 크리스토파리 네오(Christofari Neo)는 2021년 11월까지만 하더라도 세계 슈퍼컴퓨터 순위 43위에 올랐으나 2024년 11월 기준으로는 103위에 그치고 있다.¹⁰

양강 체제를 형성하는 이 두 기업 외에도 러시아 최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인 브콘탁테(VKontakte)와 아드노클라시니키(Odnoklassniki)를 비롯해 이메일 서비스, 게임, 교육 플랫폼 등을 운영하는 대형 인터넷 기업인 브이케이(VK)도 AI 기술 개발에 적극적이다.

AI 기술 개발 기업으로서 서방 기업과 비교할 때 러시아 기업의 강점은 이들 기업이 기술을 기반으로 하고 있지만,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 분야를 거느리고 있다는 점이다. 애플의 경우 온라인 포털을 중심으로 한 검색 기능 외에도 전자상거래, 미디어와 엔터테인먼트, 푸드테크(Foodtech)와 모빌리티 분야 등 온라인으로 다양한 대 소비자 접점을 통해 AI 기술을 활용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스베르도 지주회사 산하의 다양한 디지털 생태계를 통해서 AI 기술을 발전시키고 활용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확보하고 AI를 훈련시키고 있다. 따라서 러시아의 AI 기술 수준이 다른 선진국들과 비교하여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이지만 공공 부문과 실제 생활에서 구현되고 활용되는 기술 수준은 세계 10위권 이내라는 평가도 있다.¹¹

앞서 소개한 기업들은 러시아에서 소비자 기반의 서비스 구축으로 대중적으로 잘 알려져 있으며 다른 기술기업으로는 광학 문자 인식(OCR), 자연어 처리(NLP), 프로세스 마이닝 분야에서 국제적으로도 기술력을 인정받는 애비(ABBYY)가 있다. 이 기업은 문서 처리 자동화, 데이터 추출 등 기업용 AI 솔루션에 강점이 있다. 또한, 엔테크랩(NtechLab)은 AI 기반의 비디오 분석과 안면 인식 기술 분야에서 높은 정확도를 바탕으로 세계적 수준의 기술력을 보유



러시아 스베르의 슈퍼컴퓨터 크리스토파리 네오 © 해드워키

하고 있으며 스마트시티, 의료, 산업 및 운송 등의 다양한 분야에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이다. 2025년 4월에는 키프로스에 있는 기존 지주회사를 러시아로 이전하는 등¹² 러시아 내 사업 확장에 적극적이다.

AI 관련 주요 기관인 모스크바물리기술대학교(Moscow Institute of Physics and Technology)는 2017년부터 AI 센터를 설립하여 연구를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 특히, 자연어 처리, 컴퓨터 비전 등 다양한 AI 핵심 기술 분야와 이를 산업에 적용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최근에는 12큐비트 초전도 양자 프로세서를 개발·활용하여 AI 알고리즘 성능 실험을 진행하는 등 양자 컴퓨팅과 AI를 융합하는 연구를 추진하고 있다. 러시아 과학아카데미 산하 시스템 프로그래밍연구소(Institute for System Programming)는 소프트웨어 개발과 시스템 프로그래밍 연구에서 세계적인 명성을 가지고 있는데 AI 분야에서 효율적인 컴파일러 기술과 프로그래밍 도구 개발에 힘쓰고 있다.

향후 개발 방향과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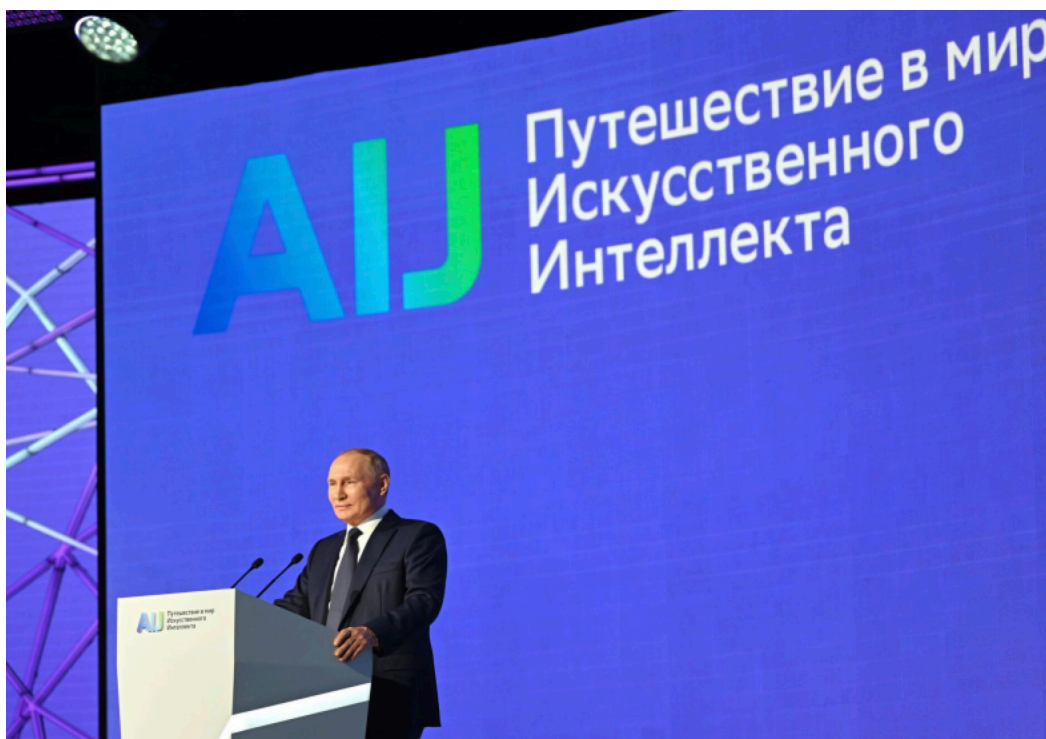
서방의 대러 제재가 지속되면서 러시아의 AI 개발이 큰 어려움에 부딪힌 것은 자명하며 러시아는 이를 두 가지 방향으로 돌파하고자 한다. 첫째, 내부적인 기술 주권(Technological Sovereignty) 확립이다. 반도체와 소프트웨어 등의 분야에서 서방의 첨단 기술 접근이 차단되면서, 러시아는 자체 기술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이에 따라 AI 활용 반도체의 국산화 등이

“반도체와 소프트웨어 등의 분야에서
서방의 첨단 기술 접근이 차단되면서,
러시아는 자체 기술 개발에 집중”

“러시아는 앞으로 반도체와 소프트웨어 등의 분야에서
기술 주권을 확립하는 것과 BRICS 중심의
‘AI 동맹 네트워크(AI Alliance Network)’ 등을 통해
AI 개발 이어갈 것”


주요 과제로 부상했다. 러시아는 2020년 1월 ‘2030년까지 러시아연방 전자산업 발전 전략’을 채택하고¹³ 반도체를 본격적으로 개발해 왔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이런 전략의 토대가 되는 기본적인 기술 수준이 미약하여 현실화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는 어렵다. 게다가, 서방의 제재로 인해 반도체 생산에 필수적인 장비나 부품 등의 공급이 원천적으로 봉쇄되어 있어 생산 기반을 갖추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러시아가 일정 수준의 자체 반도체 생산을 위해서는 최소 15년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¹⁴ 또한, 정부의 계획이 성공적으로 진행된다 하더라도 AI 개발에 필요한 수준의 반도체 생산은 사실상 어렵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제재가 지속되는 한 AI 개발의 기본이 되는 하드웨어의 독자 개발과 수입대체화보다는 이를 타 국가를 통해 우회 수입하거나 위탁 생산하는 등의 방식이 현실적인 방안이 될 것이다. 다만, 앞서 소개한 정부 계획인 2030년까지의 AI 개발 전략은 민간의 주요 기업들과 정부 기관, 대학 연구소 등과 함께 이행될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는 우호국 중심의 대외 협력을 통한 기술 개발이다. 푸틴 대통령은 2024년 12월 브릭스(BRICS) 주요 회원국들과 일부 비회원국을 포함하는 ‘AI 동맹 네트워크(AI Alliance Network)’를 창설했다고 밝힌 바 있다.¹⁵ 이는 AI 분야에서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서방 국가들의 지배력을 경계하고 서방의 규제 틀 외부에서 AI 개발의 대안 모델 개발을 촉진하는



BRICS 국가 간 AI 네트워크를 제안하는 푸틴 러시아 대통령 © 《리아 노보스티》

것을 목표로 한다. 브릭스 국가 외에도 벨라루스, 아제르바이잔, 세르비아, 칠레, 쿠바 등 비서구 국가들을 포함하는 네트워크 창설로 기술 개발을 주도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네트워크의 주요 과제는 공동 기술·법적 플랫폼 구축, 연구 프로그램 개발, 공급망 제약을 고려한 AI 솔루션 확장 및 기술망 구축 등이며 러시아는 네트워크 사무국을 운영한다. 이런 다자간 협력 외에도 러시아는 AI 분야의 세계적 강자인 중국과의 양자 간 협력에도 최근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푸틴 대통령은 2025년 1월 러시아 정부와 스베르가 중국과의 AI 연구를 공동으로 추진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¹⁶ 이에 따라 스베르는 향후 중국 연구진과 공동 연구를 진행할 계획을 발표한 바 있으며 2025년 5월 초 열린 양국 정상회담에서는 공동 성명을 통해 AI의 평화적 사용과 향후 상호 지원 의지를 표명했다. 이미 이 분야에서 세계적인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중국과의 협력이 앞으로 러시아의 AI 기술 발전에 어떻게 작용할지 주목해야 할 때다.

러시아가 단기간 내에 글로벌 AI 경쟁에서 이전의 위상을 회복하거나 선도적인 위치를 차지하는 것은 쉽지 않은 과제로 보인다. 다만,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기초 과학 역량을 기반으로 내부 역량을 강화하고 중국 등 AI 선진국과 꾸준한 공동 기술 개발을 지속한다면 글로벌 시장에서 특정 분야를 중심으로 한 시장 지배력 확대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 1 “The Global AI Index.”
<https://www.tortoisemedia.com/data/global-ai> (검색일: 2025년 5월 10일)
- 2 박지원. “이주 러시아 난민의 경제적 영향: 중앙아시아의 사례 연구.” 《아시아리뷰》, 제14권, 제2호 (2024). p. 277.
- 3 “Russia: Why People Are Returning, Despite the War in Ukraine.”
<https://www.dw.com/en/russia-why-people-are-returning-despite-the-war-in-ukraine/a-67022321>
(검색일: 2025년 5월 10일)
- 4 “Russia Buys 70% of Its Chips from China, but the U.S.’s Blockade of American Semiconductors Will Still Hit Putin Hard.”
<https://fortune.com/2022/02/25/biden-ban-chips-semiconductors-exports-russia-ukraine/>
(검색일: 2025년 5월 10일)
- 5 Национальная стратегия развития искусственного интеллекта на период 2030 года
- 6 Radomir Bolgov and Olga Filatova, “AI politics and sanctions: comparing the cases of Russia and Iran.” *Digital International Relations*, p. 61.
- 7 “MatrixNet: New Level of Search Quality,”
<https://www.yandex.com/company/technologies/matrixnet> (검색일: 2025년 5월 12일)
- 8 “TAdviser: Avride(formerly Yandex Self-Driving Group).”
https://www.tadviser.com/index.php/Company:Avride_%28formerly_Yandex_Self-Driving_Group%29
(검색일: 2025년 5월 12일)
- 9 “Russia’s Semiconductor Catastrophe: How Export Controls and Sanctions Will Affect Russia.”
<https://www.tradecompliance.io/russias-semiconductor-catastrophe-how-export-control-and-sanctions-will-affect-russia> (검색일: 2025년 5월 12일)
- 10 “Christofari Neo – Nvidia DGX A100, AMD Epyc 774264C 2.25GHZ, Nvidia A100 80GB, INFINIBAND.”
<https://www.top500.org/system/180028/> (검색일: 2025년 5월 14일)
- 11 “Россия вошла в топ-10 стран по внедрению ИИ.”
<https://www.lenta.ru/news/2024/03/13/top/> (검색일: 2025년 5월 15일)
- 12 “Holding Company of Video Analytics Developer NtechLab Redomiciled to Russia.”
<https://www.interfax.com/newsroom/top-stories/111111/> (검색일: 2025년 5월 15일)
- 13 “Стратегия развития электронной промышленности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на период до 2030 года.” 17, Января 2020 года N. 20-р.
- 14 “России понадобится 15 лет на импортозамещение полупроводников.”
<https://karibu.fm/rossii-ponadobitsya-15-let-na-importozameshhenie-poluprovodnikov/>
(검색일: 2025년 5월 18일)
- 15 “Russia Teams up with BRICS to Create AI Alliance, Putin Says,”
<https://www.reuters.com/technology/artificial-intelligence/russia-teams-up-with-brics-create-ai-alliance-putin-says-2024-12-11/> (검색일: 2025년 5월 19일)
- 16 “Путин поручил Правительству России и Сбербанку исследовать искусственный интеллект вместе с Китаем.”
https://www.cnews.ru/news/top/2025-01-02_pravitelstvu_ross_ii_i_sberbanku (검색일: 2025년 5월 21일)

알렉세이 호마코프

슬라브주의의 창시자

마리나 아르다예바 러시아 언론인

러시아 슬라브주의의 창시자로 널리 알려진 알렉세이 호마코프는 시인이자 철학자였으며, 신학자이자 탁월한 논객이었다. 자유를 찬미하면서도 가부장적 생활양식을 수호하던 그는 실로 역설적인 인물이었다. 그의 존재는 너무도 강렬했기에 오히려 생전에는 사랑받기 어려웠고, 사후에는 급하게 잊혔다. 그러나 시간이 흐른 뒤, 사람들이 그의 사유를 점차 재평가하기 시작하면서, 호마코프는 러시아 지식사의 중요한 전환점으로 다시 소환됐다.

19세기 러시아는 유럽 대륙에서 불어온 계몽주의와 혁명의 열기, 산업화의 물결 앞에서 국가의 미래를 두고 격렬한 논쟁이 벌어진 무대였다. 그런 격동의 시공간 속에서 호마코프는 수도가 아닌 시골 영지에서 농민과 함께 살며 독특한 러시아 정신의 근원을 탐색했다. 그의 사유는 이론이 아닌 실천에서 출발했고, 관념보다 신앙과 일상의 삶에서 빚어졌다.

호마코프가 주장한 슬라브주의는 단순히 배타적 민족주의가 아니었다. 그것은 오히려 서구 문명의 빛과 그늘을 냉철하게 바라보되, 러시아만의 방식으로 인간과 사회의 윤리를 재구성하려는 철학적 실천이었다. 그는 민중의 자율성과 신앙의 공동체성, 전통의 비판적 계승을 통해 러시아가 나아갈 방향을 모색했다. 이런 태도는 그가 교회의 본질을 사유하고 신학적 입장을 확립하는 데까지 나아가게 했고, 결국 호마코프는 러시아에서 최초로 독립적 신학을 구축한 사상가로 평가받게 된다.

21세기를 사는 오늘날 러시아 사회 역시 전통과 근대, 공동체와 개인, 동양적 가치와 서구적 가치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으려는 과제를 여전히 안고 있다. 그런 맥락에서 보면, 근대 초입에서 ‘우리는 누구인가’를 묻고, 그 답을 신앙과 역사, 공동체의 삶 속에서 찾고자 했던 호마코프의 모색은 절대 낯설지 않다. 그는 단지 러시아만의 사상가가 아니라, 동시대 러시아인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질문을 던지는 사유의 동반자일 수 있다.

러시아적 전통과 사상의 기원을 묻는 이들에게, 이 글은 한 사상가의 내면을 넘어 우리 자신의 문제를 비춰주는 하나의 거울이 될 것이다. 이번 호 「역사 프리즘」에서는 《루스키 미르》 2024년 10월호 수록 기사를 통해 호마코프의 삶과 사상을 다시 조명한다. (편집자 註)

“호마코프의 삶과 사상을 가장 설득력 있게 조명한 인물 중 한 명은 철학자 니콜라이 베르다예프”

철학자의 탄생: 어린 시절과 젊은 날의 호마코프

슬라브주의 철학자로 알려진 알렉세이 호마코프는 1804년 모스크바에서 태어났다. 그의 아버지 스테판 알렉산드로비치 호마코프는 유서 깊은 러시아 귀족 가문의 일원이었다. 호마코프의 삶과 사상을 가장 설득력 있게 조명한 인물 중 한 명은 철학자 니콜라이 베르다예프였다. 그는 동시대 사상가의 정신적 형성 과정을 섬세하게 그려내면서 호마코프라는 복합적 인물의 내면을 깊이 있게 파헤친다. 흥미롭게도, 호마코프의 전기에서 가장 먼저 언급되는 중요한 사건은 그의 출생보다도 훨씬 앞선 시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것은 18세기 중엽에 한 토지를 둘러싸고 벌어진 일화였다.

옛날 옛적에 툴라 인근에는 키릴 이바노비치 호마코프라는 지주가 살고 있었다. 그는 상당한 재산을 소유했었지만, 아내와 외동딸이 먼저 세상을 떠나 직계 상속인이 남아 있지 않았다. 이제 문제는 막대한 유산과 영지를 누구에게 물려주느냐는 것이었다. 툴라현의 여러 농촌 마을과 랴잔 근처의 영지, 상트페테르부르크의 저택 등 넘겨야 할 자산이 한둘이 아니었다. 호마코프는 고민 끝에 자기 가문 안에서 누군가를 선택하기로 마음먹었지만, 누구에게 우선권을 줄지 쉽게 결정할 수 없었다. 결국 그는 예상치 못한 결정을 내린다. 이 중대한 문제를 자기 밑에서 일하는 농민들에게 맡기기로 한 것이다. 어차피 새로운 지주와 함께 살아갈 사람은 바로 그 농민들이었기 때문이었다.

호마코프는 농민 공동체 회의를 소집하고, 새로운 지주를 직접 선출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마을 대표들이 인근 지역은 물론 먼 곳까지 다니며 책임자를 물색했고, 최종적으로 선택된 인물은 그의 조카뻘 되는 젊은 부사관 표도르 스테파노비치 호마코프였다. 그는 비록 재산은 많지 않았지만, 검소하고 사려 깊은 사람이었다. 표도르 스테파노비치는



호마코프 가문의 귀족 문장 © 《루스키 미르》



호마코프 가문의 툴라현 보구차로보 영지 (1880년대 초) © 《루스키 미르》

바로 훗날 슬라브주의 철학자가 될 알렉세이 호마코프의 증조부였다. 농민들이 주인을 직접 선택한 이 일화는 어린 알렉세이의 기억 속에 깊이 각인됐고, 이후 그의 사상 형성과 특히 농민 문제에 관한 시각에 큰 영향을 끼쳤다.

그러나 이 빛나는 가문의 일화에도 한때 그 명성에 흠이 될 뻔한 사건이 일어났다. 조부와는 달리, 알렉세이의 아버지는 검소함이나 신중함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다. 그는 사치스럽고 방탕한 생활을 즐겼으며, 귀족 사회의 풍류에 빠져 지냈다. 대표적으로, 상트페테르부르크의 ‘영국인 클럽’에서만 백만 루블이 넘는 돈을 도박으로 탕진한 일이 있었다. 다행히도 집안의 중심이었던 어머니 마리아 알렉세예브나가 나서서 가세가 완전히 기울기 전에 가문의 재정을 수습했다. 그녀는 엄격하고, 신앙심 깊으며, 강단 있고, 절제된 성품의 여인이었으며, 이런 성격은 호마코프의 신념 형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물론 인간의 성격은 단지 자의적 선택만으로 형성되는 것이 아니기에 알렉세이는 양친의 서로 다른 기질을 동시에 흡수하며 성장했다. 그 결과 그의 성격은 본질상 모순적이었지만, 바로 이 모순 속에서 오히려 강인하고 일관된 내면이 드러났다.

이런 양가적 기질은 일찌감치 모습을 드러냈다. 예컨대, 어린 시절부터 그는 장차 논객으로서의 자질을 보이기 시작했다. 당시의 관례에 따라 그는 처음에는 가정에서 교육을 받았으며, 라틴어는 부아벵 신부의 지도하에 익혔다. 어느 날 그는 책에서 교황 칙서의 오자를 발견하고는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맞춤법도 틀리는 사람을 어떻게 절대 틀리지 않는 사람이라 할 수 있겠어요?” 이처럼 호마코프는 어린 시절부터 예리한 비판 정신을 드러냈다. 열한 살 무렵,

“ 호마코프의 성격은 본질상 모순적이었지만,
바로 이 모순 속에서
오히려 강인하고 일관된 내면이 드러나 ”



베네비티노프의 저택 (1970년대) © 《루스키 미르》

그는 학업을 위해 모스크바를 떠나 상트페테르부르크로 가야 한다는 사실에 큰 두려움을 느꼈다. 당시 그는 수도를 지나치게 세속적인 곳으로 생각했으며, 거의 이교의 도시처럼 보였기 때문이다. 이때 그는 ‘어떤 상황에서도 정교 신앙만은 끝까지 지키겠다’라고 다짐했다.

호마코프는 매우 우수한 교육을 받았으며, 열일곱 살에는 모스크바대학교에서 수학 (우리의 박사학위에 해당하는) 후보 학위 자격시험에 합격했다. 이 무렵 그는 처음으로 자기가 쓴 시를 발표했고, 타키투스의 『게르마니아』 번역문을 《러시아 문예 애호가 협회 학술지》에 게재하기도 했다. 이후 그는 아스트라한 근위 중기병 연대에 입대했다. 이런 선택에는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은 열정과 기질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의 상관이었던 오스텐사켄 백작은 회고록에서 호마코프에 관해 이렇게 썼다. “신체적, 도덕적, 정신적 소양 모든 면에서 호마코프는 비할 데 없는 인물이었다. 그의 의지는 소년이라기보다는 풍부한 경험을 보유한 성인의 것이었고, 정교회 규범에 따라 금욕 일을 철저히 지켰고, 절기와 일요일마다 예배에 빠짐없이 참석했다. 육체적 고통에 대한 인내심 또한 스파르타인이라고 부를 만한 수준이었다.” 1825년 호마코프는 군 복무를 마친 뒤 유럽으로 유학을 떠났다. 그는 유럽에서 그림을 그리고 시와 희곡을 쓰며 창작 활동에 몰두했다. 흥미롭게도, 타국의 수도 파리에서 그는 민족적 주제를 다룬 희곡 『예르마크』를 집필했다.

호마코프와 푸시킨

『예르마크』를 계기로 알렉세이 호마코프와 러시아 문학의 아버지로 평가받는 시인 알렉산드

“ 민족적 주제를 다룬 희곡 『예르마크』를 계기로
사상가 호마코프와 시인 푸시킨 사이에
복잡한 관계가 형성돼 ”

르 푸시킨 사이에 복잡한 관계가 형성됐다. 이는 이후 러시아 사상의 전개에서 중요한 의미를 띠게 된다. 두 사람의 첫 만남은 1826년 10월 모스크바 어느 골목에 있었던 시인 베네비티노프의 저택에서 이뤄졌다. 당시 푸시킨은 철학·문학적 교류를 활발히 이어가던 ‘류보무드리에 협회’의 활동에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었다. 이 협회 회원들은 종종 ‘문서 청년들’로 불렸는데, 1825년 데카브리스트 봉기가 실패한 이후 이들을 향한 기대감이 형성됐다. 독일 관념론 철학(칸트, 피히테, 셸링)에 심취한 이들 젊은 귀족 지식인은 자생적인 러시아 철학을 창조하여 새로운 국가적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으리라는 희망을 품고 있었다.

호마코프는 이 협회의 정식 회원은 아니었으나, 일정한 동조자로 여겨졌으며, 초기 시 작품들 역시 이들이 추구하던 낭만주의 미학과 궤를 같이하고 있었다. 푸시킨은 호마코프의 서정시에 대해 호의적으로 평가했고, 특히 장편 서사시에서 그의 재능이 어떻게 드러날지에 큰 관심을 드러냈다. 때마침 모스크바 문단에서는 이미 『에르마크』를 둘러싼 소문이 퍼지고 있었다. 이런 배경 속에서 푸시킨은 베네비티노프의 집에 모인 자리에서 자신의 희곡 『보리스 고두노프』를 낭독한 다음 날 호마코프에게도 자기 작품을 낭독해 달라고 요청했다.

당시 자리에 있었던 이들의 증언에 따르면, 호마코프는 이 요청에 선뜻 응하지 않았다고 한다. 푸시킨이 명성의 정점에 있던 상황에서 그와 경쟁자로서 시를 낭독한다는 것은 지나치게 불리한 구도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역사학자이자 언론인이었던 미하일 포고딘의 회고에 따르면, 낭독을 끝까지 밀어붙인 것은 다름 아닌 푸시킨이었다. 호마코프는 결국 예상대로 좋은 반응을 얻지는 못했다. 청중의 평가는 전반적으로 냉정했고, 포고딘은 그 작품을 두고 “보석도 있지만 유리 조각도 많은 모자이크 같은 시”라고 평했다. 그럼에도 푸시킨은 호마코프를 재능 있는 인물로 눈여겨보기 시작했다.

1826년 말부터 1827년까지 호마코프가 러시아-오스만 전쟁에 참전하기 전까지 두 사람은 여러 모임에서 지속해서 교류했으며, 때때로 격렬한 논쟁을 벌이기도 했다. 그들의 논쟁은 흥미로웠으며, 무엇보다도 논의할 주제가 풍부했다. 1825년 이전까지만 해도 호마코프는 데카브리스트들과 활발히 논쟁한 바 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당신들은 무장 혁명을 원한다고



모스크바 소바치야 광장에 있는 호마코프 저택 (20세기 초) © 《루스키 미르》

“푸시킨처럼 복잡하고 심오한 세계관을 지닌 인물들은
호먀코프의 발언에서 진실을 통찰하고
상당 부분 공감하기도 해”

하지만, 군대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민중이 자기 돈으로 무장시키고, 자신들을 보호하라고 위임한 사람들의 집합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자기 임무를 어기고 민중 위에 군림하려 든다면, 그 안에 무슨 정의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젊은 귀족들이 주장한 해방의 이념 속에서 호먀코프는 정작 핵심인 ‘자유’를 발견하지 못했던 것이다. 예컨대 그는 블라디미르 오도옙스키에게 이런 말도 했다. “당신은 자유주의자가 아닙니다. 전제군주제를 비판하면서도, 사실상 소수 무장 세력이 일삼는 또 다른 형태의 폭정을 선호할 뿐입니다.” 이런 발언은 많은 사람의 반감을 샀지만, 푸시킨처럼 복잡하고 심오한 세계관을 지닌 인물들은 호먀코프의 말에서 진실을 통찰했고, 상당 부분 공감하기도 했다. 특히나 데카브리스트 봉기가 실패한 이후에는 더 더욱 그랬다.

그러나 푸시킨은 단지 호먀코프와 논쟁만을 즐긴 것이 아니라, 선배 문인으로서 후배 시인의 문학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자 했다. 그는 호먀코프를 가르치고 이끌려 했으며, 사실상 『보리스 고두노프』의 사상적 연장선에 있는 서사시 『가짜 드미트리』를 쓰도록 후배에게 큰 기회를 제공했다. 그러나 호먀코프는 그리 쉽게 빛어지는 성격이 아니었고, 푸시킨도 변화무쌍한 인물이어서 두 사람 사이에 점차 거리가 생기기 시작했다. 1830년 무렵 푸시킨은 호먀코프에 대해 선심 쓰듯 깔보는 어조로 글을 썼다. 그는 『예르마크』를 “열정적인 젊은이의 서정적 산물”이라고 부르며, “그 안에는 우리 민족의 풍속이나 정신과 어울리는 것이 아무것도 없으며, 시의 매혹적인 아름다움조차 이질적으로 느껴진다”라고 평가했다. 비록 편지에서는 여전히 호먀코프가 자신의 조언에 따라 새로운 작품에서 성숙해지기를 기대한다고 썼지만, 정작 1832년 『가짜 드미트리』가 완성되어 공개되자, 푸시킨은 그 사실을 완전히 외면했다. 러시아의 사상



평론가이자 언론인, 종교 철학자였던 이반 키레옙스키(1806~56) © 《루스키 미르》

“1830년대 후반 호마코프는 평론가이자 언론인, 종교 철학자였던 이반 키레옙스키와 더불어 슬라브주의의 공동 창시자로 자리매김해”

발전에 크게 이바지할 수도 있었던 두 지성인의 사이가 이렇게 틀어진 것은 참으로 아쉬운 일이었다. 푸시킨은 러시아의 ‘국민 시인’으로서 호마코프와 같이 슬라브주의의 선구자도 될 수 있었기에 더욱 안타까웠다.

슬라브주의의 탄생

1830년대 후반 호마코프는 평론가이자 언론인, 종교 철학자였던 이반 키레옙스키와 더불어 슬라브주의의 공동 창시자로 자리매김하게 된다. 그 이전까지 호마코프는 전쟁터에 있었다. 그리고 전우들의 회고에 따르면, 그는 전장을 용감하고 유쾌하게 누볐다. 전역 후 호마코프는 자기 영지로 돌아가 시골에서 농장을 열심히 운영하며 다양한 개혁과 발명을 시도했다. 예컨대, 그는 영국에서 특허를 받은 개량형 파종기를 직접 제작했고, 새로운 형태의 온실, 쟁기, 제설기 등을 설계했다. 또한, 콜레라가 유행하던 시기에는 치료법을 찾고자 노력했고, 머릿속으로는 농노 해방에 관한 구상을 구체적으로 다듬어 가고 있었다. 1836년 호마코프는 시인 니콜라이 야지코프의 여동생 예카테리나 야지코바와 결혼하여 행복한 신혼 생활을 시작했다. 그해 말 슬라브주의가 본격적으로 불붙기 시작했으며, 그 사상의 불씨를 지핀 인물은 다름 아닌 포르트 차다예프였다.

회의주의적 사상가였던 차다예프는 러시아 사회 전체—그 역사와 철학—에 정면으로 문제를 제기하며 본질을 파고드는 질문들을 던졌다. “러시아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 그 진정한 소명과 민족적 사명은 무엇인가?” 그의 도발적 성찰은 지식인 사회의 논쟁을 더욱 격화시켰고, 사회 전반에 걸쳐 이런 근본적 질문들이 제기됐고 각양각색의 해답이 쏟아져 나왔다. 호마코프는 「옛것과 새것에 관하여」라는 글을 발표하며 차다예프의



예카테리나 호마코바 © 《루스키 미르》

“호마코프는 러시아에서 처음으로
헤겔의 역사철학 체계를 정면에서 비판하며 그것이
얼마나 추상적이고 비합리적인지를 지적”

질문들뿐 아니라 우바로프 백작의 삼위일체 이념(정교회·전제정·민족성)으로 대표되는 공식 이데올로기에 대해 자신만의 견해를 제시했다. 바로 이 글에서 슬라브주의의 핵심적 이론 틀이 처음으로 드러났다. 슬라브주의는 러시아 민족이 고유한 정신을 자각하고 자율적 철학을 세우려 한 최초의 시도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가 있다.

주목할 점은 슬라브주의자들이 유럽을 무조건 배척한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이다. 그들은 탁월한 교육을 받은 지식인들이었으며 서구 문명의 성취를 정당하게 평가할 줄 아는 사람들이었다. 다만 그들은 서구를 무비판적으로 추종할 것이 아니라, 비판적으로 수용해야 한다고 처음으로 주장했다. 즉, 외래의 것이 모두 옳은 것도 아니며, 설령 옳은 것일지라도 그것이 반드시 러시아 토양에 맞게 뿌리내릴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칸트와 헤겔조차도 비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다. 물론 모든 슬라브주의자가 그런 철학적 거장들과 대등하게 논쟁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니다. 그러나 호마코프는 그럴 수 있는 인물이었다. 그는 러시아에서 처음으로 헤겔의 역사철학 체계를 정면에서 비판하며 그것이 얼마나 추상적이고 비합리적인지를 지적했다. 헤겔의 체계는 역사적 사실의 본질적 원인을 단순한 형식적 구조로 환원시킨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호마코프는 서구를 비판하면서도, 자국의 전통을 절대 무비판적으로 감싸지 않았다. 「옛것과 새것에 관하여」에서 그는 막 태동하던 슬라브주의가 소중하게 여기던 민족의 관습과 전통, 역사에 대해 비판적 시선을 거두지 않는다. 호마코프는 러시아 역사에 내분, 배신, 영토 분열, 몽골 지배, 이반 뇌제의 횡포 등 참혹하고 불미스러운 사건이 적지 않았음을 지적했다. 그는 러시아의 과거를 무비판적으로 신성시하려는 경향에 맞서서 그 어두운 측면까지 포함하여 진실을 직시해야



알렉세이 호마코프(1842년) © 《루스키 미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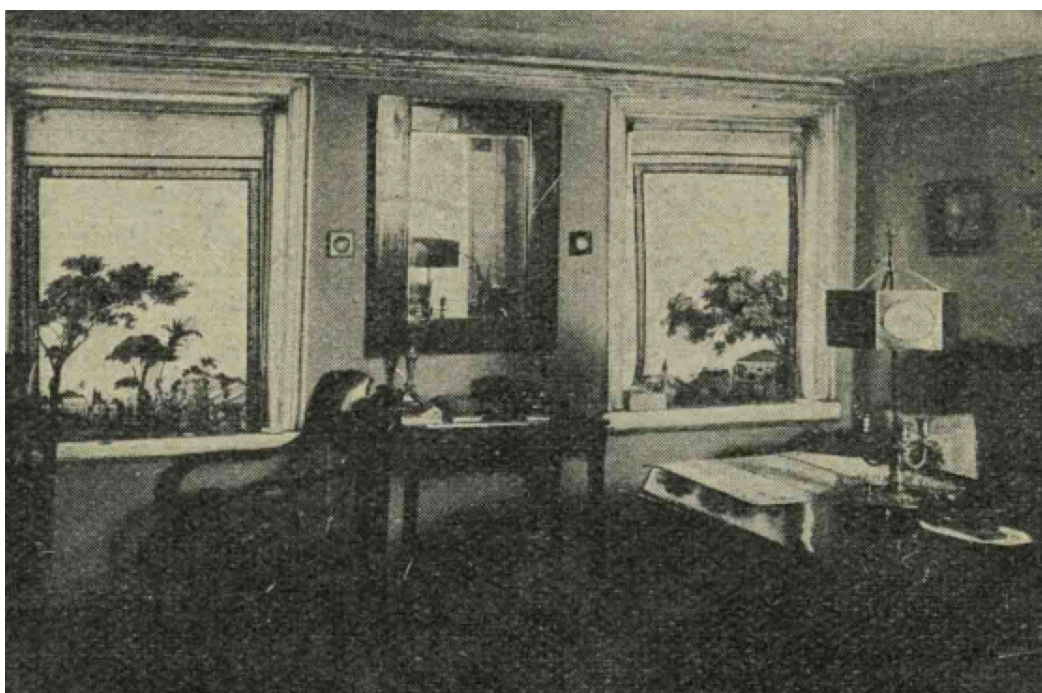
“호먀코프는 근거 없는 민족적 우월감이나
외래문화를 배척하는 국수주의를 거부한 대신
겸허와 용기, 신앙과 자유에 대한 사랑을 요구하는
더 어려운 길을 제시”

한다고 주장했다. 슬라브주의는 애국주의가 아니라, 성찰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신념이었다.

물론, 호먀코프는 러시아 역사에 긍정적인 면도 있다고 생각했다. 다만, 좋은 부분들은 대개 섬광처럼 지나쳤으며 사라진 지 오래됐다고 덧붙였다. 민회는 오래전에 모습을 감췄고, 북부 도시들은 자유를 잃었으며, 농민들 역시 자율성을 상실해 버렸다. 하지만 호먀코프는 러시아의 궤적과 시행착오가 국가 형성의 조건 속에서 이뤄져 온 것이라고 보았다. 이제 국가가 자리를 잡은 이상, 사회는 진정한 계몽과 인도주의, 참된 기독교적 가치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으며, 이런 가치는 과거의 이상과 현재의 가능성에서, 민족의 독자성과 재해석된 서구의 성취로부터도 형성될 수 있고 또 형성되어야 한다고 믿었다. 호먀코프는 근거 없는 민족적 우월감이나 외래문화를 배척하는 국수주의를 거부했던 반면 겸허와 용기, 신앙과 자유에 대한 사랑을 요구하는 더 어려운 길을 제시했다.

러시아 최초의 신학자

호먀코프는 교회에 대해 깊이 사유한 인물이었다. 그는 열렬한 신앙인이었지만, 어디까지나 평신도로서 사유했다. 바로 이 점에서 그는 사실상 러시아 최초의 종교 철학자, 혹은 자율적이고 독창적인 ‘러시아 최초의 신학자’로 자리매김했다. 호먀코프의 신학적 사유는 「교회는 /



호먀코프의 모스크바 저택 응접실(1920년대) © 《루스키 미르》

하나다」라는 논문에서 시작되어 1850년대에 쓴 일련의 논쟁적 저술과 서신, 단문들로 이어진다. 호마코프의 가장 큰 공헌은 정교를 정교 발상지인 비잔티움으로부터 논리적으로 분리해냈다는 점이다. 그는 정교의 핵심에는 고유한 민족적·심리적 신앙 유형이 자리하고 있음을 입증하려 했다. 러시아 정교가 비잔티움에서 기원하고 형식적 측면에서 많은 것을 계승했음은 사실이나, 그 정신은 콘스탄티노플의 교활함·경직성·암울함과는 거리를 둔 더 창조적이고 자유로운 러시아적 신앙이었다는 것이다.

아울러 그는 ‘러시아 정교’가 아직 완전히 실현되지 않았다고 보았다. 러시아인은 정교를 단지 계승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실천 속에서 구현해야 한다고 믿었다. 다시 말해 “서로 옆에 사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사는 법”을 배워야 하며, “개인의 힘은 모두의 것이고 모두의 힘은 개인을 위한 것”이라는 윤리 공동체를 통해서만 인간은 도덕적 목적에 도달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진리는 러시아인의 일상에 아직 온전히 뿌리내리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호마코프는 신앙을 삶 속에서 실천하려 노력했다. 그는 모든 금식과 의례를 형식이 아닌 진심으로 지켰으며, 그 속에 담긴 신비를 경건히 받아들였다. 특히 가정은 그에게 진정한 성소와 같았다. 많은 사람이 결혼을 실용적 계약으로 여길 때, 그는 결혼을 상호 사랑이라는 높은 의무를 수반한 신의 선물로 이해했다. 젊은 시절 호마코프는 혼전에는 어떤 여성과도 육체적 관계를 맺지 않겠다고 맹세했고, 처음

에는 어머니에게, 이후에는 자기 자신에게 그 약속을 되풀이했다. 동정을 지키지 않으면서 여성에게 순결을 요구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는 것이 그의 신념이었다. 아내 예카테리나 미하일로브나와는 16년 동안 조화로운 부부 생활을 이어갔고, 슬하에 아홉 자녀를 두었다. 그중 두 아이는 성홍열로 먼저 세상을 떠났지만, 두 사람은 신앙 속에서 서로를 지탱하며, 상실의 어둠을 믿음으로 이겨냈다.




알렉세이 호마코프(1850년대) © 《루스키 미르》

“호먀코프가 볼 때 신앙의 구현에서 중요한 요소가 된 것은 ‘가정’과 ‘일상’이라는 삶의 구체적 기반”

호먀코프가 볼 때 신앙의 구현에서 중요한 요소가 된 것은 ‘가정’과 ‘일상’이라는 삶의 구체적 기반이었다. 그는 신학자 이면서도 현실 감각이 뛰어난 실천적 인간이었고, 신비주의나 황홀경, 영적 몰입의 심연과는 거리가 멀었다. 동방 기독교의 금욕주의 역시 그에게는 낯선 개념이었다. 흔히 슬라브주의적 기독교는 무조건적인 복종과 고난, 금욕을 요구하는 고된 수행으로 여겨지지만, 호먀코프의 삶은 그런 관념과는 전혀 달랐다. 그의 철학은 삶의 즐거움을 부정하지 않는 건전한 신앙적 태도를 보여준다. 실제로 호먀코프는 자주 웃었다. 일부 사람은 그를 위선자라고 비난하기도 했다. “신앙인이 과연 그렇게 유쾌하게 웃을 수 있는가?”라는 의문은 마치 예수가 언제나 근엄했으며 절대 웃지 않았으리라는 고정관념을 반영했다. 물론 정교의 ‘공식적 이념’을 지키려는 자들이 호먀코프의 철학을 꺾어내리려 지어낸 공격이었을지도 모른다.

호먀코프의 삶은 일정한 리듬을 유지하면서도 종종 충동적으로 움직였다. 한동안은 시골 영지에 머물며 오로지 농사와 농장 운영에 집중하다가, 또 어떤 때는 유럽으로 장기간 여행을 떠나기도 했다. 실제로 1847년에는 유럽 여행을 떠나 베를린, 드레스덴, 크라쿠프, 프라하, 빈, 파리, 런던, 옥스퍼드 등을 두루 방문했다. 그러나 생애 마지막 10년 동안 호먀코프는 놀라울 정도로 왕성하게 활동했다. 그는 철학과 종교 문제에 관한 선행 사유들을 폭넓게 연구하고 정리했으며, 러시아 정교의 역사적 전개를 깊이 탐구하는 한편, 새로운 물음을 제기하고 그에 대한 답을 모색했다.

1860년 호먀코프는 자신이 살던 마을에서 콜레라가 유행하자 이를 막으려고 싸우다가 결국 자신도 감염됐다. 그는 자신이 직접 고안한 치료제로 병을 이겨내려 했지만, 끝내 목숨을 구하지는 못했다. 호먀코프는 모스크바 다닐로프 수도원 공동묘지에 안치됐으며, 그 곁에는 시인 야지코프와 고골의 묘도 자리하고 있었다. 이후 소련 시대에는 그의 유해가 노보데비치 묘지로 이장됐다. 



모스크바 다닐로프 수도원 공동묘지에 안치된 호먀코프(1910년)
© 《루스키 미르》

자유를 향한 ‘잘못된’ 길 구바이둘리나의 삶과 창작

박선영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책임연구원



지난 3월 13일 ‘현대 음악의 살아 있는 전설’로 불리던 작곡가 소피아 구바이둘리나가 독일 함부르크 인근 아펜 자택에서 급성 심부전으로 타계했다. 향년 93세였다. 고령임에도 근년까지 선별이 필요할 만큼 많은 작품의 위촉 요청이 있었고, 2022년에는 1989년, 2002년에 이어 세 번째로 그래미상 현대 클래식 음악 부문 후보에 오르는 등 여전히 활발한 행보를 보여온 터라, 그녀의 부고는 더욱 충격적으로 다가왔다. 그녀의 타계는 20세기 현대 음악의 한 시대가 막을 내리는 듯한 깊은 상실감과 안타까움을 남겼다.

비보가 전해지자 전 세계에서 애도의 물결이 일었다. 특히 1991년부터 그녀가 거주해 온 독일 음악계의 추모 분위기는 더욱 각별했다. 북독일방송(NDR)은 바이올리니스트 안네-조피 무터와의 인터뷰를 통해 구바이둘리나의 삶과 창작을 되돌아보았고, 베를린 필하모니 유튜브 공식 채널은 추모 메시지와 함께 키릴 페트렌코 지휘로 베를린 필하모니 오케스트라가 지난 1월 18일에 연주한 그녀의 오라토리오 「신의 분노」 영상을 올렸다.

스탈린 통치, 냉전, 페레스트로이카, 그리고 소련 붕괴로 이어지는 격동과 억압의 시대를 살아오면서도, 구바이둘리나는 스스로 고백했듯 “위를 올려다보며” 곳곳이 자신만의 독창적이고 실험적인 창작의 길을 걸어갔다. 분열된 세계의 고통과 갈등을 직시한 그녀는 화해와 구원의 가능성을 끊임없이 탐색했고, 인간 존재의 본질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을 진지하게 던져 온 예술가였다. 모스크바음악원 재학 시절 그녀는 쇼스타코비치로부터 “자신의 길을 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당신이 ‘잘못된’ 길을 가기를 바랍니다!”라는 격려 어린 조언을 들었다. 이 비범한 조언을 창작의 신조로 삼아 평생 체제의 명령에 순응하기보다 자신의 영혼이 이끄는 길을 따르며 예술가로서의 소명과 신념을 지켜낸 구바이둘리나. 그녀를 추모하면서, ‘예술가는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라는 믿음을 실천해 낸 그녀의 삶과 음악 세계를 조명해 보고자 한다.

“나의 조국은 지구”

소피아 구바이둘리나는 1931년 10월 24일 타타르스탄 공화국 치스토폴에서 타타르인 측량 기사 아버지와 러시아인 교사 어머니 사이에서 세 자매 중 막내로 태어났다. 그녀는 생후 7개월 만에 수도 카잔으로 이주하여 그곳에서 성장하며 음악 교육을 받기 시작했다. 카잔음악원에서 피아노와 작곡을 공부한 뒤, 모스크바음악원 작곡학부에서 피아노와 작곡을, 대학원 과정에서 작곡을 전공했다. 1991년 독일로 이주하기 전까지 그녀는 모스크바에서 살았고, 2025년 사망할 때까지 독일 아펜에서 살았다.

이에 따라 구바이둘리나는 고향이 어디냐 혹은 조국이 어디냐는 질문을 지속해서 받아 왔다. 태어나 7개월가량 살았던 치스토폴이나(그녀의 이름을 딴 어린이 예술 학교가 있다), 20여 년을 살면서 음악 교육을 받고 미래를 위한 기반을 다졌던 카잔이나(2001년 탄생 70주년 기념으로 그녀가 살았던 집이 복원되어 그녀의 이름을 딴 현대 음악 센터로 개관됐을 뿐 아니라 그녀의 이름을 딴 국제 현대 음악제 ‘콩코르디아’와 국제 작곡가 콩쿠르, 피아노 콩쿠르가 개최된다), 40년 가까이 살면서 작곡가로서의 경력을 시작하고 견고히 쌓아 올린 모스크

“평생 체제의 명령에 순응하기보다
자신의 영혼이 이끄는 길을 따르며 예술가로서의
소명과 신념을 지켜내”

“고향과 조국 관련 질문에 대한
그녀의 최종적인 답변은 “나의 조국은 지구”.
이 답변 속에는 그녀의 통합적 세계관과 창작관이
온전히 녹아 있기도 ”

바나, 30년 넘게 살면서 시골의 자연 속에서 고독과 자유를 만끽하며 창작의 절정을 누린 독일 아펜이나. 고향과 조국 관련 질문에 대한 그녀의 최종적인 답변은 “나의 조국은 지구”였다. 그런데 이 답변 속에는 그녀의 통합적 세계관과 예술관이 온전히 녹아 있기도 하여 자못 흥미롭다.

태생적으로 동양과 서양을 모두 품게 된 그녀는 이슬람교 지도자 이맘의 손녀로서 신을 부정하는 소비에트 체제 아래에서 살아야 했다. 그런 환경 속에서도 1970년에는 러시아 정교회에서 세례를 받았고, 자신의 본래 이름 ‘사니야’를 버리고 ‘소피야’라는 이름을 선택했다. 이 개명은 단순한 신앙 고백을 넘어서 그녀의 정체성과 예술의 방향성을 결정짓는 상징적인 행위였다. 반체제적 성향의 피아니스트 마리아 유디나가 그녀의 대모가 되어 주었다. 개명을 통해 얻게 된 ‘소피야 구바이둘리나’라는 성명 속에서 동과 서의 정신적 전통이 다시 한번 합쳐지게 됐다.

그녀는 타타르어를 배우지는 않았지만, 어린 시절 아버지가 친구들과 대화할 때 사용하는 타타르어를 들으며 자랐고, 공산당 입당을 거부한 채 극도의 가난 속에서도 고결하게 살았던 과묵한 아버지로부터 동양적 정서를 배우게 됐다고 한다. 폴란드계 러시아인 어머니를 통해 슬라브적 정서를 배웠고, 존경했던 유대계 음악 교사들을 통해 유대 전통 역시 자연스럽게



카잔에서 열린 구바이둘리나 국제 현대 음악제 '콩코르디아' © business-online.ru

체화했다. 이처럼 다양한 문화적·정신적 체험은 그녀의 통합 지향적 음악 세계를 형성하는 공간이 됐다.

화해와 통합을 지향한 창작

작곡 행위를 기도나 신과의 대화라고 여겼던 구바이둘리나는 언제나 현상 너머를 바라보고자 했다. 대립이나 갈등이라는 외적 현상 너머에 존재하는 화해와 통합을 지향하면서 그녀는 작품 속에서 형식 혹은 내용상으로 상반되는 요소들을 결합하는 실험을 감행했다. 신실한 정교회 신자였던 그녀에게 창작 활동은 영적인 삶과 분리될 수 없는 것이었다. 한 인터뷰에서 구바이둘리나는 예술가의 임무는 ‘땅과 하늘을 연결하는 것’이라고 말하며, ‘종교’라는 단어의 어원인 ‘re-ligio’를 문자 그대로 해석한다고 밝혔다. 그녀에 따르면 종교란 끊어진 것을 다시 잇는 것이며, 이는 삶의 레가토(legato, 음과 음을 끊어지지 않도록 부드럽게 연결하는 연주법)를 끊임없이 다시 만들어 내는 것이다. 즉, 삶과 이상적 규범, 절대적 가치 사이의 단절된 연결을 복원하는 것이다. 작곡가의 이런 사유는 니콜라이 베르다예프가 저서 『창작의 의미』(1916)에서 쓰고 있는 ‘창작 자체가 종교’, ‘창작 행위는 언제나 해방이자 극복’, ‘창작은 자유와 분리될 수 없다’라는 주장과 깊이 맞닿아 있다.

구바이둘리나는 무반주 성악 소품에서부터 거대한 오라토리오에 이르기까지, 오페라를 제외한 거의 모든 장르에서 활발한 창작 활동을 펼치며 열린 자세로 다양한 민족의 문화 전통을 수용했다. 타타르 민속을 모티프로 한 작품들뿐 아니라, 고대 이집트어 텍스트에 기초한 칸타타 「멤피스之夜」(1968), 페르시아 시인 하카니, 하피즈, 하이얌의 텍스트를 바탕으로 한 칸타타 「루바이야트」(1969), 일본 전통 악기와 오케스트라를 위한 「나무 아래 그림자 속에서」(1998) 등은 작곡가의 폭넓은 문화 수용 양상을 보여주는 대표작들이다.

특히 주목할 작품은 오라토리오 「사랑과 증오에 관하여」(2016)이다. 성 프란치스코의 기도문에서 영감을 받은 이 작품에서 구바이둘리나는 “주여, 제가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게 하시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게 하시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소서”라는 기도문에 깊이 공감하며, 이기주의가 팽배한 현대 사회에 절실히 필요한 메시지를 음악으로 표현했다. 이 오라토리오에는 현대의 심각한 정치적·종교적 대립과 갈등 속에서 화해와 통합의 가능성을 모색하며 다양한 언어를 혼용한 다성적 구조로 이뤄졌다. 러시아어, 독일어, 프랑스어, 이탈리아어로 된 시편과 기도문을 바탕으로 한 이 작품의 제14악장에는 ‘언어 선택은 자유롭게’라는 지시문이 적혀 있는데, 이는 다양한 언어가 동시에 울리는 ‘언어의 폴리포니(다성악)’를 의도한 것이었다. 작품은 ‘사랑’과 ‘증오’라는 대립적 정서를 정면으로 다루면서도, 마지막에는 구원이 선명하게 보이지는 않지만, 그 가능성만큼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메시지를 남긴다.

구바이둘리나는 창작 초기부터 이처럼 대립 항을 제시한 뒤 화해와 통합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방식을 즐겨 사용해 왔다. 1975년 작 「두 오케스트라를 위한 협주곡」에서는 클래식 음악을 대표하는 심포니 오케스트라와 대중음악을 상징하는 재즈 오케스트라를 대비시켰다. 심포니 오케스트라는 존재론적 질문을 담은 진지한 철학적 사유를, 재즈 오케스트라는 육체의

“창작 초기부터

이처럼 대립 항을 제시한 뒤 화해와 통합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방식을 즐겨 사용해”



2001년 작곡가 탄생 70주년에 맞춰 개관한 카잔 소재 구바이둘리나 현대음악센터 © 구바이둘리나 현대음악센터

활기찬 움직임을 각각 표현하며 대립을 전개한다. 그러나 두 오케스트라가 심각하게 대립하다가 파국을 맞이한 후에는 작품의 초반부에 등장했던 종소리 테마가 재현되고, 러시아 시인 아파나시 페트의 시가 두 오케스트라에 의해 릴레이 방식으로 낭송되면서 고양된 분위기와 함께 대립의 극복과 화해의 가능성이 암시된다. 다만 이 작품에서도 「사랑과 증오에 관하여」와 마찬가지로 희망이 선명하게 제시되지는 않는다. 빛과 희망은 있지만, 완전한 안식은 끝내 보이지 않는 것이다.

카잔 소재 구바이둘리나 현대음악센터 소장인 라일라 가리폴리나(유명 소프라노 아이다 가리폴리나의 어머니)는 “구바이둘리나의 모든 작품이 빛과 어둠의 투쟁이다”라고 말한 바 있다. 실제로 그녀의 작품들은 대부분 상반된 두 항 사이의 긴장 구조 속에서 전개된다. 이런 대립은 단순히 내용이나 형식에만 그치지 않고, 창작의 핵심 원리인 지성과 직관의 문제로까지 확장된다. 구바이둘리나는 예술가의 삶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가 지성과 직관의 관계라고 밝히면서 “이상적으로는, 직관의 흐름이 지성의 법칙에 의해 절제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한다. 이를 위해 그녀는 피보나치 수열과 황금비, 함수 등을 탐구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직관과 지성의 화해라고 말한다. “반드시 그 균형, 혹은 둘 사이의 진동을 얻어야 한다”라는 주장은 그녀의 예술 세계가 단순한 갈등 제시를 넘어서 통합의 윤리를 지향하고 있음을 강조한다.

바흐 그리고 수직과 수평이 교차하는 십자가

음악이라기보다는 음향에 가까운 듯 들리는 구바이둘리나의 작품은 종종 직관과 즉흥성에만 의존해 만들어졌다는 오해를 받곤 한다. 그러나 작곡가 자신이 밝힌 바와 같이, 그녀의 작품은 피보나치 수열과 황금비에 관한 철저한 연구를 바탕으로 정밀하게 계산된 것이었다. 작품을 통해 영적 탐구를 지속해 온 그녀에게 영성과 수학적 완결성을 동시에 구현하는 바흐는 이상적인 존재일 수밖에 없었다. “나는 매일 바흐와 편지를 주고받는다”라는 그녀의 말에서 알 수

“바흐의 영향력이 가장 뚜렷하게 드러나는 작품은
바이올리니스트 기돈 크레머의 제안에 따라
그를 위해 작곡되어 그 덕분에 유명해진
바이올린 협주곡 제1번 「오베르토리움」”

있듯, 바흐는 그녀의 음악의 근저에 깊이 자리하고 있다. 단, 누구나 알아차릴 수 있도록 단순한 방식으로 직접 인용하지 않고, 독창적인 방식으로 변주하여 숨겨 놓았다.

바흐의 영향력이 가장 뚜렷하게 드러나는 작품은 바이올리니스트 기돈 크레머의 제안에 따라 그를 위해 작곡되어 그 덕분에 유명해진 바이올린 협주곡 제1번 「오베르토리움」(1980/1982)이다. ‘희생’ 또는 ‘봉헌’을 뜻하는 제목처럼, 이 작품은 바흐의 「음악적 헌정」을 역순으로 변주한 종교적 색채가 짙은 곡이다. 구바이둘리나가 바흐를 기리는 프로젝트 ‘수난 2000(Passion 2000)’을 위해 슈투트가르트 바흐 아카데미의 위촉을 받아 작곡한 대작 오라토리오 「요한 수난곡」은 연주 시간 1시간 30분여에 달하는 분량으로 완성됐고, 이어 2001년에는 하노버 라디오의 위촉으로 「요한 부활절」이 탄생했다. 바흐를 향한 자신의 경외심을 숨기지 않았던 구바이둘리나는 2007년 함부르크시로부터 4년마다 한 번씩 수여되는 ‘바흐상’을 수상했다.

「요한 수난곡」과 「요한 부활곡」은 수난과 죽음을 넘어 마침내 부활이 도래한다는 희망을 통해 화해와 통합을 지향하는 작곡가의 세계관을 드러낸다. 이런 맥락에서 ‘십자가’는 구바이둘리나의 창작 세계에서 매우 중요한 상징으로 등장한다. 그녀는 예술 창작의 고통을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에 비유하기도 하고, 예술 작품이 언제나 십자가 형태로 보인다고 고백하기도 한다. 또한, 바흐의 작품에서 뚜렷하게 드러나는 ‘본질적 시간’을 수평으로 흐르는 천문학적 시간과 대비되는 ‘수직의 시간’으로 전환하는 데서 음악이 가장 적합한 매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작곡가는 우리가 ‘시간의 포로’가 되어 단지 평면적으로만 살아가며 수직으로 상승하지



“작품을 통해


영적인 탐구를 이어가는 구바이둘리나에게 영성과 수학적 완결성을 동시에 구현하는 바흐는 이상적인 존재”

못하는 존재가 돼버렸다고 진단하며, 이런 인간 존재를 위해 수직과 수평이 교차하는 십자가의 상징을 자신의 음악에 구현하고자 했다고 말한다. 예컨대, 여덟 대의 첼로를 위한 작품인 「신기루: 춤추는 태양」(2002)에서는 네 대의 첼로가 하강하고 나머지 네 대의 첼로는 상승하며 서로 교차한다. 「플루트, 현악기, 타악기를 위한 음악」(1994)에서는 오케스트라를 두 그룹으로 나누어, 4분의 1음 높게 조율된 현악기들은 상승하고, 4분의 1음 낮게 조율된 현악기들은 하강하게 하면서 극적인 대조를 이루게 한다.

바얀과 첼로, 현악기를 위한 파르티타 「일곱 말씀」(1982)에서도 십자가의 형상이 암시된다. 두 개의 솔로 악기인 바얀과 첼로는 각각 높은 음역과 낮은 음역을 연주하며 대조를 이루다가 점차 음역이 가까워지면서 교차하게 되는데, 이 교차 지점에서 십자가의 이미지를 떠올릴 수 있다. 더 나아가 이 두 악기는 연주 주법을 통해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순간을 암시적으로 재현하기도 한다. 바얀은 이웃하는 두 키를 특별한 압력을 가하는 방식으로, 첼로는 한 현에서 긴 음을 낸 후 이웃하는 다른 현에서 글리산도(높이가 다른 두 음 사이를 미끄러지듯 빠르게 올리거나 내려서 연주하는 기법) 주법을 사용해 십자가의 형상을 구현한다.

한편, 안네-조피 무터는 자신이 의뢰해 작곡된 바이올린 협주곡 제2번 「현재 속에서」(2006)에서 구바이둘리나의 자화상을 봤다고 말한다. 이 작품은 악기 편성에서부터 파격적이다. 오케스트라에는 전통적인 바이올린 부분이 부재한 채 오직 협연자의 바이올린 단 한 대만 존재하는 것이다. 무터는 이 하나뿐인 바이올린을 작곡가 구바이둘리나로, 오케스트라를 사회 전체로 해석하면서 이 곡이 개인과 사회의 갈등을 다룬 작품이라고 본다. 무터는 구바이둘리나가 세상 속에서 부대끼며 살아가는 것이 거의 불가능해 보이는 사람이었다고 회고하면서 지상에서의 삶은 작곡가에게는 일종의 과도기 혹은 순례기 같은 시간이었다고 말한다. 하지만 이런 대립 속에서도 사랑이 우리 안에 여전히 살아 있기에 우리가 서로 이해하려는 노력을 멈추지 않는다면 세상은 변화할 수 있다는 희망을 이 작품이 보여주고 있다고 해석하면서 작곡가의 통합 지향적 창작관을 대변한다.

종교적 영감과 철학적 사유가 응축된 그녀의 음악이 결코 편안하게는 들리지 않는다. 불협화음은 끊임없이 불안과 긴장을 불러일으키지만, 바로 그 불안과 긴장 속에서 깊은 울림이 생겨나기도 한다. 구바이둘리나는 아름다운 선율을 들려주기보다는 근원적 질문을 던지는 음악, 존재의 본질에 다가가는 하나의 영적 체험이 될 수 있는 음악을 창조해 냈다. “전 예연자가 되고 싶지 않아요. 전 질문들의 세계에서 살고 싶어요”라고 말했던 그녀가 남긴 음악은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는 듯하다.

지휘자 사이먼 래틀 경은 그녀를 두고 “가끔 지구에 내려와 빛을 전하고 다시 자신의 궤도로 돌아가는 작곡가”라고 평한 바 있다. 이제 그녀는 자신의 궤도로 영원히 돌아갔다. 6월이면 손자의 품에 안겨 모스크바로 돌아갈 그녀의 유해가 무사히 안장되어, 부디 평온히 영면하시길 빈다. 

기억의 계절 러시아의 5월 풍경

김현진 한국외국어대학교 러시아연구소 학술연구교수

매년 5월은 러시아인들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다. 소련 시절부터 이어온 노동절(5월 1일)과 전승절(5월 9일)은 러시아 사회에서 국가 정체성과 시민 일상을 동시에 구성해 온 대표적인 기념일이다. 두 기념일 사이에 형성되는 긴 연휴는 '5월 명절(마이스키에 프라즈드니키)'로 불리며, 가족 나들이와 교외 생활, 지역 간 이동의 시기로 확장된다. 2025년에는 여기에 모스크바 도시 문화를 상징하는 기념일인 모스크바 지하철 개통 90주년(5월 15일)이 더해졌다. 5월 「미디어 트렌드」는 이 세 기념일을 중심으로 2025년 러시아 사회의 면면을 들여다보고, 국가 담론과 시민 일상 간의 교차 지점을 조명한다.

#1

노동절: '혁명의 날'에서 '봄의 축제'로

5월 1일은 전 세계적으로 '노동절' 또는 '국제 노동자의 날'로 기념되는 날이며, 그 기원은 1886년 미국 시카고에서 벌어진 노동자 시위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 시위는 1일 8시간 노동제를 요구



1917년 러시아 프스코프에서 열린 노동절(5월 1일) 시위 © 위키미디어

하며 벌어진 대규모 파업에서 유래했으며, 이후 1889년 파리에서 열린 제2인터내셔널 회의에서 5월 1일을 ‘국제 노동자 연대의 날’로 지정하며 세계로 확산했다.

러시아 제국 시절 5월 1일은 급진적 저항의 성격을 띠었다. 1901년 사회주의 신문 《이스크라》에 러시아사회민주당(RSDLP)이 노동절 선언문을 공식 발표하며 프롤레타리아트의 정치적 과제를 구체화했다. 고멜(현 벨라루스 호멜), 티플리스(현 조지아 트빌리시), 하리코프(현 우크라이나 하르키우) 등지에서 열린 시위에서는 ‘전제정 타도!’, ‘공화국 만세!’라는 구호가 처음 울려 퍼졌고,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는 노동자 시위와 군대의 첫 충돌이 발생했다. 이는 노동절이 현실적 투쟁에서 더 나아가 정치 체제에 대한 변화 요구를 수반한 정치적 투쟁임을 분명히 한 사건이었다.

이후 노동절은 러시아 전역에서 빠르게 확산했다. 1905년에는 러시아 도시와 공업 지대 177곳



모스크바 붉은광장의 노동절 기념 축제 모습 © 《리아 노보스티》

에서 노동절을 기념했고, 1912년에는 노동자 40만 명이 파업과 시위에 참여했다. 이 숫자는 1913년 42만 명, 1914년 50만 명으로 매년 증가했으며, 8시간 노동제, 지주 토지 몰수, 전제정 타도라는 급진적 요구가 구호로 등장했다. 농민과 군인, 수병도 이 시위에 점차 동참하면서, 노동절은 계층을 막론하고 혁명운동의 정점으로 작용했다.

1917년 2월 혁명 이후 5월 1일은 대중시위의 날로 처음 공개 기념됐다. ‘모든 권력을 소비에트로!’, ‘제국주의 전쟁을 중단하라!’라는 구호가 대로를 가득 메웠고, 노동자들은 검열과 탄압 없이 정치적 요구를 외칠 수 있게 됐다. 10월 혁명 이후 노동절은 소련의 공식 국경일로 지정됐으며, 모스크바 붉은광장에서는 노동자 시위와 군사 행진이 해마다 열리며 체제의 시각적 정통성을 구축하는 핵심 의례가 됐다. 소련 시절 5월 1일에는 레닌, 스탈린의 초상과 붉은 깃발이 가득한 거리에서 학생과 노동자, 군인이 동원됐고, 이 행진은 ‘사회주의 생활양식’의 이상을 시각적으로 구현했다.

하지만 소련 해체 이후 노동절의 의미는 급격한 전환을 맞이했다. 1992년 러시아연방은 5월 1일을 ‘노동절(Labor Day)’이 아닌 ‘봄과 노동의 날(Day of Spring and Labor)’로 개명했으며, 이 명칭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2001년 12월 30일 제정된 「러시아연방 노동법」 제112조에 따라 5월 1일을 ‘봄과 노동의 날’로 공식 명명하고 국가 휴무일로 지정했다. 이런 흐름 속에서 2025년 현재 노동절은 이념적 기념일의 과거 흔적을 털어내고 봄의 시작과 긴 연휴의 기쁨을 누리는 계절 축제로 완전히 변모했다고 할 수 있다.

러시아의 주요 미디어는 노동절을 맞아 5월 1일의 역사적 기원과 현대적 의미를 되짚는 보도를 다수 내보냈다. 《로시스카야 가제타》는 노동절이 19세기 말 노동자들의 투쟁에서 비롯됐으며, 이날이 점차 시민 축제로 변모하며 비정치화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스베르방크 악티브노》는 5월 1일이 도시인들에게 ‘다차(별장) 시즌’이 시작되는 날이자, 일상에서 노동과 자연, 가족이 만나는 상징적 순간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보여줬다. 전반적으로 러시아 미디어는 소련 시절의 거대 담론을 그대로 반복하기보다는 노동절을 시민의 일상을 조명하는 방향으로 보도했다. 이는 러시아 사회에서 정치적 기념일의 탈정치화와 생활화가 점진적으로 이뤄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2

전승절: 기억 정치의 정점

5월 9일 ‘승리의 날(Victory Day)’로 불리는 전승절은 러시아에서 가장 중요한 국경일 중 하나다. 1945년 나치 독일의 항복과 제2차 세계대전 유럽 전선의 전쟁 종식을 기념하는 이 날은 소련 시절부터 반파시즘 승리의 역사적 정당성과 국가 정체성의 상징으로 자리매김해 왔다. 오늘날에도 전승절은 러시아 정부가 ‘역사적 진실’을 둘러싼 국제적 논쟁에 메시지를 발신하고, 국내적으로는 애국심을 고양하는 전략적 기념일로서 의미가 크다.

2025년 5월 9일 제80주년 전승절은 예년보다 더욱 더 강렬한 상징들을 보여줬다. 모스크바 붉은광장에서 열린 군사 행진은 러시아 전역에 생중계됐고,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이날 기념 연설에서 전국 곳곳의 지역들이 제2차 세계대전, 특히 ‘대조국전쟁’으로 불리는 독소전쟁에서 나온 희생과 기여를 구체적으로 호명하면서 승리가 일부 집단의 공이 아니라 모든 민족과 지역이 함께 쌓아 올린 ‘공동의 역사’임을 강조했다. 그는 모스크바와 레닌그라드, 스탈린그라드, 쿠르스크는 물론 오데사, 세바스토폴, 무르만스크, 툴라, 스몰렌스크 등의 도시들까지 일일이 열거하며 전선과 후방의 희생을 상기했다. 그는 이 승리를 “우리 공동의 정신적 기반이며, 조국에 대한 충성과 형제애,



2025년 5월 9일 ‘승리의 날’ 기념 퍼레이드 © 러시아 대통령실

가족과 국가를 지키려는 의지의 증거”라고 규정했다. 푸틴의 이 연설은 다민족·다지역 국가인 러시아의 통합된 ‘애국 서사’를 재강화하는 전략으로 보여진다. 이와 관련해 국영 언론은 서방과 발트 3국(리투아니아, 라트비아, 에스토니아)이 제2차 세계대전의 역사를 의도적으로 왜곡하거나, 일부 지역에서 나치 협력 세력을 미화하고 있다는 주장을 다루기도 했다.

국제 외교적 메시지도 함께 담겼다. 이번 전승절에는 전 세계 37개국 정상과 고위 대표단이 참석했다. 특히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룰라 브라질 대통령의 참석은 러시아와의 전략적 연대를 시사했고, 서방과의 갈등 구도 속에서 새로운 국제 질서를 모색하는 러시아 외교 전략을 부각해줬다. 또한, 5월 초 모스크바에서 열린 포럼 《평화의 횃불과 새로운 역사 프론티어》에 중국 대표단이 참석하여 반파시즘 전통을 공유하고 역사적 연대를 재확인했다.



‘불명의 연대’ 행진 © 위키피디아

이번 전승절의 특징 중 하나는 관련 행사들이 물리적 공간을 넘어 디지털 영역까지 확장했다는 점이다. 지방 도시들도 기념행사에 적극적으로 동참했다. 예컨대 스베르롭스크주에서는 대조국전쟁 당시 장비들을 복원한 퍼레이드가 열려서 시민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이벤트를 제공했다. 이런 경험은 국경을 넘는 연대의 형식으로도 이어졌다. 대표적인 예가 ‘불멸의 연대(Immortal Regiment)’ 행진이다. 이 행사는 2012년 톰스크에서 시작된 시민 주도의 추모 운동으로, 5월 9일 ‘승리의 날’에 시민들이 제2차 세계대전 참전 가족의 사진을 들고 도심 거리에 모여 행진한다. 이 행사는 2015년부터 푸틴 대통령이 참석하면서 국가 주도의 기념행사로 자리 잡았고, 올해는 러시아 57개 지역뿐 아니라 전 세계 120개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됐다. ‘불멸의 연대’는 전승절을 시민적 참여로 확장시키는 동시에, 정부가 민간 형식을 빌려 애국심을 고양하는 상징적 장치로 활용한다는 지적도 있다.

‘승리의 날’ 80주년을 기념하는 문화 행사도 다채롭게 열렸다. 예를 들면, 전승절을 맞아 모스크바 트레티야코프 미술관 신관에서는 특별 전시회 「1418일: 위대한 승리 80주년을 향하여」가 열렸다. 전쟁의 기억을 담은 회화, 사진, 설치 작품 등 200여 점이 전시됐으며, 오늘날 전승절이 단지 거리 행진이나 군사 행진에 그치지 않고, 모든 세대가 예술을 통해 전쟁의 역사와 그 의미를 되돌아보는 방식으로 기념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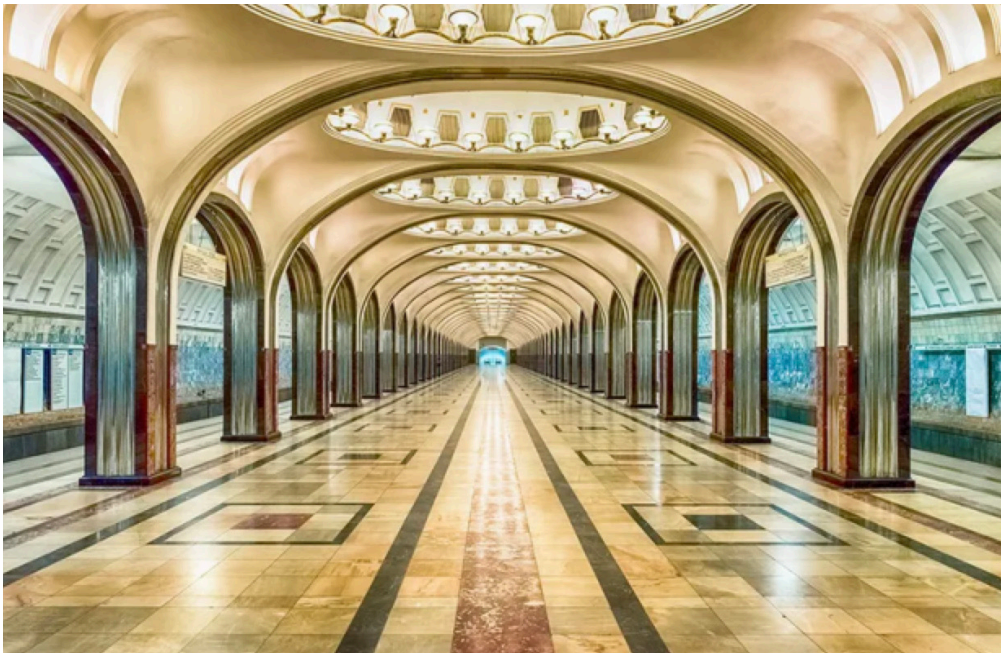
트레티야코프 미술관 신관에서 진행된 ‘승리의 날’ 80주년 기념 미술 전시회 © RIO

이와 동시에 온라인 공간에서는 ‘#RememberVictory’ 캠페인이 진행됐다. 공식 포털 사이트 May9.ru를 중심으로 시민들은 참전용사와 그 가족의 이야기를 공유하고, 전승절 상징(성 게오르기 리본, 군모 등)를 착용한 사진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며 기억을 재생산했다. 디지털 추모 형식도 정례화됐다. 러시아의 대표적인 SNS인 브콘택테(VK)와 아드노클라스니키(OK)는 1분간의 묵념 알림서비스를 제공하고, 온라인 헌화 플랫폼을 통해 가상 전쟁기념비 헌화를 유도하는 등 추모 방식을 디지털 환경에 적용하는 시도를 이어갔다. 이처럼 다양한 층위의 재현을 통해 전승절은 단순히 과거의 기념일이 더는 아니라, 오늘날 러시아 국가 서사를 조직하는 하나의 상징적 플랫폼으로 기능했다.

#3

모스크바 지하철 개통 90주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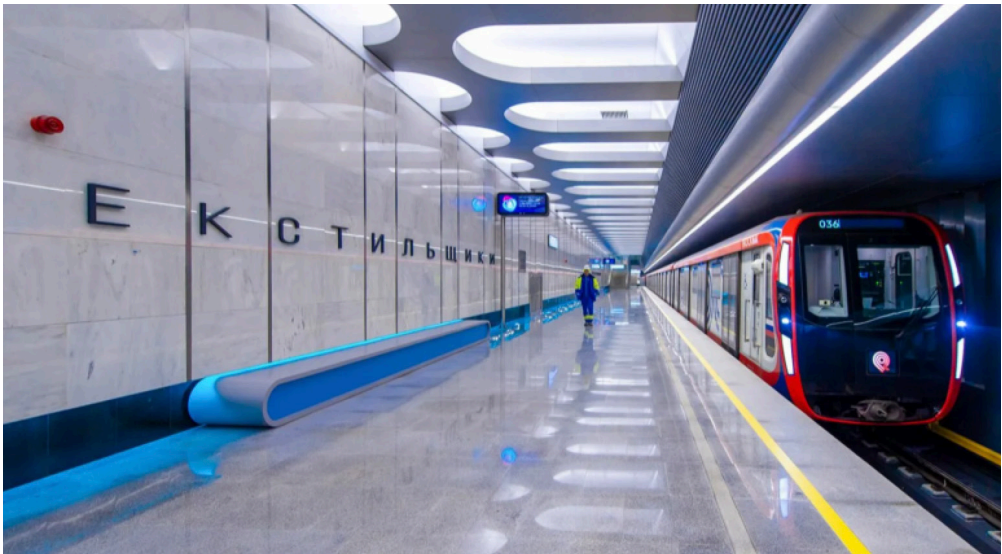
2021년 암스테르담 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IDFA)에서 소개되어 최우수 촬영상을 수상한 다큐멘터리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Where Are We Headed?)」는 모스크바 지하철을 배경으로, 이곳을 오가는 시민들의 일상을 관찰하며 지하철이 단지 교통수단을 넘어 현대 러시아 사회의 감정, 질서, 긴장을 품은 도시의 심층적 구조임을 보여준다. 말없이 승강장에 선 사람들, 붉비는 열차 속



모스크바 마야콥스카야 지하철역 승강장 © 위키피디아



개통 90주년을 기념해 생일 케이크 형태로 장식된 모스크바 5호선 아르바츠카야 지하철역 © RIO



모스크바 지하철의 현대적 변모를 보여주는 텍스틸시키 지하철역 전경 © 모스크바시 홈페이지

풍경, 역 안을 메우는 조명과 안내 방송... 이 모든 요소는 다큐멘터리 속에서 모스크바라는 도시의 집단적 무의식과 사회적 정체성을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장치로 작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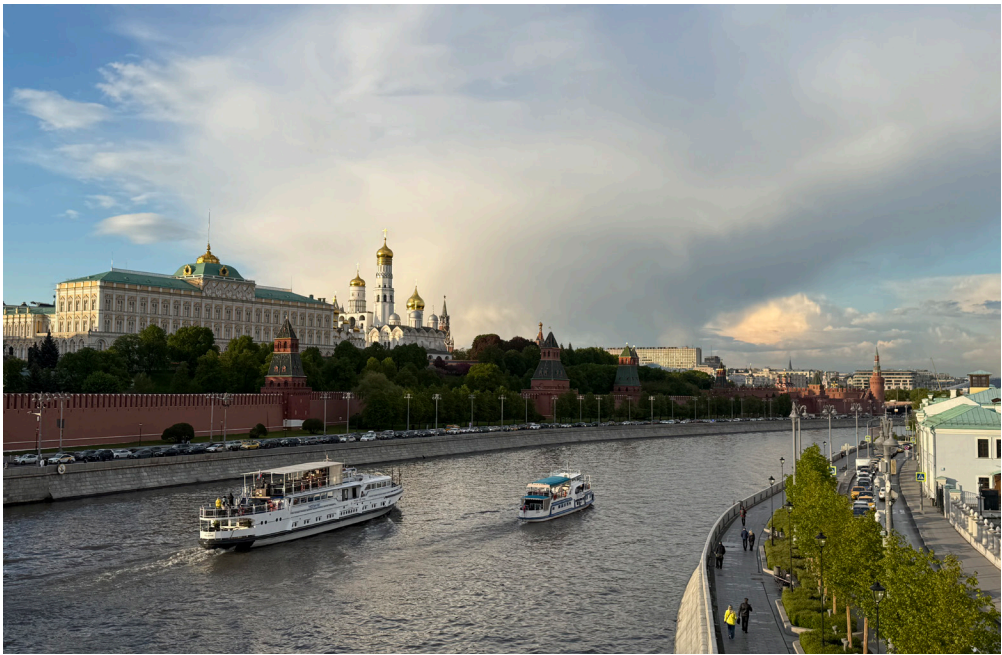
2025년 개통 90주년을 맞아 모스크바 지하철 공간이 재조명됐다. 지하철은 과거 스탈린 체제의 기술적 야망과 건축적 미학이 깃든 공간이자, 오늘날 수많은 시민이 매일 오가는 일상과 정체성의 동선으로 기능한다. 이 공간은 러시아 사회의 과거·현재·미래를 관통하는 거대한 인프라이자 문화적 상징이 된 것이다.

러시아의 주요 방송사인 1TV와 NTV는 지하철 개통 90주년을 맞아 뉴스 특집과 다큐멘터리를 방영했다. 1TV는 지하철의 역사와 예술, 기술 진화를 조명하면서, 지하철이 단순한 교통수단을 넘어 도시의 문화적 상징이자 일상의 배경임을 강조했다. NTV도 특집 보도와 다큐멘터리를 통해 지하철의 건축미와 기술적 성과, 시민 기억을 재조명했다. 키예프스카야, 마야콥스카야, 콤소몰스카야 등 각 시대를 대표하는 지하철역은 환승역을 넘어 소련과 러시아를 아우르며 정치적 이상과 시대적 감성이 교차하는 장소로 해석되고 있다.

2025년 현재 모스크바 지하철은 90년의 유산 위에 첨단 기술과 감각적 디자인을 접목한 현대화 작업을 대대적으로 진행 중이다. 《걸프 비즈니스》는 이를 두고 ‘전통과 혁신이 나란히 달리는 도시의 동맥’이라고 표현하면서, 지하철이 단지 과거의 유산에 머무르지 않고 AI 기반 열차 운영 시스템, 무현금 결제 인프라, 디지털 안내 기술, 접근성 강화 설계 등으로 빠르게 진화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신규 개통한 역들은 현대적 디자인, 친환경 조명 시스템, 실시간 정보 패널 등을 갖추고 있어, 과거의 ‘지하 궁전’ 이미지에 스마트 도시 인프라로서의 정체성을 더하고 있다.

러시아에서 5월은 ‘국가 기념일의 달’이고, 동시에 ‘시민들의 계절적 이동’이 가장 활발히 일어나는 시기이기도 하다. 5월 1일 노동절과 5월 9일 전승절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이른바 ‘5월 명절’은 러시아인들에게 봄을 맞아 연휴를 즐기고 이동할 수 있는 소중한 기간으로 인식된다.

2025년 러시아 정부는 공식 휴무일을 조정하여 시민들이 최장 11일간 황금연휴를 누릴 수 있도록 했다. 5월 1일(노동절)과 9일(전승절) 사이에 1월과 2월의 대체 공휴일을 연결하여 5월 2일(금)과 8일(목)을 휴무일로 지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5월 1일부터 4일, 8일부터 11일까지 두 차례의 연속 연휴가 만들어졌고, 수많은 시민이 이 시기를 활용해 다차(별장), 고향 방문, 국내외 여행 등을 즐



5월의 모스크바 강변 풍경 © RIO



‘승리 공원’에서 열린 ‘승리의 날’ 80주년 축하 거리 공연 © RIO

길 수 있었다. 러시아 주요 미디어는 연휴를 앞두고 기상예보, 교통 혼잡도, 숙소 예약 현황, 유류비와 농산물 가격 변동 등에 관한 실용 정보를 적극적으로 보도했다. 경제지 《RBC》에 따르면, 연휴 기간 중 약 1천만 명 이상이 여행을 떠났으며, 소치·크림반도·아나파 등 남부 휴양지의 호텔 예약률은 90%에 육박했다.

5월의 시작을 알리는 노동절은 이념적 기념일에서 봄맞이 여가의 시간으로 점차 전환됐고, 전승절은 여전히 공동의 기억을 재확인하는 국가적 의례로 기능했으며, 모스크바 지하철 개통 90주년 기념일은 모스크바의 오랜 일상을 환기하는 계기가 됐다. 이런 흐름 속에서 2025년 러시아의 5월은 과거와 현재, 공동체성과 개인성, 국가의 역사와 시민의 일상이 서로 교차하고 조율되는 계절임을 재확인했다. 